



한국평협

1997 · 2

제34호



한국 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당신들도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시오.
마태 20,4

한국 평협 제34호

발행일 1997년 2월 22일

발행인 류덕희

편집인 한국 평협 홍보분과위원회

서울 중구 명동 2가 1

가톨릭 회관 5층

☎ (02)777-2013 Fax (02)778-7427

인사말	
신앙과 삶이 일치하도록 노력합니다	류덕희 · 5
격려사	
평신도는 누구인가	김옥균 · 6
목자의 가르침	
한국교회가 재생해야 할 때	김창렬 · 7
하느님 백성의 소리	
선교에 대한 인식의 전환	남기충 · 17
'우리농' 수도권 생협의 몫이 소중하다	유정목 · 20
통일 지연은 내 탓	박인환 · 22
본당 이름은 옛 땅이름 위주로	배우리 · 24
평신도 논단	
사회 병리 현상,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양승규 · 27
평신도주일 강론 자료	
내가 변하면 세상도 변합니다	평 협 · 35
성명서	
대만의 핵폐기물 북한 반입에 대한 우리의 견해	평 협 · 39
환경 선언문	
	평 협 · 40
2000년 대회년을 맞이하며	
공동선, 공동체, 사랑	교 황 · 41
교회 용어, 제대로 압시다	
교회의 공식 용어	주교회의 · 47
소 설	
목없는 무덤에서 들려오는 소리	박정순 · 55
각 교구 평협의 활동상	
	68
각 교구 평협 회장 명단	
	83
한국(전국) 평협 임원 명단	
	84

신앙과 삶이 일치하도록 노력합시다



류덕희 모이세

한국 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회장

1996년 11월 17일 평신도주일에 평협에서는 다가올 3천년대를 준비하는 평신도들의 삶과 역할에 대한 새로운 결심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평신도들은 이러한 새로운 결심을 잘 실천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앞장서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신앙 따로 생활 따로인 이원적 신앙생활을 버리고 신앙과 삶이 일치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신앙과 사회생활 속의 삶이 일치하지 못하는 것은 참 신앙인이라 할 수 없으며, 신앙인으로서 성숙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나라는 가톨릭을 비롯한 개신교, 불교 등 종교를 믿는 신앙인들이 어느 나라보다도 많은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는 빈부의 격차와 지역 문제, 계층간의 갈등, 청소년 문제, 환경오염 문제, 농어촌 문제, 민족의 분단, 인명경시, 이기주의 등으로 큰 혼란 속에 놓여있습니다. 구세주 강생 2천년 대희년을 준비하는 우리 평신도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 자신의 문제로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현상들에 대한 책임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제대로 살지 못한 데에도 기인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여러 교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복음화 운동의 요체인 소공동체 복음 나누기는 사회 속의 여러 가지 병폐를 극복하고 치유하는 데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복음 나누기를 통해서 복음 묵상과 생활 체험을 나누고 또한 행동으로 옮길 것을 결심하고 실천함으로써 좀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밑거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복음을 나누는 데는 열심인 것 같으나 그 말씀을 실천하는 데는 소홀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실천없는 복음 나누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지난 1년 가까이 평협은 이러한 소공동체 복음화운동과 청소년 사목 활성화, 민족 화해와 통일 문제에 비중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이 과제들이 신자들의 생활 속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적 위기와 우리 교회가 담담해 나가야 할 시대적 사명을 생각한다면 우리 평신도들의 역할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나로부터 변화한다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내가 변화할 때 내 가족이 변하고 이웃이 변하고 사회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들 스스로 보여주기 위한 신앙이 아닌, 복음을 삶 속에서 구현해 나가는, 증거하는 평신도가 되도록 합시다. 가족과 이웃의 소중함을 알고 사랑을 나누는 평신도들이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다한다면 하느님 보시기에도 좋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평신도는 누구인가



김옥균 바오로 주교

주교회의 평신도사도직위원회 위원장 · 서울대교구 총대리

구세주 강생 2000년 대회년이 불과 몇 년 남지 않았습니다. 교황 성하께서는 1994년 11월 10일, 2000년 대회년 준비에 관한 당신의 교서 「제삼천년기」를 발표하시면서, 모든 신자들이 회년의 정신을 올바로 깨닫고 그 준비에 만전을 기울이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교황 성하의 이러한 뜻에 따라 우리 한국교회는 1995년 주교회의 가을 정기총회 때에 '2000년 대회년 주교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대회년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주교 5명으로 구성된 이 위원회는 그 동안 대회년을 올바르게 맞이하기 위한 기반을 제시하고자 '2000년 대회년 길잡이'로서 세 권의 소책자를 펴내 전국에 배포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선포하신 은총의 해에 맞갖은 삶, 그것은 바로 우리 각자의 철저한 회개와 쇄신이 바탕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서 겸허한 자세로 '나 자신은 누구인가?' 하는 반성이 앞서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전제 아래, 우리 평신도들 각자는 '평신도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져볼 수 있겠습니다. 이 질문은 참으로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는 평신도는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물음도 함께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비체' '하느님의 백성'이라고 정의함으로써, 성직자도 평신도도 다 같이 하느님의 백성이며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직자와 평신도는 이질적인 차원의 두 요소가 아니라, 하나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며, 같은 하느님의 백성이므로서 다만 그 직분이 다를 뿐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시 말해, 세례로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은 그 사람이 수도자인가, 성직자인가 하는 것보다 더욱 근본적이며 본질적인 신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땅의 모든 평신도들은 이러한 적극적인 인식을 가지고서 자신들의 사도직을 실천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평신도 사도직, 그것은 바로 이 세상 안에 살면서 세상을 성화하는 것입니다. 즉 평신도들은 자신들이 몸담고 있는 그 자리에서 각자 맡은 일들에 그리스도의 뜻에 맞게 최선을 다하여 그리스도의 정신과 가치관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재생해야 할 때



김창렬 바오로 주교

제주교구장

1. 총체적 불신앙과 공동체적 회개

나는 우리 한국교회가 진정한 참회를 통해 재생하기 위한 일대 전환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강한 충동을 지난 몇 해 동안 받아왔습니다. 우리는 지난 수십 년에 걸쳐 '구조적 악'이란 말을 자주 들어왔으며 따라서 그 말이 의미하는 바를 잘 이해하고 있는 터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와 비슷한 것이 있어서 그 점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집단적 공동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나의 강한 느낌입니다. 개인의 회개 과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집단적 회개의 경우에 있어서도 맨 먼저 요구되는 것은 에누리없는 자기 성찰입니다.

우리는 그 동안 사회 내지 현실참여에 큰 관심을 가지고 많은 힘을 쏟아왔습니다. 사실 현실문제 해결에 큰 공헌을 해왔음을 한국교회는 스스로 의식하며 자랑스럽게 내세우고 있는 터입니다. 그러나 한편 정치를 비롯한 여러 가지 세상사에 대한 일부 교회의 과도한 관심과 열성 탓에 '정치하는 교회' 또는 '세속에 맞들인 교회'라는 이미지를 세인의 뇌리에 박아준 것도 사실입니다.

현실 참여에는 복음적인 것과 비복음적 또는 반복음적인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자는 교회가 수행하기로 되어있는 사명 안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요 후자는 그렇지 않은 것입니

다. 로마의 희극시인 푸블리우스 테렌시우스 아펠르는 "나는 하나의 인간이다. 그러므로 인간적인 것으로서 내게 무관한 것은 하나도 없다고 여긴다."고 말한 바 있는데, 교회에 대하여도 그와 비슷한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교회는 세속 안에 있다. 그러므로 세속적인 그 어느 것도 교회와 무관한 것은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의 내재성과 함께 그 초월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는 현세를 지나치게 중요시하는 풍조가 높아져 있는 것이 숨김없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영락없는 세속화 현상입니다. 세상사와 인간사를 가르치고 거기에 열을 올리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가 아니어도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온통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까? 교회의 사명은 그런 것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 안에서 인간을 찾고, 내세의 관점에서 현세를 보는 것이 교회의 자세여야 합니다.

최근의 외신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사회의 구조적 악을 규탄하는 신학자나 성직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중남미 교회는 날마다 평균 8천 명의 신자들을 잃고 있다고 합니다. 교회를 떠나서 그들은 어디로 가는가? 개신교 계통의 신홍 종파를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구조적 악을 없앤답시고 바깥일에 열을 올

리는 동안에 그 권익 옹호와 지위 향상을 위해 대신 나서서 싸워주고 있는 바로 그 계층 사람들이 정통 신앙을 버리고 떠난다니 이 얼마나 애처롭고 슬프고 쓴웃음마저 자아내는 광경입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의 내부 사정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와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나는 확실히 말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허약해지고 방향 감각을 잃은 우리 교회의 병인(病因)이라고 나는 단정하는 바입니다. 그것은 또한 내가 집단적 회개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행히도 우리 한국교회는 자체의 심각한 사정과 문제점을 알고 있으며 그 해결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자인하고 있는 증세를 몇 가지 들어보면 영세자의 감소, 행불자 및 냉담자의 증가, 신자의 중산층화, 교리 지식의 전반적 수준 저하, 영성 및 신심 생활의 퇴화, 현세주의, 인본주의, 세속화 등입니다.

이러한 증세에 대한 좋은 처방이 여러 가지 나오고 있지만 나는 이 글을 통해 가장 근원적인 병인으로 보이는 것을 규명하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져 교회 전체가 재생의 기쁨을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도 개인의 재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병인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는 망설임, 부인, 저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구나 전 한국교회의 쇄신과 재생을 위해서는 반드시 겪어야 할 죽음의 고통인 것입니다.

2. 사명의 올바른 이해

우리 교회는 억눌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

고, 찢긴 마음을 싸매 주고, 포로들에게 해방을 알리고, 옥에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며, 슬퍼하는 모든 사람을 위로해 주러 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루가 4,4; 이사 61,1-2 참조)를 도와드릴 사명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앓는 사람은 고쳐주고 죽은 사람은 살려주고 나병 환자는 깨끗이 낮게 해주며 마귀는 쫓아낼 권한을 우리 교회는 받고 있습니다(마태 10,8 참조).

그러므로 우리 나라의 정치와 경제를 비롯한 모든 분야의 일들이 잘되고 인간 회복이 이루어지고 인권이 신장되고 국민 복지도 향상되도록 하는 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국민들과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웃과 벗이 되어주어야 합니다. 이것을 문제삼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적이라 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그렇다고 해서 이 현세를 위해 받은 사명과 의무에 대한 과잉 의식은 금물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자구적으로는 또는 물리적으로는 당신의 사명으로 예언된 그 일들을 다 이행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생전에 많은 기적들을 행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갖가지 질병을 치유해 주시기도 하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해주시기도 하고 소경과 귀머거리와 병어리와 지체 부자유자들을 온전하게 해주시기도 하고 마귀를 쫓아내시기도 하고 죽은 사람을 소생시키기도 하고 배고픈 군중을 배불리 먹이시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위해 그렇게 해주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가난 구제도 하시지 않았습니니다. 갇힌 이들을 풀어주기 위해 감옥을 찾아가신 일도 없습니니다. 한 사람의 수인도

석방시키지 않으셨습니다. 바라빠를 석방한 것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의 석방을 요청한 것은 민중이었고 그를 석방한 것은 빌라도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앞에 놓고 우리는 이에 대해 무슨 생각을 하며 어떤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명은 현세에서 수행되기는 하되 그 본 내용이나 목적은 초자연적이며 영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생각이요 할 말입니다. 그 치유, 그 석방은 영적인 것입니다. 물욕에 눈먼 사람들, 이기심으로 옳게 견지 못하는 사람들, 증오와 복수심에 사로잡힌 사람들, 영적 교만에 묶여있는 사람들, 욕정으로 더럽혀진 사람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풀어주고 깨끗이 해주고 살리는 것이 구원자 예수님의 사명이었고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사실 물리적 가난이나 신체적 부자유 그 자체는 구원을 위한 조건도 아니요 구원을 요구할 특권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구약시대에도 빈자, 병약자, 떠돌이, 과부, 고아에 대한 특별한 사랑이 강조되었었고 이교 사회에서마저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자연적 인간적 동정이나 연민은 중요한 덕목으로 가르쳐졌을 뿐 아니라 실제로 의연, 즉 사회적 자선이나 공익을 위하여 돈이나 물품을 내주는 것이 관습화되어 왔습니다. 요새 우리 나라에서는 불우이웃돕기가 요지부동의 하나의 관습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자선 행위가 당신 자신에게 한 것과 동일한 가치로 높여주신 분입니다. 베푸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더없이 고마운 일입니다. 그러나 베풀을 때는 측에서 볼 때 사정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

습니다. 그에게 베푸는 사람이 비록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받는 것은 현세적, 물질적, 육체적 도움일 뿐 초자연화된 도움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요새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할 것 없이 많은 이들이 교회의 고유한 선민적 사명으로 의식하고 추진하고 있는 구호사업이나 활동을 근본적으로 재평가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 해드리는 행위가 되겠지만 우리의 도움을 받는 상대방은 현세적 차원의 도움을 받는 데 그친다는 점을 명심하여 더 높은 가치의 것, 즉 영원한 구원으로 이어주는 초자연적 은총에 접하도록 도와주어야 하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 성삼위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주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지키게 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받은 본 사명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마태 28.18-20 참조).

3. 모든 계층의 교회

언제부터인가 우리 한국 가톨릭 교회 내에서는 신자의 중산층화를 염려하는 소리가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비록 부정적인 현상일지는 몰라도 그것이 고의나 작위에 의해 생겨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떤 교구에서는 가난하고 억울하고 소외된 계층에 대한 각별한 사목적 배려와 노력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중산층화의 사정은 그곳에서도 다르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가톨릭, 즉 공변된다고 하는 까닭은 그것이 나라와 민족과 인종과 언어를 차별없이 망라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모든 계층을 차별없이 다 포용하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의 죄 사함과 구원을 위해 돌아가셨다. 어느 계층에 속하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하느님의 영원한 결정이다. 한국 가톨릭 신자들의 중산층화는 그 계층에 속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자기들의 구원자로 모시게 되었다는 증좌이다.〉

한편 교회가 무산층화나 하류 계층화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그 계층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부터 현세적 차원의 지원 이상의 그 어떤 영적 혜택도 받지 못했거나 아니면 교회가 그것을 주었음에도 그들 자신이 그 은혜를 거절하였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억울한 사정을 가진 각종 집단에 의해 빈번히 점거되어 본의 아니게나마 그들에게 항의장소나 피난처가 되어주고 적지 않은 덕을 보게 해준 어느 성역의 경우가 그 좋은 예이다. 그 땅과 집을 이용한 사람들이 허다하지만 그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성역에서 만났다거나 그분의 교회에 대한 호기심이나마 가져본 사람은 거의 없었다는 말을 나는 듣고 있다. 오히려 그들의 원한을 산 경우도 있었다는 말까지 나돌았다.

한국이 여러 해에 걸쳐 수출한 자동차 150만 대의 해외 수출에서 얻은 이익금이 고작 헐리우드가 만들어 낸 상영시간 불과 2시간짜리 어느 한 편의 영화가 거두어들인 수익금 정도밖에 안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 머리에는 그 성역에 얽힌 이야기가, 즉 부산을 퍼

우고 떠들썩했지만 실속은 거의 없었다는 그 이야기가 떠올랐다.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는 가난 구제도 계속 하여야 하고 복지 사업도 활발히 전개해야 하겠지만 그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힘을 쏟아야 할 일은 선교라고 하는 교회 본연의 사명 수행인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어디서든지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말도 듣지 않는다면 그 집이나 그 도시를 떠나라고 하셨으며, 더욱이 떠날 때에는 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버리라고까지 하셨다(마태 10,14-15 참조).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도시를 계층으로 바꾸어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현세적 혜택을 받은 사람이 신의를 지켜 시혜자에게 감사의 정을 오래도록 간직하는 일이 드물다는 것은 하나의 상식이다. 예수님으로부터 현세적 은혜를 입은 사람들도 그러하였다. 깨끗해진 열 명의 나환자 중 은혜를 느낀 사람은 겨우 한 사람에 불과하였다. 또 치유받거나 빵을 얻어먹은 사람들 대다수는 결국에 가서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말았다. 구원의 은총은 재물의 다과(多寡), 지위의 고하(高下), 지식의 유무(有無) 따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영적인 빈곤과 불구를 자인하느냐 않느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느냐 않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한국교회 중산층화에 대한 대답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국가의 경제 발전으로 그 층의 폭이 넓어진 이유도 있겠지만 그보다도 아주 높은 층과 아주 낮은 층의 사람들에 비해 중간 층의 사람들이 좀더 쉽게, 많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다는 것이 그 대답인 것이다. 따

라서 교회는 계층의 구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다가가야 한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 당신의 목숨을 바치셨기 때문이다. 가련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어찌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 신체적으로 병들거나 불구의 몸인 사람뿐이랴! 아쉬움과 가난과 고통은 인간의 공통 운명인 것을! 그러한 운명을 인간의 신분이 라고 말할 사람도 있지 않은가? 그래서 결국 교회는 누구나와도 함께 있어야 한다)

이상이 나의 깨달음의 내용인데, 나는 이 깨달음에다가 객관성을 부여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즉 내 개인의 감정이나 기분이 거기에 들어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4. 마음의 가난

1995년 1월 28일 로마시의 한 본당에서 미사를 집전하신 교황님은 강론에서, 마음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하느님의 선택의 특별한 대상이라고 하시면서, 그 가난은 은총을 받아들이는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어느 계층의 사람이든 마음을 열고 은총을 받아들이면 가난한 사람이며 따라서 행복한 사람인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어느 계층에 속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가난하지도 따라서 행복하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계층을 들먹이고 한걸음 더 나아가 인권, 부정부패, 부조리, 사회정의, 인간성 회복 등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않으면 존경받을 사목자나 정신적 지도자가 되지 못하리라는 두려움이나 불안감에 사로잡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미 대중에게 식상을 일으키게 한 외침이나 가르침을 되풀이할 생각을 버리고 새로운 차원의 삶으로 그들을 이끌어주도록 전환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교회의 참된 구조적 부활인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구조적 부활은 낡은 누룩을 깨끗이 없애고 다시 순수한 반죽이 되라고 하신 사도 바오로의 가르침에 부합되는 것입니다(1고린 5,7 참조).

가난에 관련하여 주님께서 언젠가 나에게 깨우쳐주신 바를 한동안의 망설임과 몇 차례의 분별의 기도 끝에 여기에 공개하고자 합니다.

“바오로야, 너는 가난에 대해 말할 자격이 없다. 너는 가진 것이 너무 많다. 네 자신이 그것을 인정하고 있음을 나는 안다. 그러기에 네가 가난에 대한 생각을 꺼려하는 게지. 또 그러기에 가난에 대하여 네 입이 자신을 가지고 힘있게 가르치는 소리를 아직 내가 들어보지 못하고 있는 게지.

바오로야, 네가 가난을 살지 않는 것은 부끄러워 해야 할 일이지만 가난에 대해 떠들지 않는 것은 잘하는 일이다. 가난한 이들을 대변이라도 하듯이 요란스럽게 외치는 것보다 말없이 그것을 살며 빈자를 돕는 일이 중요하다.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니다. 지금 내 교회 안에는 가난의 화신이라고 할 수 있는 나보다도, 또 생전에 가난을 살면서 가난한 이들을 도왔던 내 남녀 종들보다도 더 요란스럽게 떠들면서 자기 자신은 넉넉하게 사는 자들이 많다. 소리를 낮추고 가난을 살기만 하여라.

다시 말하지만 너는 너무 부요하다. 그러니 나누어주도록 하여라. 말없이 말이다. 네 지식도 나누어주고 네 건강도 나누어 쓰도록 하여라. 그것들을 네 것으로 간직하고 즐기거나 그

것으로 인해 교만해지지 않도록 늘 조심하여라. 또 한 가지가 있다. 네 성직 말인데 그것이 이야말로 특전 중의 특전이다.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여라.

성직이 축복이듯이 재물이나 지식이나 건강도 내가 주는 축복들이다. 그러니 그것들을 저주해서는 안된다. 다만 그것들이 멸망의 원인이 되지 않고 오직 구원에 유익이 되도록 써야 한다는 과제가 있을 뿐이다. 그러니 부자들 보고, 부는 악이나 무조건 그것을 모두 버리고 가난하게 살라고 해서 안된다. 유식한 사람들에게 그의 지식을 포기하고 무식하게 되라고 해도 안된다. 건강한 사람에게 건강은 위험한 것이니 약한 몸으로 바꾸어야 된다고 하지도 말아라. 성직이 고귀하다 하여 그것을 팽개칠 수가 없지 않겠느냐?

다시 분명히 말하지만 저것들은 모두 나의 선물이요 축복인 것이다. 오히려 가난이나 무식이나 병약 따위가 선의 결합이라는 점에서 악인 것이다. 너는 다만 나의 축복을 포기하기 보다도 그것들을 베풀어준 내게 감사하며 내 뜻을 따라 잘 쓰도록 그들을 가르치고 지도하여라. 축복을 저주의 매체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축복에 비례되는 의무와 책임이 그들에게 있다고, 내 축복에는 언제나 축복에 상응하는 위험이 따른다고 그들에게 가르쳐주어라.

한편 혜택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이미 고통을 너무 받아 허덕이는 터이니 결코 그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명심하여라.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와 힘이지 원한이나 저주의 감정은 아닌 것이다. 직접으로든 간접으로든 그들에게 이중의 불행을 겪도록 거들면 안된다. 즉 현세의 불행에 이어 영원한 불행을 겪게 해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그 둘의 현세적 불행의 원인이야 어디에 있든지 그들은 그 불행 안에서 그 불행을 통해 나를 만나야 할 사람들이다. 공연히 계급 의식을 부추겨 증오와 원한 속에 그들을 가둠으로써 사랑인 나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죄 중의 죄이다.

부자와 빈자, 식자와 무식자, 높은 자와 낮은 자, 강한 자와 약한 자, 건강한 자와 병든 자 등이 공존하는 것을 허락하는 나의 뜻을 잘 헤아려 그르침이 없도록 하여라.”

5. 신비에 닫힌 교회, 신비에 열린 세속

하느님은 신비이시고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 또한 신비입니다. 그분이 계시한 것으로서 신비 아닌 것은 없습니다. 그분의 창조 사업이 신비요 그분의 구원 사업은 더욱 큰 신비입니다. 천문학과 과학이 그분의 우주를 제아무리 탐사해도 확인되는 것은 결국 신비라는 사실뿐입니다. 또한 소우주라 일컬어지는 인체를 인간이 아무리 해부하고 분석하고 연구해 봐도 결론은 신비라는 사실뿐입니다. 우리는 신비스러운 대우주 속에서 신비스러운 소우주를 지니고 사는 것입니다.

출생은 신비요 죽음 또한 신비입니다. 그리고 그 두 신비 사이에 있는 인간사와 세상사들이 모두 신비입니다. 과연 우리는 하루 24시간을, 따라서 한평생을 신비 속에서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구원의 계시 진리들로 돌릴 때 우리는 창조에 대해서보다도 말할 수 없이 더 큰 신비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사도신경의 조목들을 볼 때 첫머리에 하나만 창조에 관한 것일 뿐 나머지는 모두 구원에 관한 것임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

싱거워진 소금과 빛을 내지 못하는 등불은

바로 세속화된 교회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하루 빨리 무디어진 우리의 신비감을 되살리도록 합시다.

이것 역시 하나의 죽음과 부활의 과정인 것입니다.

늘의 교회는 창조와 구원에 관한 계시 진리에 대하여 신비 감각이 무디어져 있습니다. 무디어진 신비 감각이란 신비에 둘러싸인 자신의 처지를 느끼거나 의식하지 않고 살게 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신 모든 것이 신비입니다. 어찌 우주나 인간을 신비 아니라 할 수 있겠으며, 더욱이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육화, 성령으로 인한 동정녀의 수태,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과 부활, 승천 등이 어찌 신비 아니라 할 수 있겠습니까? 성사나 전례가 어찌 신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사를 비사(秘事)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시간에 거행되는 간단한 의식으로써 무슨 일이 이루어지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생각하면 알 수 있는 일이 아닙니까? 그리고 교회와 사제직도 분명히 신비입니다.

1995년 10월 22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폐막 30주년에 즈음하여 앞으로 얼마 동안 주일 삼종기도 시간에 공의회 회고담을 들려주실 뜻을 밝히시면서, 우선 공의회 전체 가르침의 기본이 되는 교회에 관한 교의 현장으로부터 시작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교황 성하께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교회가

하나의 신비임을 강조하여 말씀하시기를 “교회 현장의 위대한 공적은 도대체 우리가 교회의 제도적인 측면을 소홀히 하지 않으면서 그 정체를 원만히 파악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그 신비성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점을 힘있게 깨우쳐 준 데 있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1월 26일 그리스도왕 대축일에는 사제직의 신비에 대해서도 언급하셨습니다. “사제직의 신비는 그 기능 이전에 하나의 은총의 신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백성의 한 지체가 자기의 전생애를 봉헌하도록 초대하는 특별 소명의 신비인 것입니다.”라고 그분은 역설하셨습니다. 사정이 그러함에도 신자가 신비 감각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은, 그리고 전체 교회의 그것이 둔화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요새는 합리주의를 숭상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서 그들의 영향을 받아 우리 교회 안에는 성서나 전통적 교리에 대하여 합리적인 접근을 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신학계 일우에서는 탈신화(脫神話), 또는 탈신비라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와 신자들의 신앙생활, 행습, 관행 등에서 신화적 요소를 제거해 버리자는 소리였습니다. 현대의 합리주의적 지성을 의식한 나머지 우리 교회와

신자들의 신앙생활에 손상을 끼치면서까지 탈신화를 외침으로써 세속의 호감을 사려 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오히려 현대인은 그들 자신이야 의식하던 안하던 신비를 더욱 갈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민은 그 점에 있어서 앞서 있습니다. 한(恨)의 민족으로 알려져 있는 우리 민족은 신비에 대한 강한 동경과 갈증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의 많고 적음, 지식 수준의 높고 낮음과는 상관없습니다. 한반도의 한민족으로 태어난 이상 물려받은 한을 품고 살아가야 할 운명에 있어서는 차별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어떠한 종교도 흥하고 심지어 사이비 종교와 미신까지도 잘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 나는 텔레비전에서 거짓말 같은 얘기를 듣고 놀란 적이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 등록된 복술장이, 일자(日者), 점술가, 무당, 박수, 철학관 운전자 따위의 수가 남녀 합하여 40만인데, 등록하지 않은 비공인 점장이를 합치면 80만이나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따라서 인구 50명당 한 사람이 그 일에 종사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점술, 마술, 주술, 강신술, 심령술, 같은 명백한 미신 외에도 선(禪), 요가, 기(氣), 단(丹), 마인드 콘트롤 등속에 열중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뉴 에이지 운동이나 공상과학 영화의 신비성에 매료되는 세대의 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은, 특히 우리 민족은 신비를 갈구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우리는 심각히 받아들이는 한편 깊이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가짜들한테 빨려들어 가는 사람들을 이끌어 진짜 신비의 세계로 이끌어들이도록 해야 하지 않겠

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우리 천주교회에 더 이상 매력을 느끼지 않는 대중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나는 사목방문을 하는 동안에 이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적지 않은 본당에서 레지오 마리에 단원들과 평협 임원들이 가가호호 방문하여 가톨릭 교회를 소개하며 권유했지만 막상 기대를 걸고 예비자 교리반에 나가보니 전과 아무런 차이가 없어서 놀라움과 환멸의 비애 같은 것을 느꼈다는 얘기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왕 종교를 가지려면 천주교를 택하겠다거나 또는 이왕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가톨릭이 되겠다고 말하는 사람을 만나기가 매우 어렵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그 까닭은 무엇입니까? 물론 그 원인은 단순하지 않고 복합적이지만 그 근본 이유를 들자면 교회가 그 주요 속성의 하나인 신비성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현실 참여는 좋은 것이며 또한 당연한 것입니다. 대중 속에 끼여들어서 우리가 뭔가 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과 동일한 차원에서 동일한 정신을 가지고 동일한 언어를 구사해 가며 동일한 방법으로 일을 해결하려 한다면 교회의 신비성이 유지될리가 만무합니다. 신비성을 상실한 그런 교회가 어떻게 사람을 끌 만한 매력을 지닐 수 있겠습니까? 한국 문화가 한과 결별하지 않는 한 우리 나라의 복음화와 교회 발전은 보증받고 있다는 것이 나의 확신이며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의 그 확신은 흔들리고 나의 그 소망은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은 은총의 좋은 축매라는 사실을 나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축복을 계속 강조하고 싶습니다.

싱거워진 소금과 빛을 내지 못하는 등불은 바로 세속화된 교회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세속화란 신화적 요소라든가 신비성을 무시하여 성서, 교리, 성사, 전례, 교회, 사제직과 같은 중대한 일에 있어서 잡음을 일으키는 현상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루 빨리 무디어진 우리의 신비감을 되살리도록 합시다. 이것 역시 하나의 죽음과 부활의 과정인 것입니다.

6. 하느님의 방법과 인간의 방법

사도 바오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열성을 다하여 얻으려고 애쓴 구원을 끝내 얻지 못한 탓을 저들이 하느님의 방법을 깨닫지 못하고, 제 나름의 방법으로 그것을 추구한 사실에 돌리고 있습니다(로마 10,1-3 참조). 교회사에서 문제가 있었던 시대는 언제나 교회가 인간의 방법에 치중했을 때였습니다. 즉 하느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 때였습니다.

사람의 생각, 즉 인간적 사고방식으로 머리가 꼭 차 있었던 탓으로 주님으로부터 사탄이라고 불린 바 있었던 베드로는 성령 강림 날로부터 시작하여 죽는 날까지 사람의 일과 방법을 버리고 하느님의 방법에 따라 충실히 일하며 살았습니다. 사도행전과 그의 서한들이 그 사실을 증명해 줍니다.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하느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을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마태 6,33). 예수님의 이 말씀과 같이 우리의 의식주 문제는 즉 현세의 사정들은 그렇게 중요한 것들이 아닙니다. 적어도 세속이 인정하는 만큼의 가치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인간이

나 세상의 사정들을 먼저 또는 주로 찾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현세적, 자연적, 인간적인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큰 관심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현세의 것들을, 그것이 제아무리 좋고 유익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들을 우리에게 더 풍부히 주시게 하기 위해서 오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것을 주시려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구원이요, 영원한 생명이요, 하느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일입니다. 현세적, 자연적, 인간적인 것들은 그분의 큰 관심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존엄 또는 인간 회복이라는 것은 아담의 후예들이 예로부터 심심찮게 부르짖어 온 진부한 구호입니다. 그것은 소위 교회의 질곡으로부터의 해방을 주장한 자들이 내세운 명제이기도 하고 하느님의 간섭을 거부한 자들이 외친 구호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주로 이교 사회의 이상이었으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누구나가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지적할 수 있는 것만을 되풀이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은 아닙니다. 우리 신자들 가운데는혹 교구장이나 주교단이 현세 문제에 무슨 신성한 해결책이라도 가진 양 기대를 거는 나머지 주교단의 의견상의 무관심과 냉정을 섭섭해 하는 이들이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주교단이 세상사에 사사건건 관여해서 해결책이라는 것들을 성명이나 지침이나 교서로 내놓아야 한다는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등 세상사에 냉담하기로 말하면 예수님만한 분이 또 있었습니까? 예수님 시대라고 해서 세상 만사가 이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관심을 표시하지

않았겠습니까?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제도가 완벽하고 그 운영에 있어서 아무런 흠을 찾지 못해서서 그런 문제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아담의 아들들이 이미 알고 있고 이루고 있는 것을 가르치러 오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더라도 과학과 기술은 발달했을 것입니다. 학문과 예술도 발전했을 것입니다. 법률과 윤리도 개선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이전에도 아담의 후예들은 훌륭한 법률과 윤리 체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분께서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더라도 아담의 자손들은 달에 사람을 띄워보냈을 것입니다. 민주 제도도 만들어냈을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도 각국의 총 생산고는 오늘의 수준으로,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라도 올려놓았을 것입니다.

우리 나라에 매우 인접한 나라가 그 좋은 예입니다. 그 나라는 그리스도교국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극소수에 불과하지만 그 나라가 이루어놓은 현세적 업적은 그 어느 그리스도교국보다도 훨씬 앞서 있지 않습니까?

하느님의 방법대로 사는 사람은 우주에서 피조물을 보는 동시에 창조주를 봅니다. 또한 사람을 볼 때 그 영혼을 보며 그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분을 동시에 보게 됩니다. 즉 그는 또 하나의 눈과 귀, 다른 정신과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세상사와 인간사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사람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모든 일과 처지에서 감사와 찬미와 환희 속에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신화(神化)되어야 할 운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인간화만을 목표로

하게 되면 그것은 결국 인간의 야수화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의 특징인 세속화란 것은 은총 또는 초자연에서 단절된 자연적·현세적·인간적 가치의 추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금세기 중엽에 들어서면서 교회는 급속히 세속화되고 있다는 말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내세 사정, 즉 전통적인 신앙의 언어로 사말(四末)이라 일컬어지는 인생의 마지막 사정들에 대한 교리가 교회 안에서 이전처럼 힘있게 가르쳐지지 않고 있는 것이 그 증거의 하나입니다. 또한 복음 삼덕의 퇴색도 그 증거가 됩니다. 요새 수도자들은 자연 차원의 것들인 의식주를 생존의 최저선까지 낮추고 초자연적 차원인 관상과 기도를 주요시하고 세속의 쾌락을 극기로 보속하며 장상의 뜻에 따르는 생활을 하는 데서 어려움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수도자뿐 아니라 당신의 복음 선포 사명을 맡기신 제자들에게도 그러한 생활을 하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분은 돈도 식량도 신도 지니지 말라고 그들에게 분명히 명하셨습니다. 모든 사목자들은 이 명령이 뜻하는 바를 깊이 새겨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즉 현세의 것들은 덤으로 주어지는 제2차적인 가치밖에 없다는 것을 이르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욱 깊이 들여다보고 더욱 멀리 내다보며 더욱 높이 쳐다보아야 할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는 가톨릭 신자다운 신앙생활을 하도록 합시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참된 회개와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궤도 수정, 즉 부활을 위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1996년 10월 26-27일 제주도 성 이시들 회관에서 개최된 전국 평협 상임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

선교에 대한 인식의 전환

남기충 루가

인천교구 평협 부회장

요즘 들어 우리 교회 안에 '선교'란 단어가 그 어느 때보다도 자주 거론되고 있다. 교회의 언론 매체들, 신부님들의 강론, 혹은 평신도 신심단체들의 토론 마당 등에서 '선교'와 관련된 말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참으로 많아진 것이다.

궁극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대해서 더욱더 충실해지려는 변화의 모습이라 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교회 안팎의 상황을 보면 그렇게 단일한 생각으로 자족하기에는 어딘가 불안한 면이 여기저기 눈에 띈다. 그러기에 '선교'란 말이 자주 거론되는 것은 교회가 당면한 위기 의식이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 하는 부정적인 견해를 배제하기가 어렵다.

사실 한국 가톨릭 교회는 이땅에 복음의 씨가 떨어진 이래 '선교'에 관한 한 최고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었던 80년대 중반기를 넘어서면서 서서히 하향 곡선을 걷고 있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가 있다.

정치적으로 암울했던 시기에 부당하게 억압받는 자의 편에 서서 핍박을 두려워 하지 않고 할말을 다한 성직자와 평신도를 많이 가졌던 가톨릭은 명실공히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한 것이다. 이에 힘입어 결과적으로 교회는 크게 힘들이지 않고 스스로 찾아오는 목마른 이들에 의해 선교의 목적을 훌륭하게 이루었던 것이다.

그러나 언뜻 보기에 목적은 이루어지는 듯 하였으나 그 사명을 다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교회는 조그맣게 이룩된 소득에 안주하여 큰 사명을 가볍게 보아 넘긴 우(愚)를 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각 교구별 교세 통계가 보여주는 바대로, 냉담자의 증가와 새로운 영세자의 둔화 내지는 감소 현상이 이를 증거해 주고 있다. 다행히 적시에 이와 같은 현상을 짚어보고 대책을 강구하려는 움직임이 한국교회 안에서 거교구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은 꼭 다행한 일이라 하겠다.

이러한 시점에서 필자는 이미 몇 해 전부터 시작된 인천교구 만수1동본당에서 실천하고 있는 선교운동의 실상을 알리고, 선교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자 하는 생각에서 몇 자 적어보고자 한다.

'선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원초적인 사명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서는 마태오 복음 28장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라고 분부하셨다. 또 마르코 복음 16장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며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선포하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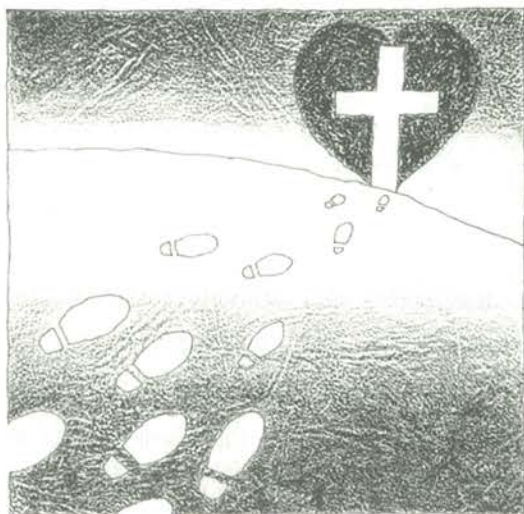
구원을 받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단죄를 받을 것이다.”라고 단정적인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선교'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선택적인 문제가 결코 될 수 없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기로 고백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수행하지 않으면 안될 필연적인 과제란 점을 분명히 인식하여야 하겠다. 따라서 근래에 와서 '선교'에 대한 관심이 새롭게 고조되고 있는 것을 특이한 일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당연한 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인천교구 만수1동본당의 선교운동은 새로운 선교활동 모델로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가까이서 지켜본 추진 과정이나 결과는 선교활동의 좋은 사례로 소개하는데 부끄러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 이 기회에 만수1동본당의 선교운동에서 시사받은 몇 가지 견해를 피력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교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해 본다.

첫째, 선교는 본당 공동체 모두의 과제라는 생각에서 출발해야 한다. 선교 활동을 시작하기에 앞서 준비 과정을 충실하게 함으로써 본당 공동체 모두가 목표 의식을 분명하게 하고 사명감을 갖도록 하는 것은 선교활동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건이 된다. 예를 들면 선교 전문가 초빙 강연, 선교활동 사례 발표 듣기, 본당신부 강론, 본당 사목회를 중심으로 한 구역·반 조직과 신심단체의 동원 등은 본당 신자들의 선교 의식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

둘째, 선교는 자기 자신의 신앙 쇄신이 우선 되어야 한다.



“이웃에 대한 선교는 신자들의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과 사랑의 실천에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는 만수1동본당 김병상 주임신부의 신념은 선교활동에 임하는 본당 신자들의 선교 자세 정립에 크게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만수1동본당에서 실시한 바 있는, 정한 날에 금식, 금육의 실천, 개인 기도 및 고리 기도 등의 기도운동, 지속적인 성체조배, 이웃과의 좋은 관계 맺기, 가정 화목 등은 선교하는 주체로서 신자 자신의 신앙 쇄신을 촉진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다양한 선교 방법의 적극적인 실천이 중요하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이 있듯이, 선교 방법을 많이 알고 있더라도 효과적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빛을 발할 수 없다. 자기를 중심으로 동심원을 그리듯이 가족, 집안 사람, 친인척, 친구, 직장 동료, 안면있는 이웃 등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선교 대상자를 찾아내는 일, 찾아낸 선교 대상자와 대화하는 요령 익히기, 지속적인 방문과 진심어린 관

심 표명, 기본적인 교리서와 신앙 서적 소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가두 선교의 실천, 선교 포스터와 현수막의 활용, 본당신부의 선교 서신 우수 등 지역 여건에 적합한 선교 방법을 총동원하여 실천에 옮기는 것은 성공적인 결과를 보장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선교 활동이 될 것이다.

넷째, 입교한 예비자의 사후 관리가 체계적이고 조직적이어야 한다.

입교한 예비자의 사후 관리는 교리반 편성으로부터 시작하여 미사 참례, 교리교육, 본당 공동체와의 관계 형성, 사제 면담 등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는 예비자 관리라고 하면 교리교육만을 연상할 정도로 그외의 다른 활동은 등한시한 감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 예비자들의 신앙 정착에 크게 기여하는 것은 교리 지식보다는 미사 참례, 본당 행사 참여 기회를 통한 본당 공동체와의 친밀감 형성, 사제 면담 등임을 경험적으로 알 수가 있다.

만수1동본당의 경우, 소공동체 모임 형식의 교리반 편성은 기존의 교리교육 방법에 대한 고정 관념을 깨는 새로운 시도였으며, 레지오 마리에 단원을 보조교사로 활용하여 예비자 출석 및 미사 참례를 관리하도록 한 방법과 교리교육을 담당할 교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 사실은 특색있는 방법으로서 만수1동본당의 선교활동 성공의 요소로 꼽을 수 있다.

다섯째, 선교는 냉담자 회두 활동과 연계하여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교회 안에서 냉담 교우에 대한 회두 권면은 새로운 예비자를 초대하는 일에 앞서 해야 할 일일지도 모른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잠시 교회와 멀어졌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의 품으

로 돌아오는 모습에서 그리스도를 모르던 사람이나 그리스도를 외면하던 사람은 입교 권면 이상의 감동적인 자극을 받을 수 있는 요인이 많기 때문이다.

인천교구 만수1동본당의 경우 실제로 냉담자 회두율과 입교자수가 통계적으로 밀접한 상관 관계를 가지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상에서 거론한 다섯 가지 견해는 물론 필자가 생각하는 주관적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단견이나 「평화신문」이나 「가톨릭신문」에서 성공적인 사례로 보도된 바 있는 만수1동본당의 선교활동 내용과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고 난 후의 견해라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고 스스로 생각해 본다.

인천교구 교구장님의 97년도 주요 사목지표의 첫째 항목 ‘그리스도께로 향한 대회년으로의 초대’ 속에서 세번째 실천 항목으로 각 본당별로 ‘잃어버린 양’과 ‘새로운 양 찾기 운동 실천’이라는 내용이 있게 된 데에는 만수1동본당 선교 운동의 긍정적인 결과에 상당히 영향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스도라는 한 목자의 우리 안에 끊임없이 ‘새로운 양’을 불러모으고, 그 새로운 양이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잃어버린 양’을 애써 찾아내어 목자의 우리 안으로 다시 불러들이는 일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수행해야 할 그리스도인들의 첫째가는 사명으로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새롭게 되새겨보아야 할 중요한 일이다.

‘우리농’ 수도권 생협의 몫이 소중하다

유정목 사도 요한
한국평협 도농협력분과위원장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은 UR 농산물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렀던 지난 94년말 세계화, 개방화라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존재의 기로에 서있는 우리 농업과 농촌(농민)을 살리기 위해 우리 교회가 뜻을 모아 시작하게 되었다. 이 운동은 농산물 시장이 전면 개방되는 시점인 2004년까지 각고의 노력으로 우리 농업이 회생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근본 취지가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이 현실적으로 크게 활성화되지는 못했지만 이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데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는 일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왔을 뿐만 아니라 특히 한국 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도 도농협력분과위원회를 신설하여 우리 농촌학교 운영 및 여러 형태의 연수교육과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 각 교구 본부를 출범시키는 등 조직 활동에 노력해 왔다.

우리가 왜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을 시작했고 이 운동을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우리 모두가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세삼 강조하지 않아도 농업은 인류가 삶을 영위하는데 필수불가결한 먹을 것과 맑은 물, 깨끗한 공기를 제공하고 자연환경을 쾌적하게 가꾸는 생명의 산업이며, 농촌은 그것을 일구어내는 터전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러한 중요성을 망각하고 나 자신만을 생각하고 좀더 편리함과 풍족함을 추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농업과 농촌은 뒷전으로 밀려났고, 또한 도시화, 공업화라는 거센 물결에 휩싸여 농경사회에서 이루어졌던 공동체와 자연과의 친화적인 삶이 퇴색하도록 무관심했다는 사실은 실로 가슴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같은 도시화·공업화는 그 편리함의 이면에 생명파괴를, 그 풍족함의 이면에 물신숭배의 폐해를 가져오고 있음에도, 오늘날 인류는 고도로 발전한 산업문명의 덕택에 자기 편의와 풍족의 극치를 추구하고 있음은 실로 하느님의 자조질서 파괴는 물론이요, 자연환경과 인류의 온전한 삶을 뿌리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겠다.

이 현상은 이제 어느 한 나라,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전지구적·전인류적인 문제라고 본다. 그중에서도 특히 우리 한국사회는 그 폐해가 심각한 상태일 뿐 아니라 짧은 시간내에 너무 많은 것을 얻으려 했던 지나친 욕심이 슬한 부작용과 반작용의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이 운동이 우리 자신을 비추어보는 계기를 제공한다는 데

있다. 도시의 반대편에 있는 농촌, 산업화의 반대편에 서있는 농업은 우리를 비추어보는 훌륭한 거울이다.

따라서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은 어려운 농촌을 돕는다는 시혜적 차원의 운동이 아니고 내가, 아니 우리 모두가 따뜻한 마음과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야 한다는 운동이란 점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에 대한 통렬한 회개와 반성과 실천 의지가 없이는 오늘의 위기를 벗어날 수도, 농촌을 살릴 수도 없다고 본다. 근본적인 회개와 반성을 통해 참다운 형제적 사랑이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에 밑거름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본다. 그러나 회개와 반성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변화가 없는 회개와 반성은 오히려 우리의 잘못을 덮어줄 뿐 참된 속죄에 이르지 않는다고 서울대교구장 김수환 추기경님께서도 말씀하신 바 있다.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은 말 그대로 생활 실천 운동이어야 한다. 삶의 현장에서 생명과 이웃을 찾고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생활 실천이어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우리 교회가 시작한 이 운동에 대해 우리들 스스로가 더욱 책임감있는 자세와 노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는 우선 우리 교회의 각 사제관의 부엌에서부터 우리 신자들의 가정 그 부엌에 이르기까지 유해한 수입 농산물과 공장의 오염된 가공식품 대신 우리 농촌에서 생산된 안전한 먹거리로 생명의 밥상을 마련하는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는다.

이것이 곧 생활 실천 운동이고, 우리의 믿음을 구체적인 삶으로 일치시켜 나가는 일이

라고 추기경님께서 거듭 강조하신 바와 같이,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운동의 참뜻과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참으로 절박한 어려움 속에 놓여 있는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우리 도시 소비자들이 함께 나서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들의 손에 우리 농촌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도시와 농촌이 만나서 함께 나눌 때 우리의 밥상과 우리의 건강을 지킬 수가 있고, 우리 모두 마음의 고향이며 생명의 근원이 되는 농촌을 회생시켜 자손 대대로 풍요로움을 누릴 터전을 마련할 수가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우리 농촌을 살리기 위한 생활 실천 운동, 도농공동체 운동을 더욱 구체화하기 위해 창립된 우리농 수도권 생활협동조합에 우리 모두 적극 참여하여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보시기 좋은 세상”을 대대로 가꾸어가는 대열에 적극 참여해야 하겠다.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세기에 우리의 새로운 삶을 위해 우리 교회가 새롭게 추구하는 2000년대 복음화가 바로 우리 생활 속에서 작은 생활 공동체를 건설하는 데 있다면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의 실천 운동인 우리농 수도권 생협은 바로 도시와 농촌, 생산과 소비 그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인 생활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한 기초가 되어야 한다.

2000년대 복음화를 위해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의 실천운동인 우리농 수도권 생협의 몫이 더욱더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된다.

통일 지연은 내 탓

민족통일을 위한 기도 및 성금저축 운동

박인환 베드로

수원교구 평협 회장

“한 세대가 넘도록 아직 비극적으로 분단되어 있는, 여러분의 사랑하는 조국이 대결과 전쟁으로써가 아니라 대화와 상호신뢰의 형제애로써 다시 한 가족으로 통일되어, 이제껏 불신과 증오와 무력만을 더 믿어온 이 세상이 거짓됨을 드러냅니다.” 1984년 교황님께서 우리 나라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분단의 비극 속에서 한 개인이 치러내야 했던 삶의 무게는 어쩌면 분단 1세대의 퇴거로 희미해지고 통일의 희망과 열망이 잠시 접혀들었을 즈음에 교황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과거 정부는 정권 연장을 위하여 걸핏하면 이 비극적 분단상황을 이용해 왔다. 그 결과 반공과 안보를 최우선으로 여겨 통일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우리가 통일에 대해서 생각하고 준비한 것은 우리보다 통일이 더 어려울 것이라 느껴왔던 독일의 통일을 본 후였을 것이다.

그간 우리의 통일관은 막연히 정부나 세계 정세에 따라야 한다고 믿었었다. 그런 사람들에게 희망적인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고 함께 모색하는 것이 바로 수원교구의 ‘민족통일을 위한 기도 및 성금저축 운동’이다.

지금도 종종 일제시대 때 천주교의 처신에 대해 심판받을 때가 있다. 통일 후 또 한번 가톨릭의 역할을 물어올 때 일제시대처럼 같은

답이 된다면 가톨릭은 더 이상 이땅에서 설 자리를 잃고 말 것이다. 유신시대 이후 우리 교회가 민주화를 위해 바친 노력과 정의사회를 위해 사회에 끼친 영향은 이미 우리 사회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그 노력을 밑거름으로 해서 통일 기반을 닦는 것이 우리의 몫이다.

독일 역시 종교인들이 먼저 통일 기반을 조성했었다. 통일의 문을 여는 것이야말로 우리 가톨릭에서 시작해야 하며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몫이라는 절대절명의 사명감으로 이 운동이 시작됐다.

집 나간 형제를 감싸고 원수를 사랑하는 교회의 정신으로 교회 안에서 먼저 마음을 열고 나머지 반쪽을 받아들여 더 이상 그들은 우리의 적이 아닌 형제라는 마음을 갖게 하고 피를 나눈 우리의 형제라는 것을 인식시켜, 통일 이전에 민족간에 화해를 일으키기 위한 것이 그 첫째의 목적이다. 또 통일 후 일어날 여러 가지 휴유증 가운데 하나인 경제적 측면에서도 통일성금을 준비해야겠다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우리 나라 자체도 선교지이지만 북한 또한 우리의 또 하나의 선교 대상지임이 틀림없다. 함께 행복을 누리고 평등한 관계를 이룰 때 진정한 통일의 의의가 있지, 철책과 지도 위의 선을 갖고 통일을 말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신일 수가 없다.

이런 의지와 희망을 갖고 수원교구는, 1995년 6월 25일 천진암 행사 기념미사 강론에서 교구장 김남수 주교님이 민족통일이 이루어질 그때까지 10년 동안만이라도 사치와 낭비를 억제하고 소비와 투기를 근절하면서 절약과 근면으로 신앙생활을 새로이 시작해야 함을 강조 하시면서 통일성금 기도 및 저축운동에 참여할 것을 당부하신 것을 시발점으로 삼았다.

통일성금의 저축기준은 각 가정 수입의 1%로 하여서 2005년까지 향후 10년간 1천억 원을 목표로 1가구 1통장갖기를 추진하고 있다. 매일 100원 이상 저금하면서 그때마다 “주님, 통일을 이루어주소서.” 하고 화살기도를 함께 바친다.

성금뿐만 아니라 매월 마지막 주일을 ‘통일



기도의 날’로 정하고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다. 이러한 생활자세는 바로 우리 신앙선조들의 시성을 추진하는 후손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며 통일을 추진한다는 신앙인들이 지녀야 할 자세이다.

우리 선조가 우리에게 신앙을 물려주었듯이 우리는 후대에게 통일된 조국을 물려줘 우리나라가 세계 속에 정신문화의 축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건전한 생활만이 통일을 앞당길 수 있다. 북한을 위하여 희생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통일 이전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이끌 수 있는 힘이 되고 그 힘이야말로 통일의 초석을 다지게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주보에 ‘평협단상’이라는 고정란과 교구평협에서 발행하는 계몽지 「위로의 샘」을 통하여 통일에 필요한 우리의 자세와 사회 전반에 걸친 통일 저해요인과 문제를 짚어나가고, 매월 분당별 참여도와 저축운동의 실적누계를 게재함으로써 지속적인 홍보를 해나가고 있다.

단시간 내 많은 돈을 모으는 데 중점을 두는 것보다 35만 교구민이 함께 참여하고 사랑으로 동참한다는 데 더 큰 의의를 두고 있다.

‘통일 지연은 내 탓’이라는 생각을 갖고 회개와 기도로 이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야말로 통일을 위한 ‘한 알의 밀알’이 될 것이다.

본당 이름은 옛 땅이름 위주로

-행정동명에 따라 자꾸 달라지는 이름들을 보면서-

배우리

한국 땅이름학회 회장·평협 홍보분과 위원

“용산성당입니까? 용산 어디쯤입니까?”

“지금 계신 곳이 어디시지요?”

“바로 용산역 앞에 와 있습니다.”

“용산역 앞이요? 거기서는 꽤 먼 거리에 있는데요.”

“ 먼 거리라뇨? 그럼, 용산성당이 여기 용산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용산은 맞는데, 용산역하고는 멀구요...”

“그럼, 이태원쪽입니까, 한강로쪽입니까?”

“그쪽이 아니고, 원효로쪽입니다. 원효로 3·4가의 뒷산 마루에 있는데요, 바로 용산구와 마포구의 사이에 있습니다.”

“아따, ‘용산성당’이라 해놓고, 용산에 있질 않고, 왜 그 성당은 마포하고 붙은 구석으로가 있나?”

해마다 위령의 날이 돌아오면 용산성당을 찾아오는 교우들이 많다. 그럴 때마다 용산성당의 사무실에서는 지리 안내를 하느라 진땀을 낸다. 처음 찾아오는 교우들은 ‘용산’만을 의식하곤, 대개 용산역 근처의 어디쯤으로 미리 머리 속에 그려놓는다. 교우들 중에는 아예 미리 용산역 근처로 와서 근처의 성당을 찾는 경우도 있다. 그렇게 되고 보니 그 근처의 삼각지성당이나 한강성당으로 잘못 찾아가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일어나게 된다.

‘용산(龍山)’은 원래 산이름

자, 그렇다면, ‘용산성당’의 ‘용산’이란 이

름을 아예 바꾸어 달아야 하는가?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럴 수는 없는 일이다. 50여 년의 오랜 역사를 가진 이 성당은 처음부터 그 이름이 ‘용산’이고, 지금까지 계속 ‘용산’이다. 처음에 이름을 아예 ‘용산’이라고 하지 말았어야 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반론도 있을 수 있지만, 이 지역의 원래 땅이름이 ‘용산’이었음을 알면 그것이 먹혀들 수가 없다. ‘용산(龍山)’이란 이름은 원래 하나의 산(山) 이름이었다. 인왕산쪽에서 남서쪽으로 우백호(右白虎) 줄기를 형성하며 뻗어내린 이 지역의 땅모양이 마치 물을 찾아내려온 용(龍)이 한강물을 만나 물을 먹는 머리 모습이라 해서 붙여진 땅이름이다. 따라서, 이 산 밑에 있던, 지금의 원효로쪽 마을도 덩달아 ‘용산’이라 하게 되었고, 그 용산 지역에 있던 성당 이름도 당연히 ‘용산성당’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일제 때에 한강가 모래 벌판에 그들의 주거지가 형성되고, 여기에 역이 생겨 그 역이름이 ‘용산역’으로 되면서부터는 차츰 ‘용산’이란 지역 이름이 이쪽으로 옮겨오게 되었다. 역 앞에는 ‘용산식당’, ‘용산짜전(쌀가게)’ 같은 가게들이 들어서고, 학교까지 ‘용산’이란 이름을 달게 되자, 사람들은 ‘용산’하면 이 지역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되었다.

땅이름은 이 경우처럼 인위적 상황에 따라 옮겨다니는 수가 얼마쯤이라도 있다.

서울 사람들이 익히 아는 ‘신촌(新村)’이란

땅이름도 원래는 지금의 서대문구 대신동 옆 (연세대학교 뒤)에 있던 한 마을의 이름이 옮겨온 것이고, 지금의 수원시의 '수원(水原)'도 원래는 그 남쪽 병점 근처에 있던 화산(華山) 땅의 옛이름이 그쪽으로 옮겨온 것이다.

행정구역 변경 따라 자주 바뀌는 본당 이름

땅이름의 이동에 따라 문제가 되는 것은 이동지(移動地)의 이름과 이동 전에 있었던 그곳 시설물(예컨대, 성당, 성지, 학교, 공원 등) 이름과의 중복성이다. 즉, 위의 '용산성당'의 경우처럼 지금 흔히 통하고 있는 곳의 땅이름과 원래 있던 곳의 땅이름 사이에서 혼선이 유발하게 된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못박아두어야 할 것은 땅이름의 이동현상이야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원래 붙었던 시설물의 이름은 여간해서 바꾸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성당 이름 중에는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인해서 자꾸 그에 끌려다니는 것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 문제가 적지 않다. 또, 이에 대한 어떤 뚜렷한 기준도 없어 적절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실례로 구로동에는 '구로본동성당', '구로1동성당', '구로3동성당' 등 여러 성당 이름이 행정구역에 따라 나와 있고, 등촌동에는 '등촌1동성당', '등촌3동성당' 등이 있다. 그런데, 지금의 행정구역으로 등촌동도 아닌 곳에 '등촌동성당'이 위치해 있음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지금은 엄연히 행정구역이 '목3동'으로 바뀌어 있는 곳에 이 이름을 단 성당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된 것은 이 목3동 지역이 옛날에 '등촌동'이었고, 그때 붙여졌던 이름을 바꾸기가 어려워 그대로 그 이름을 쓰고 있다는 것이다. 또, '발산동성당' 같은 경우도 엄연히 '화

곡3동'에 위치해 있어 혼선을 빚고 있다. 따라서, 진짜 발산동(지금의 내발산동이나 외발산동)에 성당이 생긴다면, '발산동성당'이란 이름을 쓰기 어려운 사정에 있다.

앞으로도 행정구역은 인구의 증가나 구역의 변경 등 인위적 상황에 따라 '신림14동', '신림15동' 같은 새 동명이 나올 수 있고, 구역명이 또 달리 바뀔 수도 있다. 그때마다 그곳의 성당 이름을 계속 바꾼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름은 한번 붙이면 바뀌지 않아야 한다. 그래야, 기억하기도 쉽고, 이름 혼선도 피할 수가 있다. 성당의 이름이 행정구역 이름에 따라 자꾸 이리 바뀌고 저리 바뀌면 일일이 그 성당 이름의 변천 상황까지 기억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를 해소하는 좋은 방법은 없을까? 완전한 방법은 없다. 그러나, 이러한 혼동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우선, 성당 이름을 옛 땅이름으로 붙여보는 것이다. 즉, 그곳의 옛 지명을 넣어 붙여놓으면, 그 지역의 행정구역이 바뀌어도 그 이름은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현재 신림동에는 '난곡동성당'이 있고, 봉천동에는 '낙성대성당'이 있는데, 이 경우, 그곳의 행정구역이 신림 몇 동이나 봉천 몇 동이라 하더라도, 그 이름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므로 앞으로 그 지역이 어떤 다른 동이름으로 바뀐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그 본당명을 오래도록 기억할 수 있고, 혼선도 피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난곡'이나 '낙성대'는 어느 정도 잘 알려진 땅이름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별로 알려지지 않은 옛 이름을 넣게 되면 어느 정도 그 이름이 알려지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그 위치를 아는 데 조금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그렇더라도 행정구역의 변경에 따라 본당명이 자꾸 이리 바뀌고 저리 바뀌는 것보다는 훨씬 나으리라고 본다.

한자식 이름의 틀에서 벗어나야

그리고, 이름을 꼭 한자식으로만 생각하는 데도 문제가 있다. 성당 이름이 꼭 한자식이어야만 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

필자가 보기에는 ‘모래내성당’, ‘곰달래성당’, ‘마들성당’, ‘애오개성당’, ‘학여울성당’, ‘장승백이성당’ 같은 이름도 어울리리라고 본다. 또, 그런 이름으로 붙여진 성당은 앞으로 그 지역이 어떤 행정동명으로 바뀐다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성당이 많이 생긴다 하더라도 대치동에는 ‘한티성당’, 흑석동에는 ‘검은돌성당’이나 ‘비개성당’, 논현동에는 ‘논고개성당’, 등촌동에는 ‘등마루성당’, 반포동에는 ‘서리풀성당’, 목동에는 ‘떡골성당’ 등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본당 이름의 다양화를 꾀할 수 있고,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이름 변경의 번거로움도 피할 수 있어 좋을 것이다.

우리 천주교의 성지(聖地) 이름은 대개가 우리 토박이 땅이름으로 되어 있다. ‘새남터’, ‘당고개’, ‘솔피’, ‘미리내’, ‘한티’, ‘배론’, ‘골배마실’ 처럼. 만약 이들 이름을 한자식으로 ‘사남(沙南)’, ‘당현(堂峴)’, ‘송산(松山)’, ‘미산(美山)’, ‘대치(大峙)’, ‘주론(舟論)’, ‘골배촌(骨背村)’ 식으로 한다면 지금보다 그 이름이 더 어울린다고 말할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또, 그곳의 현재 행정구역명으로 한다고 하면 더욱 이상할 것이다.

이런 면에서 성당 이름도 지금의 서부이촌동의 ‘새남터성당’ 처럼 원래의 토박이 땅이름

으로 한다고 해도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다.

또, 지금의 행정구역명(특히 법정동명)은 거의 일제 때 정해진 것인데, 이것에 따라 이름이 붙은 것도 상당수 있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성당 이름도 지금이라도 그곳의 토박이 땅이름으로 되돌려놓는 것이 어떨까 싶다. 물론, 성당명을 바꿈으로써 처음엔 어느 정도의 불편은 있으리라고 본다. 그러나, 훗날엔 반드시 이러한 우리의 일을 후손들이 조금도 나쁘게 평가하지 않으리라 본다.

예컨대, ‘중림동성당’ 같은 이름도 원래 이곳의 땅이름인 ‘약고개’나 ‘약현(藥峴)’이란 이름으로 되돌려놓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 성당의 이름은 원래 ‘약현성당’이었다. 그러나, 일제 때에 이 근처에 있던 ‘가운뎃말(약전중동, 藥田中洞)’과 ‘한림골(翰林洞)’ 등의 마을을 합쳐 그 두 마을에서 한 글자씩 따서 ‘중림동(中林洞)’이라 하게 된 것이고, 그러한 구역명칭의 변경에 따라 성당의 이름도 ‘중림동성당’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명동성당도 거의 비슷하기는 하나, 중림동의 이름처럼 왜색적이지는 않다. 이 본당의 이름도 이곳이 원래 ‘북달재(북고개)’였으므로, 그것의 한자식 이름인 ‘중현성당(鍾峴聖堂)’이었다. 일제 때에 일본인들은 이곳 옛날의 명례방(明禮坊)의 명동(明洞) 일대를 ‘명치정(明治町)’이라 했지만, 성당의 이름은 그에 따르지 않았는데, 나중에 다시 ‘명동’이란 이름을 되찾게 되면서 ‘명동성당’이 된 것이다. 욕심 같아서는 이 성당 이름 역시 아예 옛날 이름으로 돌려놓으면 어떨까 싶다.

어떻든 지금의 현재 행정구역 위주의 본당 이름은 재고됨이 바람직하다.

사회 병리 현상,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양승규 시몬

서울대학교 법학과 교수

이 글은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1996년 연례 세미나(11월 9일)에서 양승규 교수가 발표하고, 다시 발표자가 「사목」지에 게재하면서 내용을 조금 보충한 것이다. 우리 사회의 병리 현상이 무엇인지 제대로 직시하게 하고, 그러한 병리 현상에 대처하여 어떻게 치유해 나갈 것인지를 생각하게 해준다. 이미 교회의 정기 간행물(「사목」, 「경향잡지」)에 게재되었지만 우리 평신도들의 예언적 수행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여기 다시 그대로 옮겼다. -편집자

I. 머리말

우리는 1945년 8월 15일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된 후 끊임없는 혼란을 겪으면서 살고 있다. 남북 분단으로 민족적 갈등을 빚고, 1948년에 남북이 체제를 달리하는 국가를 형성하여 서로 반목하고, 이승만은 친일 세력을 주축으로 하는 정부를 이끌어 민족 정기를 세우지 못했다. 이에 따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앞세우는 교활한 자들이 사회를 지배하는 풍토를 조성했다고 할 수 있다. 1950년의 6·25라는 민족 전쟁의 참화 속에서도 정치 권력의 부패와 비민주화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어 4·19 혁명에 의하여 정권이 무너지는 어리석은 역사를 창출했다. 게다가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 속에서 출범한 민주당 정권은 이른바 신·구파의 분열로 사회적 혼란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였고, 1961년 5·16 쿠데타로 박정희 군사 정권이 등장하여 이른바 유신 체제 등 강압 정치가 이어졌다.

1979년의 10·26 사태로 인한 박정희의 비참한 죽음으로 유신 정권이 무너진 후에도 정치, 사회의 혼란이 가중되어 12·12 군사 반란, 5·17 쿠데타, 5·18 광주 의 만행 등으로

이어지고, 5공의 폭압 정치를 거쳐 1987년 6·10 항쟁으로 얻어낸 대통령 직선제의 개헌으로 6공이 탄생했다. 그러나 노태우 정권도 5공의 청산을 하지 아니하고 부패 정치를 계속하여 정통성을 회복하지 못하고 혼돈이 이어졌으며, 김영삼 정권도 3당의 야합으로 생겨나 그 태생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김영삼 정권은 이른바 문민 정부라는 기치를 내걸고 여러 가지 개혁을 단행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수구 세력의 벽을 허물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권력형 비리 등 사회 병리를 깨끗하게 척결하겠다는 말만을 앞세우고 있다. 게다가 각종의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정략적으로 이를 이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12·12 사건이나 5·18의 문제를 역사에 맡기겠다고 선언한 김 대통령이 노태우의 비자금 사건이 터지고 자신의 대선 자금 공개 요청이 거세지자 5·18 특별법으로 전·노를 구속하여 재판에 부친 것은 바로 그 본보기라 할 수 있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크고 작은 사건이 없을 수는 없으나 특히 김영삼 정권이 들어선 후 구포열차사고, 위도의 선박침몰사고, 대구 지하철 공사장의 가스폭발사고,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의 붕괴사고 등은 우리의 사회 병리를 고발하고 경고하는 사건들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1996년 9월 동해에 북한의 잠수함 침투로 인한 간첩 소탕 작전이 보여준 여러 가지 사건은 우리에게 커다란 경종을 울리고 있다. 그리고 이양호 전 국방부장관 사건은 이 나라의 뿌리깊은 병리 현상을 극명하게 드러내어 우리 민족과 국가의 부끄러움을 더해 주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 사회 병리의 원인과 그 현상의 일부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고 이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II. 사회 병리 현상

1. 윤리의식의 결핍과 부조리의 만연

“야훼여, 우리는 임금들이나 고관들이나 조상들까지 모두가 주께 죄를 얻어 얼굴을 들 수 없게 되었습니다.”(다니 9.8)라는 말을 실감할 만큼 오늘날 우리 사회는 총체적인 부정 부패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것은 해방 이후 갖가지 소용돌이와 6·25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비극을 겪으면서 전통적인 윤리관이 무너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잘살면 된다는 그릇된 가치관이 자리를 잡으면서 생겨난 필연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일제에 빌붙어 자신의 이익을 챙긴 사악한 무리들을 청산하지 못하고, 게다가 정치 권력의 타락으로 맑고 깨끗한 사람보다는 적당히 부패하고 말 잘듣는 사람을 기용함으로써 먹이 사슬이 이루어지고 공직자의 비리가 늘어나면서 윤리의식이 둔감해진 데에 커다란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1996년에 들어 7월까지 비리로 징계된 공무원이 3,090여 명에 이르고(「동아일보」 1996.9.30. 국감자료) 공정거래위원회의 국장, 영천시장, 서울

시의 시내 버스 사업 관련 공무원 등이 뇌물 수수로 입건되고 있다. 1995년 인천북구청의 세금 횡령 사건으로 떠들썩했는데, 1996년 북인천의 국세 비리 사건에서는 세무 공무원들이 상급자에게도 일정액을 상납해 온 사실이 밝혀지고(「동아일보」 1996. 7.26.), 서울시의 구청 세무 공무원들의 비리가 사정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1995년도의 공직자 비리가 54% 늘어났으므로 보도되고 있다(「동아일보」 1996.2.7.). 그리고 교육계의 부조리는 더욱 한심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학교에서 촌지가 통하고, 학교 책임자나 교육정책 담당자들이 돈과 정실에 놀아나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앞날을 매우 어둡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교육감 선거를 둘러싸고 일어난 추태는 바로 이를 말해 주고, 우리 사회의 비리가 얼마나 뿌리깊은가를 보여주는 것이고, 참으로 부끄러운 세상에서 부끄러운 사람들이 살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오늘 우리 사회는 물질적인 풍요로움으로 가치의 척도를 돈으로 계산하려는 풍토가 짙게 깔려있다. 물질적인 가치에 중점을 두게 될 때에 인간의 도덕과 윤리는 땅에 떨어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는 자들에 의하여 사회가 어지럽혀진다. 우리 사회의 부정과 부패는 그것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서로 믿지 못하고 용서와 사랑이 없을 뿐 아니라 이기주의가 판을 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메마른 인간의 모습이 드러나게 마련이다.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 가정윤리가 파괴되어 각종 범죄가 늘어나고, 특히 청소년들의 성범죄와 환각제의 이용 등 심각한 사회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것도 윤리의식의 결핍에서 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지존파의 살인을 모방하여 가진 자들을 죽이고 싶다고 실토한

막가파의 끔찍한 살인행위는 우리에게 무엇을 경고하는가를 깊이 반성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2. 인권의 침해

하느님의 모상으로 태어난 인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이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기본적 인권의 보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의 규정은 천부적인 인권의 보장을 확인한 것으로 국가의 공권력은 바로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보살피는 데 그 존재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군사 독재 정권하에서 이른바 시국 사건 관련자들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을 남용하고 가혹한 고문을 가하여 인권을 침해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유신시대부터 이어온 가혹행위의 전형적인 예는 1986년의 김근태 씨에 대한 고문 사건, 부천서의 성 고문 사건 등이고, 1987년의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에서 그 절정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인권의 침해 사실은 불법적으로 연행하여 고문을 가하여 죄를 뒤집어씌운 수사관만의 책임뿐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기소하고 재판한 검찰이나 사법부에 보다 큰 책임이 있고, 또한 이를 구경만 한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 할 것이다.

1976년의 3·1절 명동성당 기도회 사건에 대한 재판 등이 얼마나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이계창 신부, “법정에서의 진실” 참조), 그에 관여한 검찰이나 법관이 영전을 거듭했다는 것은 법의 이름을 빌린 폭력의 하수인들이 출세하는 웃지 못할 기록을 남긴 것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시국 사건에 대한 재판이 법의 기본 정신을 어기고 법의 이름으로 폭력행위를 뒷받침해 준 것이기 때문이다. 지학순 주교는 1974년 8월 10일 항소문에서 “본인이 항소를 제기한 것은 주어진 판결의 감형을 구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독재 권력의 직접적 하수 기관인 비상 군법회의의 법이라는 이름을 빌린 폭력을 나 스스로 확인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기법과 회망사목연구소, 「암흑 속의 햇불」 제1권, 75면 참조).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과거 간첩 조작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여야 한다는 운동이 지속되고 (『평화신문』 1994.11.13. 1면 광고 참조), 특히 김영삼 정권하에서 지난 1994년 9월에 간첩으로 구속된 ‘김삼섭 남매 간첩 사건’이 안기부에 의하여 조작되었다는 백승용 씨의 양심 선언이 나왔다는 사실(『평화신문』 1994.11.20., 17면), 1996년 7월 19일 공권력 남용과 저지를 위한 천주교대책위원회에서 “공권력 남용과 인권 탄압을 중단하라.”는 성명이 나오고 있는 사실이나 양심수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들은 아직도 우리나라의 공권력이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고 있다는 단적인 증거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정권의 도덕성에 치명적인 흠을 남겨 그 존립의 기초를 흔드는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인권의 침해 사실은 비단 공권력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나 노동 현장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권 침해의 사실이나 아무런 힘이 없는 태아를 무참히 죽이는 낙태행위는 사회윤리가 타락하여 인명경시와 인권침해라는 인류에 반하는 커다란 범죄행위임을 자각할 필요가 있다.

3. 법의 왜곡과 법 집행의 불공정성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법은 공동선을 위한 이성의 명령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법은

공동선을 실현하여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규범으로서 정의의 상징이라 한다. 이러한 법의 해석과 집행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원칙이 있다. 법은 결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권력을 가진 자들이 법을 자의적으로 운용하여 법의 왜곡 현상을 가져왔고, 따라서 법 집행에 있어서 형평성을 잃어 법의 생명인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사회질서를 바로잡지 못하고 있다.

제3공화국에서 이어지는 군사 정권하에서 저질러진 법 현상은 제쳐놓는다 하더라도 이른바 민주질서가 회복되었다는 6공의 13대 국회에서 26개의 법안을 비롯하여 두 차례에 걸쳐 2,30초만에 날치기로 통과시킨 사실, 6공 제2기인 김영삼 정권이 들어선 후 개혁을 앞세워 사정의 한파가 불어닥친 때에도 공정한 법의 집행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우호적이지 아니했던 몇몇 사람에 대해 사법 처리하고, 각종 권력형 비리 사건도 선별적으로 다루어 빈축을 샀다는 점을 일깨우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부정을 척결하는 데 성역이 있을 수 없다고 선언한 김 대통령은 권력형 비리를 척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이른바 상무대 의혹 사건에 대한 국정 조사에 협조를 거부한 사실들은 법을 왜곡한 대표적인 사례로서 김영삼 정권의 도덕성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울곡 비리 의혹 사건이나 상무대 비리 의혹 사건 등을 철저히 파헤쳤으면 이양호 전국방부장관의 치부가 일찍 드러나 오늘 우리가 겪는 수모를 미리 막을 수 있었을 것이고, 오늘날 새삼스럽게 김 대통령이 부정 척결없이는 안보도 없다는 말을 되뇌이지 않아도 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헌법 제11조 제1항)는 헌법 규정이 아니라도 정의의 수단인 법의 집행에 있어서 공정성을 잃고 힘있는 자에게는 관대하고 힘없는 자에게는 서슬이 퍼렇게 작용할 때에는 사회적 불평등을 초래하여 엄청난 비극의 씨를 뿌리는 것이다.

법의 집행에 있어서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 사실은 누적된 병폐이다. 문민 정부라고 자처하는 김영삼 정권에 이르러 군사 정권보다 그 현상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하는 이가 적지 않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는 반문이 나올 수 있다. 물론 전·노에 대한 재판은 역사적으로 커다란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불법적으로 권력을 잡고 저지른 비리는 언젠든 벌을 받을 수 있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김 대통령의 ‘역사 바로 세우기’라는 의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노태우의 엄청난 비자금 사건이 터지고, 김 대통령의 대선 자금 공개 등 국민적 저항이 거세져 이를 돌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나온 결과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전두환의 부정한 돈을 실명 전환해 주고 61억원이라는 엄청난 현금을 사과 상자에 보관하여 숨겨준 여당 의원이 4·11 총선에 출마하여 당선될 수 있었고, 국회의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는 사실은 국가적인 수치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의 장학로 실장의 떡값 21억원, 공직자의 독직 사건에 대한 형량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비판이 가해지고, 지난 4·11 총선의 선거법 위반자에 대한 검찰의 수사도 과연 형평성을 유지하고 있느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

는 것도 법이 공정하게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 할 수 있다. 법의 공정성을 짓밟는 현상은 공정한 수사권을 행사하고 법적 정의를 실현해야 할 검찰과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근본 요인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법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다. 권력형 비리를 눈감아주고 약한 자에게만 그 책임을 묻는 사회 현상 속에서는 비록 죄를 범하여 처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억울하다고 소리치게 되는 것이고, 공권력의 행사에 승복하지 않게 된다고 할 수 있다.

4. 사면권의 남용

사면권은 대통령에게 주어진 고유의 권한이나,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사면법에 의하여 이를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헌법 제79조, 제89조 9호). 이에 따라 재판을 받아 형이 확정된 자도 대통령의 사면에 의하여 그 형이 감소되거나 석방되고, 또는 복권되어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되기도 한다. 정치적 이유로 폄박을 받고 있는 사람이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성실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법원이 재판을 통해서 확정된 형량을 감해 주거나 사면하여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민의 화합을 이룩하는 데도 필요하다. 그러나 대통령의 사면권은 국가 이익과 국민의 화합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정치적으로 이를 악용하는 것은 권력의 남용이라 할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가 있을 때마다 형평에 어긋나고 정략적이라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군사 정권하에서 이루어진 사면권 행사의 부당성은 체쳐둔다 하더라도 김영삼 대통령에 의하여 이루어진 몇 차례의 사면권 행사에 대해서도 비난의 소리가 높다(『평화신문』 1996.8.25, 1면 참조). 1993년 12월

23일에는 동해시 국회의원 후보 매수 사건 관련자와 뇌물 외유 사건 관련으로 유죄가 확정된 정치권 인사 13명, 1995년 8월 15일에는 슬롯머신 사건, 수서 사건 및 동화은행 대출 비리 사건, 울곡 비리 등에 연루된 정치권 인사에 대한 사면, 복권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1996년 8월 15일에는 울곡 비리, 동화은행 비리, 슬롯머신 사건, 산업은행 대출 비리에 연루된 자들을 사면, 복권함으로써 권력형 비리 관련자들을 모두 풀어주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는 부정을 과감하게 척결하겠다는 대통령의 공약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사회 정의를 무시하여 국민의 신뢰를 배반한 권력 남용의 예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III. 사회 병리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1. 도덕성의 회복

우리 나라는 동방의 예의의 나라라고 일컬어왔다. 유교적인 전통에 의하여 삼강오륜(三綱五倫) 등 어느 정도 도덕적인 기반을 간직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제 36년의 식민지 지배와 해방 이후 남북 분단으로 인한 6·25 전쟁 등을 겪으면서 도덕적 가치가 무너지고 경제 제일주의가 판을 쳐 오로지 잘사는 데만 집착하여 정신적인 가치보다는 물질적인 가치에 중점을 두는 현상을 초래했다고 할 수 있다. 노자(老子)의 「도덕경」의 첫머리에 “언제나 욕심이 없으면 도의 현묘함을 볼 수 있고, 항상 욕심을 지니고 있으면 물질세계만을 볼 수 있다.”라는 구절이 있다. 이 말은 사람이 인간적인 욕심을 앞세우고 있으면 참된 도를 찾을 수 없고 물질적인 삶에 허덕이게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사회의 병리 현상을 바로잡

기 위해서는 먼저 개인이나 사회 모두가 도덕성을 회복하여 서로 어울려 사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다음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첫째로 원칙을 지키고 책임을 묻고 지는 사회로 바뀌어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가족 공동체, 사회 공동체 및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공동선의 실현을 위하여 이웃과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야 하는 사회적 실체이다. 그러나 인간이 자신의 이기심을 앞세워 이웃을 생각하지 아니할 때에 그 사회는 어지러워지게 마련이다.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리 현상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앞세우고 있는 자들이 사회를 지배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남보다 먼저 좋은 자리를 차지하거나 이권을 노려 힘있는 자에게 뇌물을 바치고, 이러한 자들이 서로 먹이 사슬을 이루어 바르고 떳떳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을 몰아내는 현상, 바로 "악화가 양화를 몰아낸다."는 그레샴의 법칙이 곳곳에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사회에는 윤리, 도덕을 비롯한 갖가지 규범이 마련되어 있다. 사람들은 건전한 상식과 조리에 따라 갖가지 규범을 지키면서 살아야 하고 이를 어길 때에는 응분의 책임을 묻는 것이 하나의 기본 원칙이라 할 수 있다. 우리 사회가 일제시대부터 역대 정권에 붙어서 실속을 차리고 있는 사람들이 국가의 원로로 대접받고, 쿠데타의 주역이 정치 지도자로 둔갑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은 바로 책임 부재의 사회 현상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국민 모두의 자각으로 잘못된 자들의 책임의식을 고취시키고, 사회 구성원이 모두 원칙을 지키고 법과 질서를 존중하면서 이웃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자 할 때에 사회 병리는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정부가 먼저 정직해야 한다. 공자(孔子)는 백성의 믿음(民信)이 정치의 가장 기본임을 일깨워 주었고,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정부가 나라를 제대로 이끌 수 없음은 자명한 일이다. 따라서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지 않는 정치는 하나의 폭력이라 할 수 있다. 권력을 이용하여 부정을 저지르는 자들은 '내부의 적'이고 외부의 적보다도 국가를 파괴하는 힘이 훨씬 세다는 것은 만고의 진리이다. 한 나라의 붕괴는 권력의 부패에 기인하는 것이 밖에서 쳐들어온 적에 의한 것이 아님은 역사가 가르쳐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불행히도 권력형 비리의 고리를 끊으려는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허구적인 구호를 앞세워 국민을 호도하는 서글픈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 불거진 이양호 전국방부장관의 비리는 김영삼 정부의 허구성을 그대로 드러낸 치욕적인 사건이다. 역대 정권이 어느 하나도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나라를 다스리지 못한 서글픔을 안고 있다. 문민 정부로서 정통성을 회복했다는 김영삼 정부는 출발 당시부터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장관으로 임명할 뿐 아니라 편파적인 인사를 단행하여 인사가 망사(亡事)가 되고 있다는 비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자신의 직분에 충실하지 못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재주를 피우는 자들을 중요한 자리에 기용함으로써 국민에게 실망을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 병역 의무 등 자신의 의무는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고 실속만을 챙기는 떳떳하지 못한 공직자들이 스스로 물러나는 것도 국가에 봉사하는 일이 될 것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그 동안의 잘못을 뉘우치고 군사 정권에서 이어 내려온 갖가지 권력형 비

리를 철저히 가려야 하고, 외국에 빼돌린 검은 돈도 찾아내어 다시는 권력을 이용한 부정이 숨길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지난날 군사 정권에 빌붙어 출세에 눈이 어두워 진실을 왜곡하고 사회를 잘못 이끈 지도층 인사는 물론 언론계와 학계의 인사들에 대한 책임도 묻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을 속이려 들지 말고, 정직한 정부로 새로 태어나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여 거짓이 춤추지 않는 사회로 탈바꿈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 사회를 바로 이끄는 것이 될 것이다.

2. 법치주의의 실현

민주국가는 법으로 다스리는 나라이다. 법은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평화롭게 이끌기 위하여 사람이 지키고 따라야 할 규범이다. 법실증주의에서 법은 실정법을 가리키나, 오늘날 인간의 생활 규범으로서의 법이라고 할 때에는 보다 넓은 뜻으로 사용된다. “율법을 가지지 못한 채 죄를 지은 사람들은 율법과는 관계없이 망할 것이고, 율법을 가지고도 죄를 지은 사람들은 그 율법에 따라 심판받을 것입니다.”(로마 2:12)라는 사도 바오로의 말씀은 실정법만을 법이라고 할 수 없음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성문법 국가에서 법의 중심은 물론 실정법에 있다. 그러나 법은 정의의 상징으로서 국가사회의 공동선의 실현을 그 이념으로 하고 있으므로, 실정법이 정의의 관념에 어긋나고 정당성이 없는 것은 법으로서의 효력을 부여할 수 없다. 법의 정당성은 그 내용뿐 아니라 제정과정도 적법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점에서 12·12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군부 세력이 주도한, 이른바 국보위에서 제정한 법률이나 13대 국회에서 민자당 정권에 의하여 주도되었던 날치기 입법은 법으로서의 정당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법앞에 평등하므로 법의 적용이나 집행에 있어서 공정하고 형평성을 간직하여 공동선의 증진에 이바지할 때에는 그 법의 구속력이 있으나, 권력을 가진 자들에 의하여 자의적으로 악용될 때에는 법이라고 하기보다는 법의 이름을 빌린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 점에서 실정법도 사회윤리와 도덕의 뒷받침이 있을 때에 비로소 법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오늘날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총체적인 부패 현상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은 바로 법치주의의 이념이 살지 못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우리 나라는 민주 헌법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정통성이 없는 역대 정권이 법을 악용하여 법의 공정성, 형평성을 도외시켰기 때문에 법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 있다. “법을 지키면 손해를 본다.”든가, “돈이 있으면 죄가 없고 돈이 없으면 죄가 있다.”(有錢無罪, 無錢有罪)라는 말이 예사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한국법제연구원이 1991년에 실시한 “국민 법의식 조사 연구”에 의하면 ‘우리 사회에서 법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82.4%가 “법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라고 응답하고, ‘누가 가장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정치인 61.8%, 기업가 15.6%, 공무원 11.0%, 지식인 2.4%, 종교인 1.1%, 근로자 1.2%, 대학생 2.8%, 기타 4.0%’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각 분야에서 법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정치 분야 82.7%, 행정 분야 53.6%, 경제계 72.0%, 노사관계 69.3%, 교육계 40.0%, 교통질서 64.2%, 행락질서 79.7%’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

러한 현상은 우리 사회에서 법질서가 바로 서지 못하고, 힘이 있는 자일수록 법을 잘 지키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 사회의 병리 현상을 치유하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법이 지배하는 사회로 탈바꿈해야 한다. 법질서를 어긴 자는 그가 누구이든 엄격한 책임을 물어 그 대가를 치르도록 하고 국가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것이다. “오른손이 죄를 짓게 하거든 그 손을 찍어 던져버려라. 몸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마태 5.30)는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 특히 권력 주변을 정화하고, 권력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자들에게는 보다 엄격한 책임을 물어 법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하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모든 국민이 승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는 검찰이나 사법부가 권력의 시너 노릇을 청산하고 법적 정의를 실현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그리고 언론과 학계뿐 아니라 국민 모두가 법질서를 지키고 좀더 떳떳한 자세를 견지하여 권력의 부패를 끊임없이 감시할 때에 비로소 법치주의의 이념이 살아나고, 우리 사회가 밝아질 것이다.

IV. 맺는 말

우리 나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도 꾸준히 성장해 왔고, 일부 부정적인 현상이 있으면서도 사회가 유지 발전하고 있다. 이것은 많은 착한 국민들이 묵묵히 자신의 직분에 충실하고 바르게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법질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고, 이는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신자들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잘못 산 데에 연유하는 것이다. 권력형 비리의 관련자들 속에 신앙인이 여기저기 끼어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겸허하게 반성하며, 세상의 소금과 빛(마태 5.13-16)으로서 교회는 끊임없이 쇄신되고 예언직의 수행을 게을리해서는 안될 것이다(사목헌장, 76항 참조).

사회 병리 현상을 치유하고 공동선을 살리기 위하여는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 이를 위하여는 윤리, 도덕이 뒷받침되는 법의 공평무사한 집행과 함께 국가가 잘못을 저지른 자에게 책임을 묻고 지도하도록 하는 사회 풍토를 이룩하여야 한다.

“재판할 때에 한쪽을 편들면 안된다. 세력이 있는 자이든 없는 자이든 똑같이 들어주어야 한다. 재판이란 하느님께서 몸소 하시는 일이니 아무도 두려워하지 말라”(신명 1.17). 이는 하느님의 정의에 따라 법을 공정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가르침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2000년의 회년을 준비하면서 “회개 하여라. 하늘나라가 다가왔다.”(마태 3.2)는 세례자 요한의 광야의 외침을 받아들이고, 아무리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정의와 선(善)은 반드시 이긴다는 굳은 신념에 따라 일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웃과 함께하는 삶을 살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그것이 옳은 일이 아닐 때에 남들이 다 그에 따른다 하더라도 나 한 사람이라도 희생을 감수하고 옳은게 살려는 의지를 가지고 떳떳하게 나서야 한다. 이것이 사회 병리 현상을 바로잡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어느 민족이나 정의를 받들면 높아지고 어느 나라나 죄를 지으면 수치를 당한다”(잠언 14.34).

내가 변하면 세상도 변합니다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제 29회 평신도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아울러 다가올 3천년대를 준비하는 마지막 5년의 첫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때가 차자 하느님께서 당신 아드님을 보내시어 여자의 몸에서 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당신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얻게 하신”(갈라 4,4-5) ‘주님의 은총의 해’가 시작된 지 2천 년을 바로 눈앞에 두게 된 것입니다(대회년 길잡이 1,21). “제3천년대의 문턱에 들어서시는 역사의 이 위대하고도 극적인 순간에 우리 평신도들은 교회의 사명에 있어서 능동적이고도 역사적이며 책임있는 역할을 맡게 한”(평신도 그리스도인 3항) 교회의 가르침을 새삼 돌아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곧 다가올 주님의 은총의 해를 맞이하기 위해선 우리의 사회가, 우리의 삶이, 이대로는 안된다는 위기의식이 교회 안에서 팽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한 국제기관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 나라 청소년들의 자살율이 세계 1위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년을 포함한 자살율이 세계 2위인 우리의 현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말문이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의문을 던지게 됩니다. 과연 누가 이들을 죽음으로 몰아갔을까요. 제도입니까. 학교입니까. 아니면 가정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미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를 청소년 자살율 1위의 망국병 국가로 전락시킨 장본인은 다름아닌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말입니

다. 따라서 오늘 제29회 평신도 주일은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안고 있는 온갖 문제점들을 솔직하게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과연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2천년 주교 특별위원회’는 구세주 강생 2천년 대회년을 맞이하며 펴낸 ‘대회년 길잡이’를 통해 “초고속 경제성장만을 내세운 산업화가 빚어낸 사회의 황폐화와 환경오염, 약육강식으로 인한 부의 편중과 계층간의 갈등”을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최대문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분별한 개발과 균형 잃은 도시화는 엄청난 도시민민을 양산했는가 하면 거둬드는 농정의 실패는 농어민의 몰락과 이향을 부채질했으며 가정 파괴와 가족의 와해’ 역시 그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복합적 위기 현상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극도의 이기주의와 향락 제일주의는 도덕성의 상실로 이어졌으며 이는 약자에 대한 소외는 물론 급기야 생명경시’로 까지 발전하고야 말았습니다. 최근 국제적 망신으로 떠오르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학대와 착취는 또 어떻습니까. ‘이곳저곳에서 들리는 도시 난민들의 절망과 울부짖음, 부정한 권력과 불의가 낳은 불신과 불화’ 등등, 지금 우리 모두는 몸과 마음의 짐을 잃어가는 실향민이 되어가는 것 같아 참으로 두렵기 짝이 없습니다(대회년 길잡이 1,25).

어디 그뿐입니까. 격변의 20세기의 소용돌이 속에서 광복과 분단을 함께 맞은 이래 우리 민족은 6·25 동란이라는 민족적인 비극을 겪어야 했으며 무려 반세기 동안 동족상잔, 이산가족의 아픔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열강들의 이해 다툼 속에서 아직도 우리는 우리 민족의 화해와 일치 문제를 자율적 입장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 구주강생 2천년 대희년을 준비하는 우리 평신도로서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하는 당면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모든 현상은 바로 평신도인 우리가 평신도답게 살지 못한 데서 기인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사회의 총체적 위기가 우리 평신도들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은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 점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 1991년에 반포한 회칙 「평신도 그리스도인」에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준비과정에서부터 평신도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평신도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시킨 회칙 「평신도 그리스도인」은 “현대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중대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세상 안에서 평신도의 투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례성사에서 흘러나오는 동일한 존엄성으로 말미암아 평신도는 성직자, 수도자와 함께 교회의 사명에 대한 책임을 함께하는 것”이라고 「평신도 그리스도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결국 「평신도 그리스도인」은 한 발은 교회에, 또 한 발은 사회에 딛고 있는 우리 평신도들이 듣고 따르는 교회가 아니라 스스로 한 사람의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사제직, 예언자직, 왕직 사명에 참여하도록 불림을 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적극적이며 창의적인 평신도 사명을 의미하

는 것이기도 합니다. 적극적이며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평신도는 바로 우리 교회 평신도의 모습이어야 마땅합니다. 그것은 우리 한국 천주교회의 전통이자 자랑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 평신도들은 우리가 아주 독특한 신앙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우리 사회의 총체적 위기를 해소하는 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만 합니다. 다름아닌 우리 모두 익히 알고 있는 신앙과 생활의 이원화 현상입니다. 사실 그 동안 우리 평신도들은 교회 안에서 안주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주의 폭이 깊다 보니 우리들만의 공동체로서 이기적인 집단으로 살아왔다는 사실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한 형제요 자매이지만 교회 밖 사람들과는 전혀 남인 듯 살아온 신앙과 생활의 이원적 구조는 우리 신앙의 근본적인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같은 우리의 현실은 복음화 현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최근 수년간 한국교회의 신자 증가폭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고 신자 증가의 하락세는 도시와 농어촌 구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을 떠올리고 베풀어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제3천년기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새 복음화의 신기원을 마련할 것인가(대회년 길잡이 2.24) 연구해야 하는 한국교회로서는 참으로 안타까운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는 평신도들을 위한 교육의 부족에도 기인합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을 중심으로 그 동안 무수하게 발표된 교회의 다양한 가르침과 우리 평신도들은 거의 무관하게 살아왔다고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교회의 가르침을 제대로 모르는 데 어떻게 교회의 자녀답게 살 수가 있겠습

니까. 교회 정신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는데 어떻게 이웃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겠습니까.

다행스럽게도 지금 우리 교회는 2천년대 복음화를 준비하는 도정에 있습니다. 우리 한국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최근 수년간 2천년대 복음화를 준비하는 주역으로서 소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작업에 참여해 왔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청소년문제를 비롯, 환경과 농촌문제, 그리고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교육과 활동 등 새로운 복음화를 추구하는 여정에 앞장서 참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눈앞으로 다가올 2천년대를 생각하면 우리의 이같은 선택은 너무나 미미합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적 위기와 우리 교회가 담당해 나가야 할 시대적 사명을 감안한다면 우리 한국 평신도들의 위상과 역할은 참으로 왜소하기 짝이 없습니다. 때문에 2천년 대회년을 바라보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한 마음으로 지향하는 새로운 복음화는 우리 평신도들에게 새로운 결심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부터 변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제3천년기의 문을 여는 이 중대한 시점에서 우리 평신도들의 선택은 하나여야 합니다. 앞서 지적한 대로 내가 변화하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세상도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너무도 당연한 이치입니다. 죽음이 필요했던 시기에 생명을 내놓았고 투신이 필요한 시기에 망설임없이 자신을 투신했던 우리 평신도들에게 있어 오늘의 시대는 증거하는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증거하는 삶은 다름아닌 변화의 삶입니다.

그것은 우리 평신도들이 '살아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자신감에 넘치거나 자만하지 않

는 평신도, 보여주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평신도, 우리 교회는 그런 평신도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평신도가 진정 변화하는 모습으로 새롭게 태어난다면 우리가 직면한 수많은 문제들은 우리 안에서부터 저절로 풀려나갈 것입니다.

이제 우리 평신도들은 그 동안 전개해 온 수많은 운동들이 사회 깊숙이 파고들지 못하고 또 사회를 변화시키지 못한 이유가 어찌면 우리 스스로 그 모든 운동을 삶으로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땅으로 대표되는 창조계 전체와 사람이 본래 하느님의 것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인류문명의 진로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미래는 어둡기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남과 공동체를 위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하여 말 그대로 ‘사랑의 문명’을 이루어간다면 인류에게는 과거에 한 번도 실현된 적이 없는 광범위하고 깊은 의미의 참된 세계가 실현될 수도 있습니다”(대회년 길잡이 1). 그것은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자유를 찾아주는 ‘해방’과 함께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회복’이라는 회년의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을(대회년 길잡이 1.15) 이 땅에 구현하는 오직 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교황 요한 23세께서 즐겨 말씀하신 대로, 갈등을 느끼는 모든 사람들이 찾아드는 ‘동네 샘’으로 우리 평신도들이 거둬낼 때 거기서 인간의 열망에 대한 응답이 나올 수 있음은 분명합니다(평신도 그리스도인, 27항). 그곳에선 우리의 죄없는 청소년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접어둔 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내가 변하면 세상도 변합니다 ”

증거하는 삶은 변화의 삶입니다. 이 시대는 살아있는 평신도를 원합니다.
자신감에 넘치거나 자만하지 않는 평신도, 보여주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평신도,
순교의 정신으로 세상을 성화시켜 나갈 평신도를 원합니다.
새로운 복음화는 평신도들에게 새로운 결심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나부터 변하는 것입니다.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평신도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 '사랑의 문화'를 가꾸어가는 일에 앞장설 것을
다짐합니다.

평신도는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아 복음의 정신으로 스스로의 임무를 수행하며
마치 누룩과도 같이 내부로부터 세계 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이며
특히 믿음과 사랑과 사랑에 빛나는 실생활의 증거로써
이웃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소공동체 운동을 통한 새로운 복음화와 무너져가는 이 사회의 도덕성 회복,
도농간 나눔과 연대를 통한 농촌 살리기 운동과
창조 질서 보전을 위한 환경 보전활동, 민족의 참다운 화해와 일치를 위한 노력을 통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한국 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서울시 중구 명동 2가 1번지 가톨릭회관 5층 ☎ (02)777-2013 Fax. (02)778-7427

대만의 핵폐기물 북한 반입에 대한 우리의 견해

우리는 근간 대만의 핵폐기물을 북한이 반입키로 했다는 보도를 접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우리 한국 천주교 평신도들은 현재 북한의 핵폐기물을 저장할 기술적인 능력이 의문시될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강산을 후대에 물려주기 위해서도 이를 좌시할 수 없다는 뜻을 같이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만과 북한 당국은 핵폐기물 처리 협정을 즉각 파기할 것을 촉구한다.
2. 정부 당국과 정치 지도자들은 이의 저지를 위해 만반의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3. 우리 한국 천주교 평신도들은 이의 저지를 위해 국민운동에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

1997년 1월 25일

한국 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환경 선언문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극심한 위기의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오존층 파괴와 산성비로 인한 피해 그리고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산림의 훼손과 생물종들의 멸종 위기는 이미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 물의 오염으로 인류의 보금자리이자 하나뿐인 지구는 이제 인간의 맹목적인 탐욕과 오만을 꾸짖기라도 하듯이 반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 농약이나 공해물질에 찌들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마음놓고 먹을 수 있는 물은 또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온 지구환경의 파괴는 지금 이 시간 인류의 생존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만일 지금처럼 환경파괴가 계속된다면 하나뿐인 지구는 지금 까지 포용하고 있던 모든 생명을 거부할 것입니다.

지구환경의 위기는 도덕의 위기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곧 생명존중의 결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연환경은 이기적 욕심과 무모한 경제개발로 인해 희생되어 왔습니다. 발전과 복지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진 환경파괴는 결국 우리 인간 스스로를 파괴하는 근본적 요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의 위기에 직면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온전하게 보존하도록 맡겨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상기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 모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을 만드시어 지혜와 사랑으로 다스리도록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창조주의 계획을 거슬러 이를 무참히 파괴해 버렸고 지금도 그 파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지금 훼손된 자연을 하나님께서 “보시니 참 좋았다.” 하신 본래 상태대로 회복해야 할 엄숙한 숙제가 놓여있습니다.

다행히 오늘날 환경오염의 심각성과 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많은 이들의 공감 속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국 천주교회도 인간과 자연이 본래 형성하고 있던 조화를 되찾기 위한 운동을 다각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 성과는 미비하고 환경보호 의식은 교회 전반에 충분히 확산돼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평신도들은 하늘과 땅, 물 등 모든 자연을 공해와 오염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회복하는 데 적극 동참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은 실천운동을 선언합니다.

- 우리는 인간과 자연이 똑같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창조주의 뜻과 질서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생명을 존중하는 일에 앞장선다.
- 우리는 지금 나부터 환경보호를 시작해야 한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가정과 직장을 막론하고 언제 어디서나 환경을 보호하는 일을 생활 안에서 실천한다.
- 우리는 환경문제가 공동의 책임임을 명심하고 가족, 친지는 물론 이웃과 지역사회와 함께 실천운동을 전개한다.
- 우리는 환경파괴를 야기하는 기업의 사업이나 정부정책 등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이를 수정하도록 촉구하는 일에 앞장선다.

1996년 6월 2일, 한국 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공동선, 공동체, 사랑

지금 우리는 20세기의 마지막 해인 2000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때가 차자 하느님께서 당신 아드님을 보내시어 여자의 몸에서 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당신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얻게” 하신(갈라 4, 4-5) “주님의 은총의 해”(이사 61, 2; 루가 4, 19)가 시작된 지 머지않아 2000년이 된다. 교황 성하는 이 2000년을 대희년으로 선포하셨다. 구세주 강생 2000년의 이 대희년이 우리에게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오늘의 우리 세상은, 또 교회인 우리는, 어디에 와있으며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에 대해 생각해 보기 위해서, ‘2000년 대희년 주교특별위원회’가 펴낸 ‘대희년 길잡이’ 세 번째 자료 「희년의 실천적 구현과 미래」의 뒷부분 내용 중에서 발췌하였다. -편집자

인간 개발

15. 희년의 기쁨은 구세주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인간 회복과 사회 정의의 회복에서 오는 기쁨을 나누는 일이다. 그러므로 사회 개발이 또한 희년을 맞이 위한 우리의 실천 과제가 된다.

1995년 3월 코펜하겐에서 열린 유엔 주최 사회개발 정상회의(193개국 정부대표 중 118개국의 국가 원수가 참석)에서는 인간 권리와 자유, 경제 성장과 환경 보호, 그리고 모든 인간들의 복지는 서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충분한 인식이 있었다. 그러므로 사회 개발을 정치 경제적 관점에서만 보지 않고, 윤리와 정신적 관점까지 포함시켜서 인간 중심의 개발을 하겠다고 선언하였다. 그리고 각 나라는 이를 위해 정치와 국가적 정책을 세우고 정확한 실천 예정표를 만들어 목표를 이루기로 약속하였다. 이러한 세계적 운동은 이미 교회의 사회 가르침들이 중심 사상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은 여기에 적극 참여하고, 국가 차원에서 이것이 이행되는지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6. 사회 개발은 물질적 빈곤이나 저개발 극복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윤리적 정신적 빈

곤 타파에도 있다. 개발의 주역도 인간이고 개발되어야 하는 대상도 인간이다. “교회의 사명은 경제나 기술이나 정치 분야에 직접 작용하거나 물질로써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으로 인간의 양심을 깨우쳐서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인간답게 되는 것’을 백성들에게 제시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다”(교회의 선교 사명, 58항).

죄와 이기주의 그리고 집단주의나 전체주의적인 이데올로기의 영향으로 무디어진 양심 개발이 인간 발전의 방향이다. 같은 문종이고 동문이기 때문에, 또는 같은 지역인이라는 이유 하나로 양심의 결정이 내려진다면 이런 양심은 참으로 개발이 필요한 양심이다.

17. 교회가 말하는 개발 대상은 모든 사람, 모든 죄인이다. 사회 개발과 인간 발전을 부르짖는 자신도 다 포함된다. 모든 개인적인 죄는 어떤 식으로든 남에게 영향을 주므로 사회의 죄가 된다. 구조악이라고 하는 죄의 구조 뒤에도 언제나 전형적인 두 가지 개인의 죄가 도사리고 있다. 하나는 “이득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소모하는 욕망”이며 또 하나는 “자기의 의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부과시키려는 의도에서 나오

는 권력에 대한 욕망이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경제 또는 정치에서 비롯된 것처럼 보이는 결정의 배후에도 사실상의 우상 숭배들, 곧 돈, 이데올로기, 계급, 기술 공학에 대한 숭배를 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사회적 관심, 37항).

인간은 자기가 어떻게든 집착하고 있는 모든 것과 온갖 우상에서 벗어나려면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하느님 아버지께로 마음을 들어올려야 한다. 우리의 둘 심장을 살 심장으로 바꾸어주실(에제 36,26 참조) 하느님께 돌아가는 것이 양심 개발이고 인간 발전이며 자기 자신과 더불어 모든 것을 하느님 아버지께로 끌어올리는 것이 사회 개발이다. 희년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을 찾아나서신 하느님 아버지를 만나는 때이다.

화해와 연대성

18. 모든 인간이 하느님과 화해해야 하듯이 인간이 하는 모든 활동, 인간이 만든 모든 사회 조직도 하느님과 화해할 때에 자기들이 내세워 말한 대로 인간을 위해 참으로 봉사할 수 있다.

인간을 서로 엮어서 하나가 되게 할 뿐 아니라 인간을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죄의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혁명이 아니라 그 구조와 상반된 태도이다. 타인을 착취하는 대신에 이웃의 선익을 위해 온 힘을 다하고, 남을 위하여 “자기를 잃을 각오”를 해야 하는 것이다. 자기 이익을 위하여 남을 이용하는 대신에 그를 섬기는 것이다(마태 10,40-42; 20,25; 마르 10,42-45; 루가 22,25-27 참조).

모든 사람이 “이웃”으로 서로 만나서 사랑의

끈으로 엮어지는 것을 연대라고 한다. 연대성 안에서는 사람을 보는 시각이 다르다. 인간이란 단지 평등한 것만이 아니라 하느님 아버지의 살아있는 모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이들이며, 성령의 활동으로 하느님의 용서를 받아 살아있는 이들이다. 참된 연대 안에는 무한한 용서와 화해와 은총이 넘쳐 흐른다. 그리고 원수까지도 사랑한다. 모든 구조악을 이겨낼수 있는 것도 이 사랑의 연대로써 가능하다.

19. 우리 나라의 현실은 모든 분야에서 살벌한 경쟁을 조장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지 않더라도 국제 사회가 자유 시장 경제 체제로 되면 부를 위한 무분별한 경쟁이 더욱 심해질 것이다. 경쟁 사회에서는 사회 결속이 깨지고 따라서 소속감이 없어진다. 소속감이 없어지면서 사람들은 경제적 혜택을 받지 못하리라는 불안이 높아지고, 이들의 눈에는 도덕 같은 것이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된다. 따라서 경쟁 사회에서는 그들에 가려지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도시 빈민가와 농어촌 외진 곳에서 다른 사람들의 물질적 도움만이 아니라 자기들을 끌어안아 줄 사람들을 찾게 된다.

우리 주위에 어떤 모습으로든 소외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희년을 맞이 위해 교회는 아흔아홉의 양을 들판에 두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나서는 자세가 필요하다.

사랑의 공동체

20. 교회가 그 시작에서부터 세상 끝까지 하느님께서 이 세상 안에 현존하고 계신다는 표지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사랑의 공동체이

다. 모든 사람이 함께 기도하고 성찬의 예를 거행하고, 자기 소유를 모두 내놓아 서로 나누는 것이다. 각자가 가진 물질적 재화뿐 아니라 지적이고 영적인 모든 재화를 사랑과 겸손으로 나누면 하나님의 축복으로 더욱 풍요로워진다.

공동체는 언제나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공동선을 지향하기 때문에 하느님의 생명이 넘쳐 흐른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이 공동체에 참여하여 함께 살고 일함으로써 공동체만이 아니라 개인들도 개발되고 성숙하여 완전성에 이르게 된다. 대형화된 대도시 본당만이 아니라 시골의 작은 본당이나 공소에 이르기까지 참된 사랑의 공동체 형성이 곧 복음화를 위한 지름길이 될 수 있다.

가정 공동체

21. 공동체 중 가장 기초가 되는 가정은 생명의 성역이요 작은 교회이다(교회현장, 11항 참조). 어린이들이 가정 안에서부터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 경험이 없이 자라게 되면 장차 사회악 또는 구조악에 대항할 힘도 없어진다.

우리 나라에도 이혼율이 높아가고 있다는 것은 가정의 소중함보다는 자기만을 생각하는 개인주의와 자유주의의 사조 때문이다. 젊은이들 가운데는 혼인을 행복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혼인생활이 시련을 통하여 복된 가정이 된다는 것을 잊고 있는 이들이 많다.

교회에서도 참된 행복이란 복된 것이라고 한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신 행복은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행복과는 거리가 멀다. '가난한 사람', '슬퍼하는 사람',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모두 '하늘나라를 차지할 사람'이고 하느님의 '위로를 받을 사람'이며, '받을 큰 상이 하

늘에 마련되어 있는 사람'들이기에 진실로 복된 이들이다.

본당 공동체

22. 본당은 지역 사회 안에 영적 힘을 불어 넣는 곳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본당의 활동이 지역 사회를 위한 복지 활동의 센터의 구실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스도께서 하느님과 인류의 통교를 위해 십자가에 희생하셨듯이 본당도 지역민들의 통교를 위한 중심 구실을 해야 한다. 많이 가진 이와 적게 가진 이들이 어울리고 사회 계층의 담을 허물어 서로 왕래할 수 있는 '길'의 구실을 해야 한다.

본당 공동체 안에서 소외되는 이들이 없도록 해야 하겠지만 오늘날 냉담자들이 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교회가 깊이 반성해야겠다. 이들이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까지 냉담한 이들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쉬고 있는 것은 그들 나름의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우리의 편견과 오만, 불화와 냉대, 시기심으로 해서 그들이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에 걸림돌이 된 경우도 많았을 것이다. 먼저 우리들이 반성하고 겸손과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야 한다. 하느님께 나아가고 있는 이 공동체에서 어느 누구도 외톨이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

민족 공동체

23. 한국의 천주교 신자는 전체 인구에 견주어 10%를 넘지 못하고 있다. 하느님의 복음은 우리 신자들만의 것이 아니다. 복음 선교 활동은 신앙인들의 신앙이 얼마나 살아있는 것인지 보여주는 가장 좋은 평가 기준이 된다. 우리 국민이 모두 진리와 사랑을 향한 공동체에 참여하도록 하자.

우리 나라 통일을 위한 교회의 자세는 언제나 사랑의 논리에 바탕을 둔 사랑의 공동체 형성이다. 현재 교회 안에서 민족 화해와 화합을 위한 갖가지 운동이 일어나는 것은 좋은 일이다. 분단이 현실이듯 통일을 위한 모든 노력도 현실적인 일이다. 통일을 위한 활동은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통일을 위한 정치 외교 그리고 경제 활동만이 현실적인 것이 아니다. 정치 경제 활동이 현실적인 것이라면 사랑 운동도 현실적인 것이다. 화해와 용서는 인간 관계를 더욱 현실적인 것이 되게 하듯 화해와 용서로 이루어지는 통일운동도 현실적인 것이다. 이 통일을 위해 우리는 겸손과 인내로 온유한 마음을 잃지 않는 자세로 용기있게 대처하면서 하느님 사랑의 힘을 믿어야 한다.

인류 공동체

24. 한국교회의 사제 성소와 수도자 성소의 증가는 세계 교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현 교황님을 비롯한 교회 지도자들은 한국에서의 성소 증가 추세를 세계 교회를 위한 한국 교회의 소명이라고 본다. 한국 교회가 아시아는 물론 세계를 향해 선교활동을 넓혀 나가야 할 시점에 와있다고 본다. '받는 교회'에서 '주는 교회'로 바뀌고 있는 한국교회는 인류 공동체를 위해 봉사하는 교회로 성장해야 한다.

아들이나 딸 하나만 낳고 인생을 즐기겠다는 부모들의 태도도 바뀌어야 한다. 하나뿐인 자녀를 자기만의 소유로 생각하고 너무 집착한 나머지 그들이 사제나 수도자의 길을 가는 것을 막아서는 안된다. 자기 자녀들이 자신을 떠나 하느님과 인류를 위한 사랑의 봉사에 헌신한다는 것은 참으로 고귀한 일이고, 부모로서도 가장 훌륭하게 자기 자녀를 양육한 결과이

며 하느님에게서 축복받는 복된 사람이 되는 길이다.

타종교 형제들과 대화

25. 하느님의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느님의 말씀은 곧 진리 자체이다. 그러므로 진리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인간 곧 하느님이시고 사람이신 분이다. 그분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시지만 또한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이 '진리'는 우리를 무한히 초월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를 소유하기보다는 진리 안에 산다는 표현이 적절하다. 우리는 모두 진리를 자기 것으로 만들기보다는 진리 안에 살고자 한다. 그래서 진리 안에 살고자 하는 타종교인들을 환영하고 존경한다.

우리는 타종교 형제들과 대화하는 것이 교회의 선교 의무를 감소시키거나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 더 강화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문화의 복음화

26.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믿음과 희망과 사랑의 삶이 우리의 문화가 되어야 한다. 하느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말과 우리 문화로 전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신자인 우리 자신이 먼저 그리스도교적 신앙 체험을 깊게 해야 하고 전통 문화에 대한 이해도 깊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체험이 공동체 전체의 체험으로 깊어질 때에 그리스도교의 토착화가 가능해진다.

토착화 작업은 신자인 우리 자신이 하느님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참모습을 밝히 드러냄으

로써 가능하다. 하느님의 말씀은 외부에서 우리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부터 인간 자신의 참모습을 드러내 주는 빛이다. 모든 인간이 진리와 선을 추구하고 하느님을 알게 모르게 찾는 그 내면의 본성은 곧 하느님 모상으로서 갖는 인간 본성이다. 문화의 복음화와 그리스도교 신앙의 내면화와 심화는 결국 같이 간다. 복음화된 인간이 문화를 복음화할 수 있고 자기 문화로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다.

역사의 주님이신 예수님

27. 이 세상을 승리자로 보는 사람들도 있다. 시간을 절대적인 것으로 여겨, 역사가 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에게는 역사란 영원히 회전하는 것이며, 이러한 역사가 모든 것을 심판하고 결정한다고 생각한다. 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개인은 아무 힘이 없으며 역사의 대세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역사란 인간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이 양 극단의 사람들은 모두 하느님 현존을 잊고 역사 자체만을 우상화하거나 인간의 능력만을 우상화하는 것으로 결국 같은 맥락에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세상 구원을 위해 세우신 범주들은 신앙과 불신앙, 은총과 범죄, 죄와 구원이다. 이것들은 모두 세상을 이긴 예수 그리스도의 강생과 죽음과 부활에서 이끌어낸 범주들이다. 시간도 시작이 있었고 창조되었고 구원된 실재(實在)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간의 주님이시고, 우주의 주님이시자 역사의 주님이시다”(제삼천년기, 9.10항). 시간은 정해진 것이며 역사는 예측할 수 없는 것이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역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결론: 자유를 주는 신앙

28. 교회가 너무 세속적인 기준이나 정신을 따라간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교회가 세상과 너무 동떨어져서 자기 삶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화를 낸다. 그런가 하면 교회가 너무 제도화되어서 인간 자유를 제한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러나 인간이 자유를 추구하는 모든 부르짖음은 구원에 대한 인간의 갈망이며, 소외되고 구원되지 못한 자기 감정을 밖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인간 안에 원래 자유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자유에 대한 갈망 자체가 있겠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도덕적 규범은 우리 외부에 있지 않고 내부에 있다. 하느님의 말씀은 진리의 빛으로서 우리 안에 감추어진 우리의 참모습을 들어낸다. 진리인 말씀은 외부에서 우리를 옴아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우리의 참모습인 하느님 모상을 살려냄으로써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인간적인 것들로 가려져 있던 하느님의 모상이 참된 진리의 빛을 받아 되살아날 때에 우리는 자유를 누리게 된다.

교회의 쇠신도 마찬가지이다. 그리스도교의 본질은 그리스도 당신이다. 교회는 인간적인 것들로 가려져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 교회의 신앙이요 살아계신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해야 한다. 교회가 요구하는 근본적인 자기 혁신은 신앙의 행위이다. 신앙은 모든 한계를 넘어 무한으로 우리를 해방시킨다. 인간은 과학의 힘으로 우주 공간을 날고 달로 여행하지만 자

기의 실제적인 한계는 넘지 못하고 언제나 제 자리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 역사의 주님이신 분을 통하여 하느님 아버지께로 나아간다.

29. 나자렛 예수님께서서는 이 우주 안에서 결정적인 하느님 말씀의 현현이시다. 그리스도께서는 길을 아셨고 길 자체이시다. 예수님께서서는 최고의 스승이시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모든 인류의 유일한 길이고 구세주이시다. 그리스도께서는 말로만 선포되실 분이 아니라, 도덕적 모범이나 사회 정의의 모범을 넘어서 구체적이고 인격적인 실재(實在)로서 모든 이에게 삶의 의미와 의의를 주시는 분이고 그 목적이시다.

우리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근본적인 결단을 내려야 한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듣기를 원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꼭 들을 필요가 있는 것을 말씀하신다. 지상의 윤리 도덕 선생은 인간의 마음에서 나온 것을 우리에게 주지만 하늘에서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은 적도 없으며, 사람의 마음속에 떠오른 적도 없는 것”(1고린 2.9)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우리는 이 말씀과 타협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세상과 타협해서도 안된다. 세상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예수님께서도 그와 타협하지 않았기에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다른 선택은 없다. 그러니 다른 결과도 기대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희망을 갖는다. 세상에서 버림받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승리를 보장하셨기 때문이다.

‘사랑’을 신뢰하자

30. 사랑은 그리스도교 신자됨의 영혼이고 그리스도교적 모든 덕행의 심장이다. 사랑이 없는 정의는 율법주의이고, 사랑이 없는 신앙은 이념이고, 사랑이 없는 희망은 자기중심주의가 되고, 사랑이 없는 용서는 자기 비하이 고, 사랑이 없는 용기는 무모함이고, 사랑이 없는 너그러움은 자기 과시이고, 사랑이 없는 돌봄은 단순한 의무가 되고, 사랑이 없는 성실성은 종의 근성을 갖게 된다. 모든 덕행은 사랑의 다른 표현이다.

31. 자연 또는 본성은 자기 자신의 완전성은 없고 사랑의 맥락 속에서 가장 고귀한 품위에 오를 수 있다. 필요한 것은 오직 사랑이다.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나오는 사랑이다(1요한 4.7-12 참조). 사랑은 하느님의 본성이자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아니다. 인간의 대답은 언제나 “조금만 더 노력해라.”이지만 하느님의 대답은 “신뢰하라.”이다. 하느님 사랑을 신뢰하는 신앙이 하느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열어준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기쁨의 사람, 희망의 사람, 존재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인정하는 사람, 창조자의 가치와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은 사람이다”(요한 바오로 2세, 희망의 문턱을 넘어, 3).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2베드 3.13)을 바라보면서 “악에게 굴복하지 않고 선으로써 악을 이겨내는” 사람이다(로마 12.21; 루가 6.27-36 참조).
<대희년 길잡이 3 「희년의 실천적 구현과 미래」에서 발췌>

교회의 공식 용어

주교회의 산하 천주교용어위원회(위원장 박정일 주교)는 교회의 공식 용어의 혼용 또는 임의 변경으로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용어들을 심의 통합하고, 교회의 공용어를 확정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전례학자, 성서학자, 국문학자 들로 구성된 용어위원회의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주교회의 총회에서 최종 심의하여 용어를 하나하나 확정해 오고 있다. 1991년부터 그 동안 주교회의에서 심의한 교회의 공식 용어 가운데, 우리 주위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용어들을 뽑아보았다. -편집자

천주, 하느님

두 용어를 병행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성령

성신 대신에 성령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삼위일체의 제3위격을 뜻하는 Spiritus Sanctus는 '하느님' [神]의 열, 숨, 입김, 바람과 영을 뜻하는 성서 용어를 가장 적절하게 나타내는 동적인 우리 말 '성령'으로 통일하기로 하였다. 성부도 성자도 '神'이신데 제3위격만을 '聖神'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위격 명칭에서 조화를 잃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神이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교황(敎皇)

교황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과거 한국 교회의 모든 전례서에서 '교종'이라는 말을 사용하여 왔고 일제 식민 지배의 영향으로 '교황'이라는 말이 생겨났으므로 신앙의 봉사자가 아닌 봉건 군주적인 이미지를 지닌 '교황' 대신에 '교종'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일부 견해가 있으나 이는 실제로 설득력이 약

하다고 판단하여, '교황'이라는 말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한국 교회에서는 처음에 '교화황' (敎化皇)이라는 말을 사용하였고, 그 후 '교황'과 '교종'을 혼용해 오다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교황"으로 통일해 쓰고 있다. '종' (宗) 또한 황제들의 이름에 붙이는 군주적인 이미지를 지니고 있으며, 고대의 어원으로 거슬러 올라갈 경우 중국 삼황 오제 시대의 황인(皇人)은 전제 군주가 아니라 사람들이 선출한 지도자이므로 좋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교황'이라는 말이 틀리거나 나쁜 이미지를 지닌 용어가 아닐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물론 일반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용어이므로 이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평신도

평신도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교회법전에서 사용되는 것처럼, 교계제도 안에서 신분의 구별과 개념상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할 때에, '평신도'라는 말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신자" 또는 "신도"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폭넓게 사용되고 있으나, 그 개념이 성직자를 비롯한 모든 그리스도 신자를 포

괄적으로 나타내기 때문이다.

선교, 전교

용어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수용하여, 이들을 병행하여 계속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복음화’ (Evangelization)는 폭넓은 의미로 사용하기로 하고, ‘선교’ (Mission)와 ‘전교’는 병행하여 사용하기로 하였다. ‘선교’는 적극적인 복음 전파로서 그 대상이 폭넓은 느낌을 주는 말이고 ‘전교’는 그 대상이 개인적이라는 어감을 지니고 있으나, 그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경우 전교 단체 등의 고유명사가 많아 혼란의 여지가 있다고 보아, 두 용어를 병행 사용하기로 한 것이다.

포교(Propagation of the Faith)

용어 자체는 폐기시키지 않고 그대로 두기로 하였다.

(주교회의 총회는 역사적 사조의 변화에 따라 그 사용이 부적합하게 보여지는 용어라 하더라도, 용어 자체는 폐기시키지 않고 그대로 존속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합의하였다.)

부주교, 보좌주교, 보좌신부

용어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수용하여 계속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교구장 계승권을 지닌 ‘부주교’와 ‘총대리’ (Vicarius Generalis)의 역할과 임무 등에 대한 개념 정립(운영 방침 포함)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본다.

주일학교

‘주일학교’가 일부 본당에서는 토요일에 실시되고 있으므로, 그 교육 내용에 따라 ‘교리

학교’, ‘성서학교’, ‘신앙학교’ 등으로 그 용어를 바꾸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교회 안에 이미 ‘주일학교’라는 용어가 완전히 정착되어 있으므로, 이를 계속 사용하기로 하였다.

강론, 설교

Praedicatio는 ‘복음 선포’라 하고, 전례 안에서 이루어지는 Homilia는 ‘강론’이라고 하되, 다른 경우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의미로 ‘설교’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의하였다.

봉헌, 봉헌식

성당 등의 ‘Dedicatio’와 ‘축성’ (Consecratio)을 구별하여 ‘봉헌’, ‘봉헌식’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또한 ‘축성’이라는 말을 위 9항의 ‘축복’과 명확하게 구별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성전 축성식’이라는 말은 ‘성당 봉헌식’으로, ‘성수 축성’은 ‘성수 축복’으로 바꾸어져야 한다.

대사, 면죄부, 대사부

‘대사’ (大赦)라는 용어가 교회 내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일반 교과서 등에서 ‘면죄부’라고 사용되고 있어, 이를 분명히 밝혀두기로 하였다. ‘면죄부’는 분명히 잘못된 용어이고, 일본에서도 ‘면죄부’를 오역이라고 지적하고 있으며, 중국에서도 ‘대사’로 쓰고 있으므로, 우리도 ‘대사’라는 말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다. ‘Letter of Indulgence’도 ‘대사부’가 아닌 ‘대사’로 쓰기로 하였다.

천주교, 가톨릭

두 용어를 병행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성서, 성경

‘성서’를 주로 사용하되, ‘성경’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합의하였다.

교회 음악, 성음악

원칙적으로 “성음악”, “전례 음악”, “종교 음악”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되, 사안에 따라 “성음악”, “전례 음악”, “종교 음악”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그리스도교,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기독교, 구교(구교우, 구교 집안), 신교

“기독교”는 “그리스도교”의 한자 음역을 줄여쓴 말이므로, 비록 프로테스탄트 교파를 지칭할 때라도 이를 피하고, “그리스도교”라는 용어를 쓰기로 하였다. “가톨릭”과 대비하여 갈라져나간 그리스도교 형제들을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되, 그들에 대한 예우가 필요한 때에는 “개신교”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구교” 또는 “신교”라는 말은 쓰지 않기로 하였다. 다만, “구교우” 또는 “구교우 집안”이라는 말은 여러 대째 내려오는 가톨릭 교우나 그 집안을 일컬어 쓴다.

유대인, 유대인, 유태인

야곱의 아들 “유다”에서 유래하는 용어들은 “유대인, 유다국, 유다 민족”으로 써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하므로, “유태인, 유대인”은 “유대인”으로 바꾸어 쓰기로 하였다.

예비신자, 예비자

“예비자”라는 말은 모든 일에서 준비를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포괄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으므로, 신자가 되려고 입교 준비를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정확한 용어인 “예비신자”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거주 미상자, 행불자(행방불명자), 거주불명자, 주거불명자

본당 사목과 공식 통계 등에서 사용하는 “행방불명자”라는 용어는 법률상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불명”이라는 말도 부정적인 인상을 주므로, “거주 미상자”로 하기로 하였다.

죽은이, 망인, 망자, 사망자

사목문서 등에서 사용하는 “망인”(망인대장 등)이라는 용어를 “죽은이”로 바꾸기로 하였다.

세례명, 본명

“본명”은 가장 정확한 표현인 “세례명”이라고 하되, “영명 축일” 등의 용어는 함께 사용하기로 하였다. “본명”이라는 말은 쓰지 않기로 하였다.

박해, 군난, 교난(Persecutio)

이미 정착된 “박해”라는 용어를 쓰기로 하고, 특정한 역사적 사건을 기술할 때에는 “교난”, “군난”과 같은 말도 함께 쓰기로 하였다.

금식제, 금육제, 단식, 절식, 대소제

(Ieiunium, Abstinencia)

단식, 절식 등은 일반적인 의미로 널리 쓰이고 있어, 참회 고행의 한 형태인 “대소제”라는 말을 Ieiunium은 “금식제”로, Abstinencia는 “금육제”로 바꾸기로 한 기존의 결정(1967년)을 재확인하였다.

공복재, 공심재

영성체 전에 적어도 한 시간 동안은 식음을 삼가야 하는 것(교회법 제919조)을 가리키는 말로 “공복재”(空腹齋)와 “공심재”를 둘 다 쓰기로 하였다.

재정담당, 당가, 관리국장, 재무, 재무담당, 경리, 경리담당(Oeconomus)

재무담당이라는 말은 그 조어법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재정담당”이라 하고, 해당 조직이나 기구의 직제에 따라 “담당”이라는 자리에 그 직위 등을 쓰기로 하였다(예 : 재정국장).

베드로 성금, 교황 헌금(Peter’s Pence)

영국에서 시작된 관행으로 본래 기부금 또는 세금의 성격을 띤 것이었으나 1534년에 끝났으며, 비오 9세 때 교황령 붕괴 이후 재정난 때문에 Peter’s Pence를 다시 인정하고, 라테라노 조약 이후 지역교회의 자발적인 헌금으로 이어졌다는 역사적인 배경에 따라, 이를 “베드로 성금”이라 하기로 하였다.

사도좌, 성좌, 교황청, 성청, 로마 교황청 (Sedes Apostolica, Sedes Sancta, Curia Romana)

국제사회에서 “사도좌”의 속칭으로 “성좌”라는 말을 써오던 관례를 존중하되, “성청”이라는 말을 쓰지 않기로 하고, “Curia Romana”는 “교황청”이라 하기로 하였다.

추기경회의, 추기원회의, 추기원 (Consistorium)

교회법전에서 “추기원회의”로 옮겼으나 현재의 추기경단은 추기원 시대의 상황과 다르므

로, 교회 안팎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추기경회의”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하고, 역사적인 기술에서는 “추기원회의”를 쓰기로 하였다.

부교구장 주교, 부주교, 협동주교 (Epsicopus Coadjutor)

“부주교”를 주교가 아닌 직위로 혼동할 수 있어, “부교구장 주교”라 하기로 하였다.

보편 사제직, 직무 사제직, 일반(공통) 사제직, 세례 사제직

“직무 사제직”에 대비되는 말로 모든 신자들이 세례로써 받는 사제직을 “보편 사제직”이라 하기로 하였다.

그리스도의 적, 거짓 그리스도, 반그리스도 (Antichristus)

“가그리스도”, “적그리스도”, “반그리스도” 등은 우리말 어법에 맞지 않으므로, “그리스도의 적” 또는 “거짓 그리스도”라 하기로 하였다.

강생, 육화, 체현, 구체화(Incarnatio)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가리키는 용어는 “강생”이라 하고 “육화”라는 말은 되도록 쓰지 않기로 하였으며, 일반적인 의미의 Incarnatio는 “체현”, “구체화”와 같은 말을 쓰기로 하였다.

종말, 세말, 완세, 말세(Eschaton)

Eschaton을 단수로 쓰면 궁극, 마지막,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하느님 자신을 가리키고, 복수로 Eschaton라 하면 종말 실재(천당, 지옥, 영원한 생명 등)와 종말 사건(재림, 심판

등)을 가리킨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미 왔지만 아직 오지 않은” Eschaton을 ‘세(世)자가 들어가는 말로 가리키면 그 의미를 축소시킬 수 있어 “종말”이라는 말을 쓰기로 하였다. “세말”이라는 말은 세상의 마지막이라는 뜻으로 쓸 수 있다.

교만, 인색, 음욕, 분노, 탐욕, 질투, 나태 (칠죄종)

“교오”는 “교만”으로, “간린”은 “인색”으로, “미색”은 “음욕”으로, “탐도”는 “탐욕”으로 “해태”는 “나태”로 바꾸기로 하고, “분노”와 “질투”는 그대로 쓰기로 하였다.

속죄, 보속, 보상, 대속

(Expiatio, Propitiatio, Satisfactio)

“죄를 기워 갚는다”는 뜻으로 십자가의 구속 회생을 가리키는 이 용어들을 검토한 다음, 그 개념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사용하기로 하였다.

Expiatio, Propitiatio : 속죄 (성전 개념)

Satisfactio, -substitutiva : 보상 또는 보속, 대리 보상 또는 대속 (법정 개념)

Redemptio : 대속, 대속물, 구속, 속량 (시장 개념)

Reconciliatio : 화해 (가정 개념)

대신덕, 향주덕(Virtus Theologica)

“믿음, 사랑, 사랑” 또는 “신덕, 망덕, 애덕”을 가리키는 “대신덕”, “향주덕”이라는 두 용어는 함께 쓰기로 하고, “주부덕”은 너무 어려운 말이고 “신학 삼덕”은 틀린 용어이므로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소리기도, 마음기도, 염경기도, 묵상기도·묵념기도(Vocal Prayer, Mental Prayer)

소리를 내어 하는 기도인 Vocal Prayer를 “소리기도”라 하고, 마음속으로 하는 기도인 Mental Prayer는 “마음기도”라 하기로 하였다.

목주, 로사리오, 매괴(Rosarium)

매괴는 해당화를 일컫고, 로사리오는 외국어이므로, 이전에 사용하던 “목주”라는 말을 계속 사용하기로 하였다. 또한 로사리오 성월은 “묵주기도 성월”이라 하기로 하였다.

혼인 합의, 혼인 동의

두 당사자의 혼인 의사가 합치하는 것을 가리키는 용어는 “합의”라는 말이 더 정확하므로, 새 교회법전의 번역에 따라 “혼인 합의”로 바꾸기로 하였다.

복음사가, 복음서 저자, 복음저자, 복음 기자(Evangelista)

“복음사가”, “복음서 저자”를 함께 사용하기로 하였다.

상존은총, 성화은총, 생명은총, 상존성총

(Gratia Habitualis)

주어진 은총으로 우연적이지만 본성처럼 된 “Gratia Habitualis”를 “상존은총”이라 하되 “늘있는 은총”, “언제나 은총”을 그 대안으로 쓸 수 있으며, 이를 설명하는 용어로서 “성화은총”, “생명은총” 등을 쓰기로 하였다.

산상설교, 산상수훈, 산상보훈, 산상복음

(Sermo in Monte)

Sermo in monte는 “산상설교”라 하기로

하였다.

행복 선언, 참 행복, 진복팔단, 참된 행복

(Beatitudines)

“진복팔단”(Beatitudines)이라는 말은 틀린 말이므로, 이를 “행복 선언”이라 하고, 그 내용은 “참 행복”이라 하기로 하였다.

학사, 신학생

“신학생”을 “학사”라 부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그냥 “신학생”이라고 하되, 일상적인 호칭은 신학교에서 연구해 보도록 하였다.

산아조절, 산아제한, 피임(Birth Control)

“산아제한”이라는 말은 그 자체가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과 어긋나는 것이므로, “산아조절”이라는 말을 쓰기로 하였다.

임신, 잉태, 수태, 수정(Praegnatio,

Conceptio; Fertilizatio; Inseminatio)

교회는 인간 생명의 시작을 수정의 순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Conceptio”를 “잉태”나 “수태”라 할 때는 오해의 위험이 있으므로, 인간 생명의 시작을 가리키는 말로 쓸 때에는 위 개념(胎)을 지닌 “잉태”나 “수태”라는 용어 대신에 “임신”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맨발 수도회, 선족 수도회(Discalceati)

“맨발 수도회”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독수자, 은수자, 수도자, 관상 수사

(Anachoreta; Eremita, Monachus)

수도생활의 변천에 대한 역사적 검토를 한 다음, anachoreta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으면

서도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각각 독수자의 삶의 형태를 따라 살아가는 수도자를 일컫는 말이므로 “독수자”로, “광야에 나간 사람”이라는 뜻의 eremita를 “은수자”로 하되, 이 둘을 구분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다같이 “은수자”로 쓰기로 하였다.

봉헌생활, 축성생활(Vita Consecrata)

“축성”(Consecrata)이라는 말이 우리 나라에서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이고 있지만, “하느님께 봉헌한다”는 “성별”(聖別)의 개념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는 데에다 실제 용례에도 “축복”(benedictio) 등의 용어와 혼동되고 있을 뿐 아니라 교회법전에서 수도생활을 “축성생활”로 번역하여 또 다른 혼동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수도생활은 본래 축성생활보다 봉헌생활에 더 가까운 것이라고 보아, 교회법전 번역 이전까지 수도생활을 일컫던 좋은 말인 “봉헌생활”이라는 용어를 다시 사용하기로 하였다.

축복, 강복

이 용어들은 용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교회의의 1992년 춘계 정기총회에서 다음과 같이 확정하였다. “축복”이라는 말을 ‘하느님께 복을 비는 것’과 ‘하느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이라는 두 가지 뜻으로 함께 사용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새 미사통상문에서는 “하느님께 복을 비는 것”만을 “축복”이라고 하였으므로, 이를 다시 논의하고, 두 가지 용어를 구분하여 “하느님께 복을 비는 것”만을 “축복”이라 하고 “하느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을 “강복”이라 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사제는 “축복”을 하고, 하느님께서 “강복하신다”(복을 내려주신다)고 하여야 한다.

입교 성사, 입문 성사 / 예비신자 환영식, 입교식

그리스도교 신자가 될 때에 받는 세례, 견진, 성체 성사들을 가리키는 말은 “입교 성사”라 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일반 본당에서 예비자 환영식을 흔히 “입교식”이라 부르는 관행은 잘못된 것이므로, 이 말은 “예비신자 환영식”으로 바꾸어 쓰기로 하였다.

성유, 기름, 축성 성유, 크리스마 성유, 미론

“크리스마”가 곧 기름이고 성유이므로 “크리스마 성유”라는 말은 잘못된 용어일 뿐 아니라 또 아무도 알아듣지 못할 말이며, 축성을 위하여 사용하는 성유가 곧 크리스마이므로, “크리스마 성유”를 “축성 성유”로 바꾸어 쓰기로 하였다. 따라서, 성유의 종류는 “축성 성유”, “병자 성유”, “예비신자 성유”이다. “세례 성유”라는 말은 “축성 성유”와 혼동할 가능성이 있어 쓰지 않기로 하였다.

특전미사

사목 지침서 제74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주일과 의무 축일 전날 오후 4시부터 집전하는 주일과 의무 축일의 미사를 가리키는 말로 “특전미사”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장엄미사, 대미사, 대례미사

축일의 등급과 관계없이, 장엄하게 거행하는 미사를 “장엄미사”라 하고, “대미사” 또는 “대례미사”라는 말은 쓰지 않기로 하였다.

공동집전미사, 공동미사, 합동미사(Missa concelebrata)

Missa concelebrata는 “공동집전미사”라

하고, 이를 “공동미사”, “합동미사”라고 부르지는 않기로 하였다.

합동지향미사

설이나 추석 때에 공통지향의 미사예물을 받고 거행하는 미사는 “합동지향미사”라 하기로 하였다.

교중미사, 회중미사, 중심미사(Missa pro populo)

Missa pro populo는 “교중미사”라는 용어를 계속 사용하기로 하였다. 또한 Missa pro populo는 “교우들과 함께 하는 미사”라 하고, 이를 “회중미사”라고 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제병, 면병, 빵, 밀떡(Hostia)

성체 축성을 전제로 한 빵이므로 “제병”이라는 용어를 쓰기로 하였다.

양형 영성체, 양형 성체, 양형 성찬

(Communio sub utraque specie)

“양형 영성체”라는 말을 쓰기로 하였다. “양형 성찬”은 언제나 양형으로 거행되는 것이어서 “Communio sub utraque specie”를 분명하게 지칭하는 데에는 부적절한 용어라고 보았다. “영성체”의 개념이, 비록 한쪽으로 치중되어 있더라도,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이므로, 이 용어에서 굳이 “성혈”이라는 개념을 드러낼 필요는 없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성체 분배자, 예외적 성체 분배자

사제와 부제는 모두 정상적인 성체 분배자이지만 이들을 성체 분배자라고 부르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예외적으로 성체 분배권을 받은 다른 이들을 “예외적”이라는 표현 없이 “성체 분배자”로 하기로 하였다.

복사, 봉사자(minister)

“봉사자”라는 말은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이고 있어, 미사 등 예절을 거행할 때에 주례를 도와 시종하는 사람이나 그 일을 가리키는 경우에는 “복사”라는 용어를 그대로 쓰기로 하였다.

발씻김 예식, 세족례

“세족례”는 일본에서 쓰는 용어이고(우리는 “탁족”이라는 말을 써왔다), “씻김”은 우리 나라에서 전통적으로 종교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말이므로, 세족례를 “발씻김 예식”이라는 말로 바꾸어 쓰기로 하였다.

고해사제, 청죄사제

(Confessor, Confessarius)

“Confessor, Confessarius”는 “고해사제”라 하기로 하였다.

말씀기도, 독서 기도(Officium Lectionis)

성무일도의 독서 기도를 “말씀기도”로 바꾸기로 하였다.

동정, 동정녀(Virginitas, Virgo)

Virgo가 반드시 여성을 지칭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동정녀”라 하고, 그 밖의 경우나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같이 동격으로 쓰이는 경우에는 “동정”이라 쓰기로 하였다.

주장이나 학설 또는 이론의 표기

(예 : 가현설, 가현론, Docetismus)

어떤 주장이나 학설 또는 이론에 이름을 붙일 때에, 정통 교리가 아니면 “—설”이라 하고, 정통 이론이면 “—론”이라 하기로 하였다.

성, 성녀(Sanctus, Sancta)

성인 이름 앞에 “성”, “성녀”로 남녀를 구분하여 표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을 검토하고, 성인의 이름을 구분하기 위하여 “성”, “성녀”를 그대로 쓰기로 하였다.

성당 명칭의 표기

성당 명칭의 표기 문제를 논의하고, 성당(건물 또는 장소)의 명칭은 “천주교 ○○동 성당”이라 표기하기로 하였다.

성당, 소성당, 경당

(Sacellum, Oratorium)

일반적으로 다 “성당”이라 하고, “성당”(ecclesia)과 법적 구분이 필요할 때에는 “경당”이라 하기로 하였다.

미사보, 미사포, 미사 수건

“미사 수건”은 “수건”이라는 말 자체에 문제가 있고 또 미사 중에 사제가 손을 닦는 데 쓰는 수건과 혼동할 수 있어, “미사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예수님 찬미,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

“찬미 예수”는 교우들이 전통적으로 써오던 인사말이긴 하지만 우리 어법에 맞지 않는 것이므로 “예수님 찬미”로 바꾸도록 하고, 현실적으로는 “예수님 찬미”, “찬미 예수님”을 함께 쓰기로 하였다.

목업은 무덤에서 들려오는 소리



박정순 루치아
가톨릭 문인회 회원

강을 끼고 우린 더는 멀리 다닐 줄 몰랐다. 한 달에 몇 번 해서 일년에 몇 십번 여러 해를 거기에서 거기 같은 곳을 달리면서도 전라의 여인의 모습으로 누운 푸른 북한강 줄기의 아름다움에 감탄했다. 서울 부근에 이런 강이 있다는 것에 무한정 감사하고 행복해 했다. 강줄기는 내 몸 속의 혈액과 같았다.

보는 그대로 신선한 힘을 실어다 주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산의 변화를 더 질게 그려내는 신묘한 솜씨에 나는 속속들이 탐닉해 들었다. 소란함, 물질 문명의 복잡함, 빠른 정보 경쟁의 현실에서 한걸음이라도 떠나면 완전히 퇴보하고 파멸하고 말 것 같은 불안한 서울에서 덕소만 지나면 놀랍게도 내 속의 내가 비로소 정말 살았다고 소리치기 시작했던 것이다. 시원한 강줄기, 고요 저 쪽이 영원의 길 같기도 했다.

환경이란 것이 우리의 마음, 영혼까지 이렇게 지배한다는 데 나는 잠시 속수무책이 되었다. 나는 하늘에 풍선을 띄워놓듯 나 자신을 바람에 날려 한 마리 새처럼 자연을 산책했다.

그 강줄기에는 내 아들 열살짜리를 데리고 물놀이 왔을 때 “엄마, 저 산은 중국 산 같애.” 하고 말했던 중국도 있고 아래는 진달래 피고 산위엔 흰 눈이 덮인 킬리만자로도 있다. 웬지 말없는 강 북쪽엔 과거의 긴 역사가 있는 것 같고 강 남쪽엔 현재와 미래가 흐르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렇게 다녔건만 다산의 묘가 있는 것을 안 것은 근래였다.

팔당 댐을 지나 고개 하나를 돌아드니 넓은 터에 궁궐처럼 기와를 얹어 잘 쌓아놓은 흰 돌담이 보였다. 그 안에 새로 구운 검은색 기와를 얹은 흰 벽의 집이 마치 검은 갓을 쓰고 하얀 도포를 입은 선비 같은 모습이었다. 담을 끼고 가니 태극을 그려놓은 붉은 대문이 있고 그 앞에 ‘정약용 선생의 묘’라는

안내 게시판이 있었다.

조선시대 실학의 대가란 나의 역사 지식 외에 놀라운 사실이 눈앞에 들어왔다. 신유박해 때 장기로 유배되었다 다시 황사영 백서사건으로 강진에서 18년간의 귀양살이를 했다는 사실에 나는 놀랐다. 그렇다면 그분은 천주교 신자이기 때문이다. 어쨌든 궁금증은 접어두고 안으로 들어가 옛 양반의 집인 그분의 생가를 구경하고 사당도 보고 그분의 묘소로 올라갔다.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난다는 양수리 안쪽 강이 넓은 호수처럼 품에 안겨들었다. 그 너머로 굽이굽이 낮은 산줄기가 흐르고 가운데 천진암이 있다는 앵자산이 우뚝 서 가슴을 활짝 편 채 내려다보고 있었다.

강을 끼고 들어올 때의 여인의 아리따운 모습과는 달리 장엄한 풍경에 압도되었다. 아! 이런 곳에 살았으니까 다산이 그 덕망과 학식을 날렸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인간 본연의 고향에 와 있는 것 같았다. 집에 돌아와서 궁금증에 가톨릭 사전을 찾아보니, 진주목사 정재원 4형제 중 막내였고, 둘째가 초창기 교회 활동을 한 정약전이고, 셋째가 교회에서 유명한 정약종이었다. 그리고 북경에 아홉 번이나 다니면서 신부 영입에 맹활약을 하였던 정하상 성인이 바로 그의 아들이었다. 성녀 유 체칠리아는 바로 그의 부인이며 정하상의 어머니고, 성녀 정정혜 엘리사벳은 그의 딸이며 정하상의 누이동생이었다. 놀라운 일이었다.

나는 이상한 두려움 같은 것을 느꼈고 나를 사로잡는 호기심을 어찌지 못해 밤새도록 책을 뒤졌다. 점점 더 기가 막힌 일들이 발견됐다. 북경에 가서 최초로 세례를 받고 돌아와 복음을 전파하고 가정 직제도를 세웠던 이승훈 베드로도 그 4형제의 맏부였고, 초창기 교회를 창설한 광암 이벽 요한 세자는

첫째 정약현의 처남이었다. 열여섯에 과거에 급제해서 임금과 악수하고 그 손목에 붉은 비단을 감고 다녔다던 황사영은 정약현의 사위며 정란주의 남편이었다. 제사문제로 첫번째 박해를 받아 순교한 윤지충은 그들의 외삼촌이었다. 이벽, 이승훈과 함께 초창기 교회 삼대 창설자인 권일신과 그의 형 권철신은 그들의 스승이었다. 그 외에도 이 집안을 중심으로 하여 수많은 일가 친척들이 얽혀 마재에서 신앙의 모종을 냈던 것이다.

마재는 실로 우리 나라 첫번째 성지요 가장 큰 성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학문의 텃밭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 신앙의 싹이 틈 곳이라 할 수 있겠다.

우리 부부는 구교우 천주교 신자로서 지금까지 이러한 지역을 이토록 몰랐다는 데 부끄러움을 느꼈다. 역사에 대한 부족한 지식과 잘못된 사고, 무관심 탓인 것 같다. 우리는 일제말 6·25 세대들로서 한국 역사를 잘 몰랐고, 역사란 그저 과거에 흘러가 버린 세월로만 생각했다. 그러나 유행이 돌고 돌듯이 역사도 그렇다. 그 시대에 없는 것, 그 시대에 절박한 것, 그 시대에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시대의 성인 성녀 순교자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여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아낌없이 버렸고, 오늘날 우리들은 무엇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일까. 사실 잘 모르는 것 같다.

순교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몇 백년 전에 신앙을 지켜 예수를 증거하고 목숨 바쳐 죽은 존경할 만한 사람들로 치부해 두고 있었을 뿐 우리 생활과는 별 상관 없는 죽은 사람들로 생각했다. 기껏해야 일년에 한두 번 순교지를 찾아가는 것으로 할일을 다했다 싶었다. 그 순교지에서 누가 순교했고 신앙을 어떻게 지키다 순교했는지 그런 것에는 별 관심도 없었다. 가는 차 안에서 의례적으로 하는 성지 소개는 뒷걸에 흘려버리고 목주기도 고통의 신비 다섯 단

조용히 바치고 도착하면, 햇볕이 따가워서 반은 졸면서 듣다가 끔찍한 고문과 흉악한 처형 방법이 들리면 몸서리치다가 그 무서운 형벌을 어떻게 견디며 신앙을 지켰을까 의문도 하고 숙연해지다 지금 신자가 된 것을 아주 다행으로 여기다 일어섰다. 그리고 잔뜩 해가지고 간 고기와 수박으로 배불리 먹고 한바퀴 휘돌아서 십자가의 길 바치면 끝이었다.

돌아서 관광버스 타고 나오자 마자 해방된 듯 성지 무덤을 향해 놀리듯 엉덩이 빼내고 휘두르며 술과 노래로 진탕 돌아보자. 풍작풍작 마이크 췌소리 귀 멍멍하게 틀고 버스와 함께 쓰러지듯 춤추면 지나가던 승용차를 구경난듯 얼굴 빼내 돌리고 입 삐죽 히죽 웃는 인사 아랑곳하지 않고 기분냈다. 평생 한번도 돌아보지 못한 사람처럼, 온갖 스트레스 다 받아 풀어버려야 하는 사람처럼 흔들었다. 아니면 순교자가 그렇게 죽어준 덕에 오늘날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감사해서 절로 춤이 나왔는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순교자와 우린 그런 여행 절차를 밟고 그런 관계에 지나지 않았다. 하긴 산 사람과 사랑한다는 사람하고도 일치하는 마음을 별로 가져본 적이 없는 우리로서 어쩔 것인가?

그래도 혈맥과도 같은 이 강, 내 본고향에 온 것 같은 이 강가에 오면 내 영혼은 영원을 응시하게 된다.

그후 우리 부부는 이곳에 관심을 갖고 다니다 이곳 순교자들의 후예인 정 회장을 만났다.

팔당 댐을 막아 호수처럼 넓어진 마재 앞강에 얼음이 아직도 녹지 않아 벼서거리고 있던 봄이었다. 해미가 뿌옇게 낀 하늘에 꽃샘바람이 휘젓고 있었다. 바람머리들이 강 건너 우뚝 솟은 양자산 가슴팍을 휘돌아와 파랗게 물오르기 시작한 나뭇가지들을 마구 흔들어대고 있었다.

정 회장은 반백의 머리를 훑날리며 양자산 바람들을 응시하고 있었다. 수많은 바람머리들이 날아

다니며 일어나라 일어나라 소리지르는 것을 듣고 있었다. 그 수많은 바람머리들은 한 순교자의 머리였다.

“일어나야지요.”

그가 대답하듯 중얼거렸다.

“어디로 가시게요?”

멋모르는 나는 내 가슴으로 내 입 속으로 뛰어들어 간지럽히며 장난치는 바람 때문에 숨이 찼지만 즐거워하다 물었다.

“예? 아, 아닙니다.”

그는 멧쩍은 듯이 웃었다.

나는 좀 이상했지만 즐거운 바람 때문에 별로 개의치 않았다.

“아이 바람이 향그럽네요.”

추위 옷을 감싸고 몸을 움츠리면서도 얼굴을 빚내며 들뜬 소리를 냈다.

“예, 바람머리들이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러네요.”

그분은 무언가 취한 듯 먼 곳을 응시한 채 어린아이처럼 활짝 웃으며 혼잣소리처럼 말했다.

“예?”

나는 또 의아해 하다 곧 그분의 상상력이 짐작되는 것 같아

“그렇네요.”

하고 대답했다. 그러자 그는 늘 친한 친구에게 하듯 이야기를 시작했다.

“저기 팔당 왼쪽에 낮은 산계곡이 보이죠. 그곳이 배알미 정약중 어른의 무덤이죠. 성인 정하상 어른의 아버님 되시는 어른의 무덤인데 내가 어렸을 때 사람들은 밤중에 모여서 기도하고 목 없는 무덤, 무덤 하며 수군거렸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찾아가 기도하고 밝은 얼굴로 돌아오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하지만 어린 나는 목 없는 무덤 소리만 들으면 목 없는 시신이 일어나 나오는 것 같고 몸 없는

“반역죄인 정약종을 참수하라.”

포장의 우렁찬 소리가 하늘에 울려 퍼졌다.

약종, 그는 하늘을 보고 보이지 않는 미소를

머금은 채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는 “죽을 때 하늘을 우러러 보는 것이

땅을 보는 것보다 낫다.”고 말하고 하늘을 향했다.

머리만 커다랗게 눈을 뜨고 밤하늘로 날아다니는 것 같아 무서웠지요. 자라면서 그분이 영광스럽게 순교한 우리 조상이란 것을 알았고 그 믿음, 사랑, 용맹을 익히 들었을 때 반대로 그 무덤은 나에게 믿음을 일깨워주는 힘있는 머리로 날아오는 것이었죠.”

“아아! 그러셨군요.”

나는 좀 이상했던 그의 태도를 이해했고 새로 안 사실에 감탄했다.

“무덤을 파 천진암으로 이장하려고 노기남 주교님이 오셨을 때 내가 27살이었는데 그때 일을 잊을 수 없어요. 그곳에 세 분의 상이 있었는데 가운데가 어른의 묘라고 전해와 파보니 아니었어요. 이튿날 오른쪽 끝에서 어른의 시신이 나왔지요. 기도 가운데 지켜보고 있었는데 꽃향내가 나며 내 가슴이 뜨거워지더니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쏟아지는 게 아니겠소. 바람결에 물어오는 소리, 일어나라 일어나라 하는 소리가 내 가슴을 마구 두드렸죠. 사실 그때부터 나는 많이 변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됐죠. 약해질 때마다 그 소리를 찾아오죠. 아이들은 다 서울서 살면서 오라고 성화지만 서울 가면 그 소리를 들을 수 없어 신앙이 죽는 것 같고 내가 죽는 것 같아 여길 못 떠나죠. 특히 이맘때면 많은 자극을 받아요. 그분이 돌아간 때가 바람이 심한 이

맘때였거든요. 4월 8일이니까요.”

이렇게 말하며 그는 바람 때문에 흐린 하늘을 다시 물끄러미 바라보기 시작했다.

“반역죄인 정약종을 참수하라.”

포장의 우렁찬 소리가 하늘에 울려 퍼졌다.

약종, 그는 하늘을 보고 보이지 않는 미소를 머금은 채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날아오는 칼날이 무서워서 땅을 보고 목을 대기 싫었다. 나무토막에 목을 대고 땅을 보고 엎드려 칼을 받는 것이 사형수의 관습인데 “죽을 때 하늘을 우러러 보는 것이 땅을 보는 것보다 낫다.”고 말하고 하늘을 향했던 것이다. 이 세상 일을 끝내고 영혼을 하느님께 맡기는 순간 하느님의 얼굴 같은 하늘을 보고 싶었다. 그를 마주 바라보고 격려와 사랑의 미소를 잃지 않는 하느님의 얼굴을 향해 “저를 온전히 받아주소서.” 하는 봉헌의 기도를 바치자 두려움은 없었다. 고향 마재 앞강 같은 길은 평화가 흘렀다.

햇볕에 번쩍이는 칼날이 그의 목을 내리쳤다. 다음 순간 약종은 피흘리는 머리로 벌떡 일어나 앉았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호를 긋고 다시 펄쩍 누웠다. 그의 인품에 눌러 손을 덜덜 떨던 휘광이가 목을 반밖에 내려치지 못했던 것이었다. 몇 번이고 휘둘다 다시 내려친 칼에 약종은 순교의 목을 바쳤다. 그의 눈은 하늘을 올려보고 더

크게 뜨고 있었다. 휘광이는 그 눈이 자기를 집요하게 꿰뚫어 보며 힐책하다 다시 벌떡 머리를 들고 일어날 것 같아 머리를 쥐고 엎어놓았다.

1801년 3월 24일, 그가 말을 타고 고향 마재에 갔다 돌아오는 길에 의금부도사 일행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자기를 잡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싶어 하인을 시켜 알아보고 맞자 스스로 잡혀 서울 의금부로 압송된 후 보름 만의 일이었다.

그날 참수당한 사람은 그의 매부 이승훈, 그의 사돈 홍교만, 우리 나라 최초의 총회장 최창현과 최필공, 홍낙민, 모두 여섯 사람이었다. 오직 그만 국왕의 명을 어긴 불경죄, 천주교 금압정책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죄, 외국인 주문모 신부를 숨겨준 죄, 삼구(三仇), 즉 세 원수인 세상, 마귀, 육신과 싸워야 한다는 교의상 표현을 나라와 대적한다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리하여 반역 죄인으로 단죄했다. 참수형을 받고 모든 재산은 몰수됐다.

의금부에서는 정약종의 가족도 다 잡아 가뒀으나 술책으로 그의 큰아들 정철상 가솔로만은 잡아 가두지 않았다.

철상은 아버지와 약전, 약용 두 삼촌과 고모부 이승훈, 장인 홍교만을 찾아다니며 뒷바라지를 했다. 관리들은 때로 그가 보는 앞에서 아버지와 가족들을 더 혹독하게 형벌하면서 그에게 배교하고 주신부의 거처나 교인들의 이름을 알려주면 온 가족을 곧 풀어주겠다고 유혹했지만, 그는 침묵하고 신앙을 굳게 지켰다. 대답을 강요하면 그는 겸허하게 “천주는 우리를 만들어주신 어버이입니다. 어떻게 부모를 버리겠습니까? 여러분은 부모를 버릴 수 있습니까? 다른 것은 다 버려도 안됩니다.” 하면서 돈을 아끼지 않고 관리자들에게 쥐어주고 아버지와 가족을 잘 돌봐달라고 부탁했다.

그리하여 참수형이 내려진 날도 미리 알았고 그 날에 대비해서 만반의 준비를 다 해두었다. 마재 선

영에 무덤자리도 잡아 파두었다. 사형날은 관리들에게 돈을 더 두둑이 주어 칼을 잘 갈아 고통없이 목을 베어달라고 부탁하고 시신도 그 자리에서 넘겨받을 약속까지 받아두었다. 관리들도 스무 살 청년의 굳은 신앙과 효성에 모두 탄복했다.

서소문 처형장까지 따라가 아버지의 순교장면을 지켜본 철상은 슬픔 속에서도 말할 수 없는 감동에 사로잡혔다. 아버님은 꼭 예수님처럼 순교하셨다고 생각되었던 것이다. 준비해 둔 수레에 아버지와 장인의 시신까지 옮겼으나 아버지의 목은 내주지 않았다. 반역 죄인이었기 때문에 나라에 죽은 목을 확인시켜야 했다. 그는 할 수 없이 수레를 빨리 달려 선영에 파두었던 묘소에 두 분을 모시고 다시 돌아와 감옥으로 그의 계모와 배다른 동생들을 찾아갔다. 그는 가족 앞에 서자 다시 눈물이 쏟아져 눈물을 닦으면서 아버지의 죽음 장면을 알려주기 시작했다.

“아버님은 형장에 끌려나가면서도 얼굴은 밝게 빛나셨습니다. 가는 도중 목마르다고 물을 청하셨는데 호송원은 심하게 책망하였지만 예수님같이 온유한 모습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대로 순교하셨습니다. 형구 앞에서는...” 말을 더 잇지 못하고 침을 삼켰다. 어머니도 아이들도 눈물을 펄펄 쏟기 시작했다.

“그 형구를 무슨 귀한 물건이나 되듯이 행복하게 들여다보시고 주위 사람들에게 권하셨습니다. ‘사람이 나서 천주를 위하여 죽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큰 심판이 내리는 날엔 우리들의 눈물은 변하여 참된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오. 조금도 두려워 말고 당신네들도 뒤에 이것을 따라 실행하시오.’ 하고 권면했습니다.”

하늘을 향해 누워 첫번 맞은 칼에 피흘리며 벌떡 일어나 성호를 긋고 다시 누워 순교하시던 모습을 상세히 말했다. 그의 가족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는 잊혀지지 않을 장면으로 가슴 깊이 박혀 따라 실행하게 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는 다시 사형장으로 가서 아버지의 목을 찾으려 했다. 의금부에선 여섯 사람의 죽음으로 이용가치를 잃은 철상에게 더 이상 자유를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체포령을 내렸다.

그는 아버지가 죽은 날 잡히어 감옥에 들어갔고 그의 가족들은 아녀자들에 대한 후한 정책이 이뤄져 감옥에서 풀려났다. 감옥에서 나온 그들은 집도 모두 몰수당해 갈 곳이 없어 할 수 없이 마재 큰택으로 갔다. 둘째 약전, 막내 약용도 극형에 못이겨 마음에 없는 배교를 하고 귀양가서 집안은 침통하기만 했다.

거지가 되어 온 그들을 만형은 고향에서 내쫓지는 않았지만 집안에 들이지 않고 동네어귀에 방 두 칸을 마련해 주었다.

“천주교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했다. 배교를 하면 먹을 것을 대주겠지만 배교를 안하면 먹을 것을 조금도 주지 않겠다.”고 명했다. 그들은 굶주리면서도 배교를 허락하지 않았다. 일곱 살짜리 정하상도, 다섯 살짜리 정정혜도 굶어 죽어도 배교하면 안된다고 어머니를 따라 말했다. 유 체칠리아와 철상의 아내는 바느질품을 팔고 길쌈을 해서 먹고 살았다.

5월 14일은 철상이 아버지가 처형당한 바로 그 장소에서 처형당한 날이었다.

가족들이 그의 시신을 거둬 아버지의 무덤 옆에 장사지내는 중이었다. 유 체칠리아는 제대로 손질도 못한 남편의 황량한 무덤 앞에서 소리내 울지도 못했다.

생각할 능력조차 잃은 듯 멍했다. 몸과 맘이 텅 텅 빈 허수아비 같았다. 자신이 낳지는 않았지만 더 정성스럽게 길렀던 큰아들, 열 살부터 아버지에게 교리를 배워 순진하게 온 마음을 다해 하느님을 사랑했고 부모에게 효성 지극했던 큰아들 그도 물론

니 한푼의 재산도 집도 없고 이제 이 세상에서 의지할 데라곤 아무것도 없다. 있는 것은 맨손으로 돌봐야 할 다섯 아이들뿐, 시어버지와 친정아버지와 오빠, 남편까지 잃은 어린 며느리와 젓먹이는 정신을 가누지 못하고 있다. 다 시들어버린 풀잎 같아 보였다. “여보, 우리 식구 모두 차라리 당신 곁으로 갔으면 싶어요.” 체칠리아는 속으로 외쳤다.

그녀는 무덤에 쓰러져 비로소 소리내 울었다. 어머니의 울음소리에 따라 온 식구의 울음다발이 터졌다.

하늘나라에 간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인가? 원래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왜? 남편이 쓴 「주교요지」에 보면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아니 계신 데 없어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시며 돌봐주신다 했지 않은가. 그렇다면 이 고통은 무엇 때문인가? 우리를 미워하는 저 악한 사람들 때문이다. 그러니 싸워서 이겨야 한다. 그것도 예수님처럼 용서하며 남편이 죽을 때 한 것처럼 살아야 한다.

“여보, 울지 말고 그만 일어나시오. 일어나시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에서 무덤 속에 있는 남편의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체칠리아는 눈물을 삼켰다.

“애들아 그만 울자.”

“아버지의 무덤에, 형의 무덤에 절해라.”

아이들은 어머니의 말에 손등으로 눈물을 닦고 절을 하기 시작했다. 햇빛을 받고 절하는 아이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거지꼴을 했어도 푸른 하늘과 산속에서 바람에 나부끼고 있는 아이들이 모두 그냥 소중하고 아름답게 보였다. ‘저들의 백합화를 보라.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아름답다.’고 한 말씀이 맞는 것 같다. 방금 차라리 아이들과 함께 다 죽었으면 생각했던 것이 죄스러웠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

이 햇살을 가르고 마음속으로 쏟아져 내려왔다. 그래, 이 아름다운 세상 모든 것 만들어 주신 하느님 아버지가 먹여주고 입혀주시겠지.

“애들아, 아버지 말씀 잘 들어봐라.”

체칠리아는 마음속의 생각을 자신도 모르게 아이들에게 말했다.

“아버진 돌아가셔서 아무 말도 못하잖아요.”

다섯 살짜리 정혜가 새까만 눈망울을 반짝이며 낭랑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다. 잘 들어봐. 아버진 말씀하고 계시. 오빠도.”

애들은 모두 무덤에 귀를 바짝 대고 들으려 했다.

“아무 말도 안 들리는데.”

정혜가 얼굴을 들고 뽀루뽀해 했다.

“어머니! 어머니 말씀 잘 듣고 열심히 기도해라 그러시는 것 같아요.”

하상이 얼굴을 빛내고 어머니를 보고 말하며 그 말이 어머니 맘에 드는지 안 드는지 살피었다. 체칠리아는 어린 하상의 총명하고 속 깊은 말에 가슴이 뭉클해 오며 눈물이 솟았다. 하느님과 남편이 일러준 말이라 생각됐다. 체칠리아는 하상을 품에 꼭 안고 쓰다듬어 주었다. 그러다 팔을 벌려 어린 딸도 큰딸도 며느리도 손주도 다 끌어안고 머리에 얼굴을 대고 속삭였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셔. 아버지도 지켜주시고, 이 어린 불쌍한 것들 모두 하느님 당신께 맡기나이다. 삶도 죽음도 모두 당신의 손안에 있나이다. 모두 애들 아버지처럼 순교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인도하소서. 주의 기도 다 같이 하자. 하늘에 계신…”

기도가 끝나고 침묵 가운데 그녀는 그냥 그러고 있었다.

“여보! 일어나요. 그만 어서 일어나 가시오.”

그녀는 바람결에 들려오는 남편의 소리를 듣고

아이들을 감싼 손을 풀었다.

“애들아! 일어나거라. 가자.”

그녀는 일어나 다시 한번 남편의 무덤을 지켜보았다.

“여보!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항상 일어나시오.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시오.”

남편의 소리가 여전히 들려오고 있었다.

“성인 하상 어른도 이곳 고향에서 어린 시절을 땀받으면서 자주 저 무덤에 가서 묵상하고 기도하셨는데 늘 일어나라, 일어나라 하는 소리를 들으셨다고 해요.”

정 회장은 하늘에서 얼굴을 돌리며 여전히 어린 애처럼 그 천진한 미소를 띠며 다정히 말했다.

일어나라. 나는 그 말의 의미를 새겨보았다. 절망해도 다시 일어나면 희망, 가능과 성공을 가져온다. 미움과 분노에서 일어난다는 것은 사랑과 화해를 이룬다는 것이고, 불의와 악에서 일어난다는 것은 정의와 선을 행한다는 것이며, 죽었다 다시 일어나면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것이다. 일어난다는 말은 최상급인 것 같다. 동물 중에서도 일어서서 다니는 건 사람뿐 아닌가. 우리를 항상 일어서게 하는 것 그것을 무엇일까?

그것은 믿음이다.

11월 5일은 황사영이 백사사건으로 대역적 죄명을 받아 국사형을 당한 날이다. 목을 자른 후 시체를 여섯 토막 내는 형이었다.

황사영은 만형 정약현의 사위였다.

그는 열 살 좀 넘어 마재에 와서 정약종에게 학문을 배워 열여섯에 과거에 합격하여 정조 임금에게 칭송을 받은 천재였다. 그런 그가 젊은 나이 27세에 국사형을 받고, 정란주는 제주도를 귀양가고, 두 살난 아들은 추자도에 버려졌다.

정약현은 더 이상 천주교로 인해 가족이 죽는 것을 볼 수 없다고 몸부림쳤다. 체칠리아 가족들이 아

직도 신앙을 버리지 않고 숨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는 찾아와 천주교에 관한 물건이 있나 뒤져보고 야단을 쳤다. 그러자 하인들까지 그들을 보고 욕했다. 밤에도 마음놓고 외어서 가슴속에 감춰둔 기도조차 바치기 어려웠다. 속으로 중얼거리자니 아이들을 교육하기 어려웠다. 체칠리아와 철상의 아내는 바느질품을 팔고 길쌈을 하느라 힘들고 시간이 없어도 아이들을 데리고 자주 무덤을 찾았다. 무덤은 그녀에게 가장 좋은 교육의 장소였다. 마음 졸이지 않고 가슴 펴고 하느님과 아버지와 만나는 시간이었다.

생각하면 참 기막히고 우스운 일이었다. 이 세상을 만들고 우리를 만들어준 하느님을 찬양하는 데 사람들 눈치보고 두려워하다니 될 말이나 말이다. 세상은 놀랍게도 거꾸로 된 일이 너무 많은 것 같다. 그래도 하느님은 화도 안 나시는지 아무 말 없이 바보같이 참고만 계시다. 할 수 없이 우리도 참는 수밖에 없다.

“너희들은 큰아버님을 이해해야 한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전부 잃어서 괴로워 그러시는 게야. 그러나 우리가 제일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할 분은 누구냐?”

체칠리아는 질문함으로써 대답을 가르치고 있었다.

“하느님 아버지세요.”

하상을 지목하고 물은 말이었지만 대답도 늘 하상이 다했다.

“옳은 답이다. 그런데 왜 그래야 하지?”

“아버님 어머님도 우리를 만들어주신 아버지지만 하느님 아버지는 어머님 아버님도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들어주신 제일 큰아버지기 때문입니다.”

어린애다운 답변이었지만 확실한 교리답변이었다. 체칠리아는 그럴 때마다 흡족한 미소를 띠었다.

“그러니 너희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참고 말없이

견디어야 한다.”

“네에.”

아이들은 모두 합창하듯이 대답했다.

“너희들보다 더 고생하신 분들이 많다. 다른 사람들보다 부모에게서 받는 박해는 더 고통스러운거다. 그런데 너희들은 순교하신 부모와 형, 남편들을 두었으니 영광과 행복으로 알아야 한다. 너희 제일 큰어머니 오라버니 되시는 광암 이벽 어른께서는 임진왜란 때 공신인 이정함의 7대 후손인 대단한 명문이시다.

인조 임금의 청나라에 항복했을 때 볼모로 잡혀간 소현세자와 함께 8년 동안 북경에서 볼모살이를 하던 이경상이란 어른이 계셨단다. 소현세자가 돌아오실 때 북경에서 접한 천주교 책을 많이 가지고 오셨다더라. 그때 우리 나라가 천주교가 성했을텐데 세자가 오신 지 70일 만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끝이 났다. 그때 이경상 어른께서도 천주교 책 몇 권을 가지고 오셔서 가보로 내려왔는데, 바로 이벽 어른께서 그 책을 보고 천주교를 연구하시게 된거다.

그 진리가 유교와는 아주 달라서 모순됨이 없고 확실했거든. 그래서 바로 이 진리야말로 이 어지러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참된 진리라 믿고 조선 천주교를 창설하셨던 거다. 이때 함께 활약하신 분이 너의 아버님이시다. 둘째 삼촌도 함께하셨다. 양자산 주여사에 들어가셔서 10여 일 동안 연구하고 토론하셨다더라. 이벽 어른은 저 유명한 「천주 공경가」를 지었고 너희 아버님은 「십계명가」를 지어서 널리 퍼뜨렸지.

그런데 교리에 잘 모르는 것들이 많아서 너희 고모부이신 이승훈 어른을 북경 동지사 가는 길에 보내 공부하고 세례를 받고 많은 책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하셨다. 이때 너희 두 삼촌 약전·약용 어른과 이벽 어른, 권일신 어른들이 제일 먼저 세례를 받고 스스로 교회를 세워서 신부가

그는 침묵 가운데 오랫동안 앉아있었다.

무서운 강바람만이 그를 휘몰아쳤다.

“일어나 가거라. 서울로 가거라.

교회를 위해 참으로 몸바쳐 일할 일꾼이 필요하다.

너는 교회를 다시 재건시켜야 한다.”

되어 맹활동을 하셨다. 신부가 된 것은, 모르고 잘못된 것이어서 나중에 그만두었다.

그런데 천주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통문을 돌려서 그 부모 형제들이 아주 무섭게 반대를 하였다. 구원이 확실한 진리인 줄 아는데 부모님들이 목숨을 걸고 반대하니 그 고통이 오죽했겠나. 이벽 어른 아버지께서도 대들보에 목을 매달고 죽겠다고 야단하셨어.

부모와 나라, 진리 어떤 것을 버릴 수 있겠냐? 곤란하지. 그러니까 그분은 자기가 죽게 되기를 기원하셨어. 33살 예수님이 돌아가신 바로 그 나이에 병을 얻어 3일 만에 돌아가셨다. 예수님처럼 희생제물이 되신 게야. 너희 숙부님들도 견디다 못해 신앙을 감추고 귀양가시게 된 것 아니냐. 할아버님의 야단에도 너희 아버지만은 겸손한 침묵과 인내, 기도로 순교의 영광을 받게 된거다. 철상 형도 제사에 참여하라고 친척어른들이 송곳으로 무릎을 마구 찔러대도 믿음으로 참아받았다. 가족의 학대는 자기가 오히려 가족에게 고통을 준다는 이유 때문에 받는 마음의 아픔으로 더 괴롭다 하셨어. 그런데 너희들은 아버지와 형의 순교의 축복을 받고 있으니 얼마나 행복하냐. 그렇지 않느냐?”

체칠리아는 아이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유심히 살피보았다. 아이들은

“예, 어머니.”

마음을 다한 정성스런 대답을 하며 두 눈을 빛냈다.

마을에 유행병이 돌기 시작했다. 가난해서 잘 먹지도 못하고 일은 많고 어린것까지 팔려 있어 쇠약할 대로 쇠약한 철상의 아내가 병을 얻어 깊어지자 어린것도 병들어 결국 죽고 말았다.

원래 허약했던 체칠리아의 큰딸도 그 무렵에 죽었다. 한 무렵에 세 식구를 잃은 체칠리아는 또다시 실망에 빠졌다. 남편 순교 때와는 다른 큰 충격이었다. 다시는 실망할 일 없이 버릴 것 다 버리고 죽을 것 다 죽었다고 생각했었는데 아직도 고통을 두려워할 세속적인 것이 살아있었던 모양이다. 그것은 아니었다. 가난해서 잘 먹이지도 못하고 약도 쓰지 못하고 자신이 잘못해서 죽인 것 같아 죄책감이 사로잡았던 것이다. 무덤에 찾아가 기도를 해도 가슴을 할퀴는 그 고통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밤잠을 못 자고 뒤척이다 새벽녘에 잠이 혼건히 들었던 모양이다.

남편이 찾아왔다. 여러 가지 색깔의 꽃들이 화려하게 피어 있는 들판에 안개 같은 구름에 싸여 서 있었다. 미풍에 꽃들이 흔들거리고 짙은 향내가 퍼져나왔다. 그는 화평한 얼굴로 아내를 바라보았다.

“여보 너무 괴로워하지 말아요. 당신의 잘못이 아니요. 내가 천국에 방 여덟 있는 집을 하나 마련했는데 다섯은 벌써 차고 셋만 남았어요. 그러니 생활

의 끈궁함을 잘 참아 받으시오. 그리고 꼭 우리를 만나러 오시오.”

체칠리아는 깜짝 놀라 눈을 떴다. 아직도 캄캄한 밖에서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고 문풍지를 훑아대고 있었다.

사랑하는 남편을 갑자기 놓쳐버린 것 같은 허전하고 멍한 속에서 가슴을 할켜대던 통증이 희한하게 사라진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마음을 거머잡았다. 새 힘이 솟았다. 하느님도 남편도 자기를 버린 것이 아니라 고통이 심할수록 더 지키고 보살피고 사랑하고 있다는 확신이 섰다.

그녀는 벗지도 않고 잠들었던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허리띠를 졸라맸다. 잠들어 있는 남매의 얼굴을 살펴보며 하상의 머리를 쓸어주고 정혜의 뺨에 얼굴을 대었다.

“여보, 이 두 아이는 정말 잘 키우겠어요.”

그녀는 등잔불을 켜고 일감을 잡았다.

어머니에게서 꿈 이야기를 들은 하상은 기쁘면서도 크게 자극을 받았다. 그는 무덤을 찾아가 아버지 앞에 앉았다. 늘 자신의 속에서 끌어오르던 생각들을 다시 성찰하고 털어놓았다.

“아버지, 저는 무언가 더 배워야 하겠습니다. 한편의 종교서적도 갖지 못하고 다른 교우와 접촉도 전혀 없이 오직 어머니의 입으로부터 전수교육을 받으니 너무 부족함을 느낍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우물 안 개구리입니다.”

그는 침묵 가운데 오랫동안 앉아있었다. 무서운 강바람만이 그를 휘몰아쳤다.

“일어나 가거라. 서울로 가거라. 교회를 위해 참으로 몸바쳐 일할 일꾼이 필요하다. 이 교회를 이끌 어갈 지도자가 필요하다. 1801년 이후 목자 없는 교회가 풍전등화 같지 않느냐? 너는 교회를 다시 재건시켜야 한다.”

무덤에서 들려오는 아버지 목소리 같기도 하고

하늘에서 들려오는 하느님의 소리 같기도 하고 자신의 속에서 들려오는 자신의 소리 같기도 했다. 어쨌든 셋이 모두 일치한 소리였다. 그렇다면 더욱 좋고 꼭 해야 할 일이다.

“너는 이제 20세가 가깝지 않느냐? 천주교의 본분을 지키기 어려운 고향 큰집에 기대 천덕꾸러기 노릇이나 하기보다 참으로 필요한 하느님의 일꾼으로서 내 몫의 일을 해야 한다.”

큰집에서는 그를 결혼시켜 조용한 생활을 하게 하려 했다. 아직도 지체 높은 양반집에서 청혼이 이어 들어왔지만 그는 스스로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허락하지 않았다. 어쨌든 이곳을 떠나야 한다고 굳게 결심했다.

얼마 후 그는 서울로 올라갔다. 사촌 누이뻘 되는 조증이 발바라의 집에 머물면서 교우들과 접촉하며 신덕을 쌓고 책을 구해 공부에 열중했다. 그러나 그를 제대로 교육시켜 줄 만한 사람을 찾기가 어려웠다. 이때 그의 아버지 삼촌들과 이벽, 이승훈, 권철신과 함께 일한 양근 땅의 학문과 도덕을 함께 갖춘 유명한 교우 조동섬 아우구스티노가 신유박해 때 함경도 무산으로 귀양가 있다는 소식을 알아냈다.

그는 그분이야말로 바로 자신의 스승이 될 수 있다고 믿고 낮설고 험악한 천리길을 혼자서 찾아 떠났다. 외롭고 두려운 길이었다. 그 동안 고통을 통해 얻은 끈기로도 참으로 어려운 여행이었다. 고생 고생 끝에 찾아간 그를 조동섬은 진심으로 반갑게 맞아주었다.

아버지가 죽은 이래 처음 진심으로 사랑을 받아 본 느낌이었다. 몇 달 동안 그는 교리와 한문을 잘 가르쳐주었다. 그리고 서울로 돌아가 신자들을 깨우쳐주고 신부를 맞아들이라고 지도해 주었다. 곧 서울로 돌아온 그는 동지를 모았다. 우리 나라 두번째 동정부부이며 많은 자선사업을 하던 조동섬의 친척인 조명수 베드로와 그 부인, 권일신의 만딸 권

테레사가 그를 자기 집에 하숙시키고 적극 밀어주었다. 그 무렵 전라도 신지도에서 우이도로 유배간 삼촌 정약전의 부음을 받았다. 그 부음은 그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배교하지 말고 순교해야겠다는 결심을 굳게 다지게 했다.

여비를 마련한 바오로는 1816년 10월 24일 통역관의 종이 되어서 동지사의 일행에 끼어 북경으로 향했다. 명문 양반 자체가 종으로 변신한다는 것은 자신을 완전히 비우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의 좋은 머리로 짜낸 빈틈없는 계획으로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했으나 밀어주던 구베아 주교는 이미 죽고 프랑스 대혁명의 여파와 청나라의 교회 박해로 신부를 파견할 수 없다고 했다. 하상은 몹시 실망했으나 북경 교회와 길을 튼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이듬해 봄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울고 또 울었다. 의주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짐을 신고 오던 말의 발이 병이 나서 하루 늦게 서울에 도착했다.

바로 그 전날 조명수와 부인 테레사가 축일표가 발각되어 형조에 잡혀갔다. 말이 병이 나지 않았으면 하상과 수많은 교우들이 잡혀갔을 것이다.

정하상과 교우들은 하느님의 돌보심이라고 기뻐하며 감사했다.

5년 후 1821년 27세가 된 정하상은 조선교회 사무장격이었다. 그는 현석문 가롤로, 이경언 바오로 등 몇 사람과 손을 잡고 교우들을 지도하며 북경에 가서 성세, 견진, 고해 성사를 받고 신부 영입 운동을 계속했다. 1825년 이여진 요한 등과 함께 북경을 통해 가는 것이 어렵자 직접 로마 교황청에 편지를 올려 조선교회의 딱한 사정을 알리기로 했다.

다섯번째로 정하상의 방문을 받은 북경 주교는 그의 지극한 열성에 감동해 다음해 신부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1826년 오기로 약속된 심 신부가 도중에 죽고 말았다.

1827년 정하상은 다시 북경 주교를 찾아갔다. 북경교회의 박해로 괴로움을 받고 있던 주교는 화를 냈다. 미신자 집에 맡겨둔 어머니와 누이를 잘 돌보고 구령에 힘쓰고나 있으라고 하였다.

하상은 사실 자신과 가족의 영적 돌봄에 너무 소홀했던 것 같았다. 일이 거의 다된 듯싶었는데 그 어려운 길 북경 방문 여섯번째에 끝장인지 끈질기게 일어나기만 하던 그도 좌절하고 말았다. 그러나 아직은 하느님이 주신 때가 아니라고 믿었다. 주교의 명에 순종도 해야 하고 허탈해진 마음을 달래려 고향으로 내려가서 어머니와 누이를 데리고 서울로 올라왔다. 그와 마찬가지로 교우들도 너무 실망해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기가 미안했다. 서울은 가난한 살림살이와 영신생활을 하는 데 별로 도움이 되지 못했다. 그는 다시 가족을 데리고 고향으로 되돌아갔다.

마재 고향에는 1818년 귀양에서 풀려난 삼촌 정약용이 돌아와 있었다. 그는 귀양지 강진에서부터 배교를 크게 뉘우치고 교회 재건운동을 일으켜 조카 정하상을 돕고 있었다. 그는 고신극기하여 허리를 철사줄로 감고 죽을 때까지 고행할 결심을 했다. 대재를 지키며 매일 기도와 묵상 속에서 살았다.

정하상은 삼촌에게 많은 것을 배우며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신덕을 쌓아갔다. 해마다 두 차례의 시순절을 지키고 단식하며 가난한 가운데서도 자선사업에 힘썼다.

그 당시 정약용은 참회의 증거로 「조선복음전래사」를 저술했다. 초창기 학문에서부터 시작한 교회 인물과 사건이 상세히 기록되었다. 거의 마재 그의 가정을 중심으로 한 친척들의 활약이었다.

하상은 모든 진실을 파악할 수 있었다. 배교 아닌 배교도 박해자들까지도 이해할 수 있었다. 모든 것은 이땅에 복음의 씨를 뿌리고자 하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느님의 섭리였던 것이다. 고려시대 불

교의 타락으로 유교가 조선의 구원이 되었듯이, 유교의 부족한 진리 모순성은 당쟁을 심화시켰고 천주교의 구원이 부득이한 역사의 굴레, 하느님의 손을 뻗치게 했던 것이다.

“삼촌, 배교하신 어른들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도 배교하지 말고 순교해라. 배교한 다음의 고통은 순교하는 고통보다 더 큰 것 같다.”

삼촌의 아픔이 그의 마음에 와 닿았다. 그는 진실로 삼촌과 한마음이 되어서 신덕을 쌓는 데 정성을 다했다. 5, 6년 동안 그렇게 살면서 그를 박해하던 친척들에게 전교를 했다. 자신들을 미워하지 않고 덕과 사랑으로 전교하는 그들을 보고 많은 친척들이 입교하였다.

드디어 1871년 9월 9일 조선교구가 설정됐다는 소식이 날아왔다. 하상은 더 이상 시골에 묻혀 살 수 없었다. 약용 삼촌도 어서 서울로 올라가 주교와 신부를 모셔다 교회를 재건하라고 하였다.

그는 다시 아버지 무덤에 가 섰다. 무덤 주위엔 갈대가 무성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의 모습은 꺾박받고 있는 수많은 힘없는 교우들이 하얀 옷을 입고 서서 어서 빨리 와 도와달라고 손짓하고 있는 것 같았다.

“드디어 됐습니다. 아버님! 조선교구가 설정됐습니다.”

그는 높푸른 가을 하늘을 보고 힘차게 소리쳤다.

“그래, 장하다. 이제 시작이다. 어서 일어나 가거라. 일어나 가거라.”

갈대 부쉬지는 바람소리 속에서 아버지는 여전히 재촉하는 것 같았다.

처음 서울에 간 그는 사람들 앞에 잘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교우들은 고향에서 닦은 그의 신심, 덕행, 강직한 성격과 재주, 깊은 사려 등이 더욱 빛나게 다져진 인격을 곧 알아보았다.

결국 그는 조선교회의 일을 대부분 다 맡아 처리하고 지도하게 됐다.

1834년에는 다시 북경에 들어가 유방제 신부를 영입해 왔고 1836년 1월 25일에는 모방 신부가 서울에 들어왔다. 모방 신부는 먼저 신학생이 될 만한 청년을 뽑기 시작했다. 제일 먼저 최양업 토마가 뽑혔다. 그는 하상의 집에 머물면서 라틴어 공부를 하였다. 신부를 모시고 정신없이 돌아다닐 때 75세의 삼촌 약용이 노환으로 임종이 가까워 종부성사를 청해왔다. 하상은 그 동안 삼촌과 친분이 있던 유방제 신부와 함께 마재로 갔다.

자색 보료에 반듯이 누워있는 약용은 깨끗했고 정신은 아직도 맑아보였다. 옅은 미소로 유 신부와 하상을 맞기도 했다. 약용은 오래도록 성사를 보았다. 끝난 뒤 하상이 들어가자 손을 내밀어 하상의 손을 꼭 쥐었다. 무릎을 꿇고 또한 손을 저고리 앞 췌에 올려놓던 그는 흠칫 놀랐다. 아직도 굵은 쇠철사를 동이고 있었다.

“삼촌, 이 철사를 이제 풀으세요.”

항상 반성하며 괴로움 가운데 살아오신 분이다. 하상은 눈물을 흘렸다.

“아니다, 내가 죽어도 이 철사줄을 풀지 말아다오. 내가 매일같이 반성한 바를 적어둔 글이 저기 있다. 형님은 천국에 계시겠지.”

약용은 동경심이 가득한 슬픈 눈으로 하상을 바라보았다.

“삼촌, 안심하세요.”

하상의 눈에선 눈물이 건잡을 수없이 흘렀다. 일곱 살에 아버지를 잃고 고생하다 고향에 돌아와서 있을 때 아버지의 정을 느끼게 해줬던 참으로 온유하고 다정하신 분이셨다.

“하느님께서서는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천국에서 부르고 계십니다.”

유방제 신부가 뒤에서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2월 22일 약용은 아주 평화스런 얼굴로 조용히 서거하였다.

모방 신부는 3월 7일 최 프란치스코 사베리오, 7월 11월 김대건 안드레아를 뽑아서 라틴어를 가르쳤다.

유 체칠리아와 정정혜는 그들과 신부님을 정성껏 돌보았다. 그들이 장차 우리 나라 신부가 된다는 사실에 그저 기쁘고 호뭇하여 팻방구리 쥐 드나들듯 먹을 것을 날라다 주고 입을 것, 건강, 마음까지 살폈다. 어머니보다 더 마음쓰고 챙겨주었다. 그들 생애 중 가장 기쁘고 보람찬 시간이었다.

유감스럽게도 유방제 신부가 불미스런 일로 12월에 중국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다. 그가 가는 길에 세 신학생들도 유학의 길에 올랐다. 오는 길에 하상은 샤스탕 신부를 모셨고 이어서 앙베르 주교를 영입하였다.

왕복 5천리 눈보라 빙판길을 아홉 차례나 다닌 결과였다.

그는 항상 무덤 속에서 들려온 일어나라는 아버지의 소리를 가슴에 묻고 나팔처럼 불어대며 살아왔던 것이다.

앙베르 범 주교는 하상을 성직자가 되게 하려고 속성신학교육을 가르쳤으나, 1839년 주교와 함께 잡힘으로써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심문을 받을 때 박해에 대비해 써둔 호교론 「상재상서」를 포장대리에게 바쳤다. 「상재상서」는 천주교 입장을 잘 밝혀 박해자에게 박해를 그치도록 주장한 2000여 자의 가장 요령있게 천주교 도리를 편 명문이었다.

사흘 후 포장은 그를 불러 문초했다.

“비록 네 말이 옳다 해도 동지들을 모아 국왕이 금지하는 것을 가르친단 말이냐?”

“그 말씀에는 대답할 말이 없으니 내게는 죽음만이 남았을 뿐입니다.”

“너는 죽음이 두렵지 않느냐?”

“죽음은 부활의 문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승리의 월계관을 쓰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오히려 기쁠 따름입니다.”

하상은 하느님 앞에서 옷깃을 여미고 대답하듯이 진정을 다해 또렷이 말했다.

포장은 내심 그의 진리에 대한 확신에 감복해서 할말을 찾지 못했다.

포교들이 그의 집에 가서 그의 노모 체칠리아와 정혜도 잡아갔다.

박해가 일자 조카가 집까지 장만해 놓고 피신을 권했으나 체칠리아는 “나는 항상 순교하길 원했네. 이제 그 기회가 왔으니 내 아들 바오로와 함께 순교하네 싶네.”

하고 대답해 돌려보냈다.

감옥에서도 그녀는 미소를 잃지 않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돌봐주었다. 길고 긴 신앙의 괴로운 여정에서 비로소 자신의 길을 다 바치고 약속한 남편의 곁으로, 하느님의 곁으로 간다는 기쁨이 일었던 것이다. 그들이 가던 날들은 하늘에 검은 구름이 몰려오고 시리고 매서운 흠바람이 미친 듯 불어댔다. 그들은 하나같이 하늘을 보고 미소를 띠며 차례로 갔다.

“이곳 바람은 순교자의 바람입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항상 우리 마음을 깨우쳐주고 하느님을 증거케 하는 바람머리들의 소리가 있는 곳이죠.”

정 회장은 여전히 천진한 어린이처럼 웃으며 큰 호흡으로 바람을 가슴 가득 받아들였다. 순교자들을 받아 안듯 나도 가슴속 깊이 바람을 호흡해 들었다. 바람머리들 순교자들의 씨가 내 가슴속 깊이 심겨지도록.

소공동체
교육을
지속적으로

96년 1월 26일 정기총회를 통해 류덕희(모세) 용산본당 사목회장을 새 회장으로 선임하는 등 임원진을 개편한 서울 평협은 3월에는 복음화위원회와 민족화해위원회 등 2개 특별위원회와 청년분과위원회 등 3개 분과를 신설, 새롭게 출발했다.

서울 평협은 소공동체 운동, 민족의 화해와 일치, 청소년 사목 등을 96년도의 중점 사업으로 정해, 이를 구체화하는 데 활동의 역점을 두었다. 이에 따라 2천년대 복음화 특별위원회를 통해 평신도 지도자들을 위한 소공동체 교육을 교구 사목국과의 협조 속에 지속적으로 실시했다. 또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노력으로 교구 민족화해위원회의 민족화해학교 교육 및 민족화해를 위한 기도운동, 북한동포와의 국수 나누기 운동에도 적극 참여했다.

서울 평협은 이 밖에도 가정의 성화를 위해서는 부부간의 화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5월 마지막 주일을 '부부의 날'로 정해 지내기로 했으며, '환경 선언문'을 통해 환경 보호와 창조질서 보전을 위한 일에도 적극 나설 것을 다짐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 왔다.



서울 평협 회장 류덕희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주력

춘천교구는 94년 장익(張益) 주교가 교구장에 착좌한 이후 교구내 평신도 단체의 활성화에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춘천교구는 지난 한 해 동안 교구 현황 파악과 교구내 지역간의 관계를 긴밀히 하기 위해 교구장 장익 주교가 춘천, 서부, 중부, 영북, 영동을 포함한 5개 지역의 본당들을 사목방문해 왔다.

이뿐 아니라 침체돼 있던 평신도 단체들의 활성화를 위해 교구내 각 단체들의 교육강화와 다양한 행사를 마련해 왔으며, 특히 미래 교회의 중심이 될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주력해 왔다.

또 남북으로 분단된 교구내 현실을 새롭게 인식하고 교회가 민족의 화해와 통일에 있어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하느님 사랑을 실천할 것을 다짐, 남북 문제에 대한 세미나를 갖기도 했다.

올해 사도직 협의회(회장 이기천) 목표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숨어서 활동하는 교구내 많은 봉사자들을 찾아내 이들의 노고를 기리고 지원할 방침이며, 사도직을 통한 복음전파와 교구 발전에 주력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점차 늘고 있는 냉담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냉담자 찾기 운동 전개와 북한 의 침묵교회를 위한 기도회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외형적 변화보다는 소외받고 있는 이웃을 위해 작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신앙인으로서의 본분도 잊지 않도록 해 나갈 것이다.



춘천 평협 회장 이기천

선교와 복음화를 중심으로

대전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이병철, 지도·이범배 신부)는 96년 한 해를 교구장의 사목지침에 발맞추어 '선교, 복음화'에 중점을 두고 활동을 펼쳤다.

교구 평협은 특히 교구내 58개 본당 신자들과 9개 신심단체 신자들을 대상으로 신자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7월 17일 대전 가톨릭 대학에서 선교활성화를 위한 공개토론회를 열어 신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다. 이 토론회에서는 대전교구가 타교구에 비해 성소와 성지가 월등히 많은데도 신자율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이며 그 해결책은 무엇인지를 놓고 열띤 토론의 장을 이뤘다.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에도 적극 참여, 농민들만의 행사로 지내던 '추수감사제'를 교구민 전체의 감사미사로 승격해 지난 11월 11일 성남동성당에서 제1회 대전교구 추수감사 축제를 열었다. 이 행사에서는 농촌과 도시 본당 3곳이 각각 자매결연을 맺고 실질적인 교류를 약속했다.

교구장 경갑룡 주교와 대화의 시간을 마련, 교구의 여러 당면 문제들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자리도 가졌다. 이 밖에 매년 계속해 온 교구장기 본당 대항 테니스 대회(제5회)를 열어 본당간의 교류와 친목을 도모했으며, 본당 사목회장단과 교구 신심단체장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했다.



대전 평협 회장 이병철

복음화하는 공동체의 정착을 위해

인천교구 평협(회장·김건일, 지도·강근신 신부)은 지난해 '복음화하는 본당 공동체'의 정착을 위해 교구 대의원회 개최와 소공동체의 활성화를 강조한 교구장 사목지침을 실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활동했다.

인천 평협은 교구 설정 35주년과 2천년 대 회년을 맞아 준비하고 있는 교구대의원회의(Synodus)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 교구 시노 드를 위한 단체장 및 본당 사목위원 연수를 6월과 9월 두 차례 실시했다.

또 교회 봉사자를 위한 '복음화와 소공동 체' 연수를 7월에 실시한 것을 비롯해 평신 도주일에 신앙사진작품 및 신앙 체험수기 공 모와 교리경시대회를 실시하는 등 복음의 생 활화를 통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평신도상 확립에 주력했다.

아울러 월간으로 발행하던 교구 평협 신문 '가톨릭 인천'을 주간으로 전환, 재정상의 어 려움으로 제59호를 끝으로 창간 3년 만에 절 간할 때까지 매주 2만 부를 발행했다.

이와 함께 인천교구 평협은 지난 11월 우 리 농촌 살리기 운동 인천본부의 창립과 더불어 교구내 30여 개 본당에 도농협력분과를 설치하고 도농직거래 추진, 생활협동조합 설 립 등 농어촌 살리기 운동을 적극 추진해 오 고 있다.



인천 평협 회장 김건일

지속적인 성화운동과 선교운동에 박차를

수원교구 평협(회장·박인환, 지도·김영옥 신부)은 96년 '성화의 해'로 정한 교구장 사목지침에 따라 2천년 대회년 준비를 위한 지속적인 성화운동과 선교운동에 역점을 두고 활동해 왔다.

특히 선교 활성화에 힘써 선교전단과 스티커를 제작 보급하며, 매년 선교왕 선발 시상 및 선교체험담 발표회를 가짐으로써 선교 우수사례가 교구내 전본당에 파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북방선교를 위해 통일기도 및 통일통장 갖기운동을 더욱 확산시키고, 통일선교와 북한민을 위한 선교길잡이 책자를 발간했다.

3월초에는 '평신도의 역할'과 '선조의 신앙관과 통일준비' 등을 주제로 정기총회를 겸한 연수회를 개최하였으며, 11월에는 각 본당 총회장과 단체장들을 대상으로 소공동체 활성화 방안과 청소년 신앙문제에 대한 회원간담회를 갖는 등 회원교육에도 특별히 힘써 왔다.

또한 회지 '수원평협'과 계몽지 '위로의 샘' 발간을 비롯해 교구주보의 '평협단상' 기고, 수원평협 25년사 편찬을 위한 자료수집과 원고 집필 등 홍보활동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아울러 평협은 2월 최덕기 부주교의 서품식 행사를 주관해 무사히 서품식을 치를 수 있게 했다.



수원 평협 회장 박인환

평신도의 신앙적 성숙을 위하여

원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이계열, 지도·김한기 신부)는 2천년대 복음화를 위한 장기 사목지침의 일환으로 96년을 평신도의 해로 정한 교구장 사목지침에 따라 평신도의 사명을 일깨우기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성서 쓰기 운동(성서필사)을 통해 평신도의 신앙적 성숙을 위해 각종 활동을 펼쳤다. 사회 각 분야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평신도의 신앙적 각성을 위해 영적 독서 독후감 쓰기 운동, 성인전 등 종교·신심서적 구독 돕기, 목주의 기도 1백만단 봉헌운동을 전개했다.

또 원주교구를 신앙 아래 하나로 뭉치게 하고자 하였으며, 가정의 날을 제정해 성가정을 이루는 데 일조했다.

그뿐만 아니라 제주도에서 열린 전국 평협 상임위원회에서는 원주교구 평협이 안건으로 내놓은 성서쓰기와 가정의 날 제정이 전국 교구 평협들의 호응을 얻어 안건으로 채택되기도 했다.

97년 새해에는 교구장의 사목지침인 '그리스도인 가정의 해'를 평협의 활동 주제로 삼아, 사회에 모범이 되는 그리스도인 가정의 해를 만들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기로 했다.



원주 평협 회장 이계열

가정
복음화를
중점사업으로

대구 평협(회장·최옥식, 지도·이용호 신부)은 96년도를 '우리 가정에 생명의 복음'이란 교구장 사목지침에 따라 가정 복음화와 특히 생명 운동에 활동의 중점을 두어왔다. 그 가장 대표적인 활동이 10월 27일에 개최된 제3회 전국가정대회였다.

대구 평협이 '가정은 참으로 생명의 성역입니다'라는 주제로 주관한 전국가정대회는 가정성화를 위한 기도와 성가정 및 생명수호 모범 사례 발표, 혼인 갱신식, 기념 미사순으로 진행되면서 생명 수호의 성역으로서 가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 이에 앞서 '가정은 생명의 성역'이란 주제와 '사형과 인간의 존엄성'이란 주제로 생명수호 시민 포럼을 개최하기도 했다.

평협은 이와 함께 '우리 가정에 생명의 복음'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실천하기 위해 교육에도 많은 비중을 두었다. 본당평협 청소년분과 연수를 시작으로, 사회분과와 가정분과 연수, 교구내 신심단체 및 액션 단체들에 대한 연수 등이 그 일환이다. 또 소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2차에 걸쳐 모두 1백14명의 구역장과 반장을 대상으로 소공동체 교육을 실시했으며, 지난 11월에 실시한 시외 본당 반장 교육에는 모두 4백50여 명의 시외본당 반장들이 참여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대구평협은 평신도 지도자의 사명의식 고취와 교회 쇄신을 위한 평협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본당평협 회장들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기도 했다.



대구 평협 회장 최옥식

소공동체 운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부산 평협 회장 안병희

교구장의 사목지침 실천사항인 ‘교회 소공동체 운동’을 활발히 전개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부산교구 평협(회장 안병희, 지도 김계춘 신부)은 평협회장단 회의와 회장단 연수를 통하여 소공동체 운동 활성화를 위한 세부 실천 방안을 토의하였는데, 그중 1신자 1신심단체 가입운동 전개, 각 본당별 반모임의 체계적인 정비와 지원으로 내실있는 반모임이 되도록 지도 육성할 것과 교구내 40여 신심단체를 적극 지원하여 본당 신심단체의 강한 모체가 되도록 지원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로써 각 본당에는 신심단체 가입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며 직장인을 위한 직장 파견미사를 봉헌하는 등 소공동체 운동을 실천하고 있다. 또한, 본당 예비자 교리반에 특수 직장인을 위한 지성인 교리반을 개설하였으며, 교구 재단 산하 5개 중고생을 위한 예비자 교리반을 열어 2백39명의 학생들의 합동 영세식을 거행하기도 하였다. 올해로 제2기를 맞는 평신도 사도직 신앙학교는 1백2명의 졸업생을 배출시키는 등 소공동체 운동을 통한 복음화와 신자 재교육에 많은 열성을 보였다.

올해는 작년에 기공식을 갖고 추진중인 평신도 교육회관 건립에 전신자들의 관심과 협조로 연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며, 올해로 교구 설립 40주년을 맞아 각종 기념행사의 준비를 위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또한 2천년 대회년을 준비하면서 부산교구 2천년대 비전과 평신도의 역할에 대한 세미나를 97년 5월경에 개최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생명수호운동에 주력

청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양천진, 지도·송열섭 신부)는 96년 한 해를 교구장 정진석 주교의 사목지침에 따라 '가정 복음화'에 중점을 두었다. 교구 평협은 특히 올해 생명수호운동과 소공동체 교육, 성지보존운동, 자연보호운동, 신뢰회복운동, 가정봉헌운동 등에 주력했다.

5월 중 전개했던 생명수호운동은 교구 평협이 가장 힘을 쏟았던 운동이다. 청주와 충주 등 2개 도시에서 아기발 배지 달아주기와 태아성장과정에 관한 그림 전시를 통해 낙태의 부도덕성과 하느님의 창조사업의 숭고함을 알렸다. 또한 교구 내 각 본당 반장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복음화' 및 소공동체에 관한 교육을 실시, 1백42명이 수료했으며, 환경 선언문 2만 매를 배포해 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웠다. 이 밖에도 교구장 사목지침인 '가정 복음화'에 비중을 두고 3단계 가정봉헌운동을 펼치기도 했다.

청주교구 평협은 지난해 12월 5일자로 교구장의 인준을 받아 제정 공포된 '본당의 조직에 관한 정관'에 따라 1월 중 정기총회를 열어 97년도 사업을 확정짓기로 했으며, 올해 사업계획은 교구 사목교서 실천좌담회(2월 중), 예비자 및 냉담자 인도운동(7월 이후), 환경보호운동(4월 중), 생명존중 캠페인(5월 중) 등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청주 평협 회장 양천진

소공동체
운동의
정착을
위하여

마산(회장·김서곤, 지도·김용백 신부) 평협은 96년도에 교구장 사목지침인 소공동체 운동의 정착에 주력했다. 우선 교구 평신도들 사이에 소공동체의 개념과 방향 정립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다는 것을 감안해 사목국의 소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에 협력했고 '소공동체 운동의 해' 스티커를 발부하기도 했다.

올해에는 직장내 신자 소공동체의 형성과 성장에 적극 참여하고 각 본당평협 임원들이 반구역 모임에 출선했다 참가하며 소공동체 운동의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또한 그 동안 교구내 액션 단체들 상호간에 유기적인 활동이 미흡했다는 점을 인식하고 6월 교구 각 신심단체장 회의를 개최해 단체간 유대와 조직강화를 도모한 바 있다. 마산교구 평협은 앞으로도 각 신심단체장들과 자주 만나 교구내 현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마산교구 평협은 해마다 신자 선교의식 고취를 목표로 선교 모범자 시상식을 개최한다. 작년도도 교구내 모든 신자들을 대상으로 전교 유공자들을 추천받아 평협에서 자체적으로 공적을 조사한 후 시상식을 가졌다.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갖고 있으나 아직 도농거래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 활동을 전개하고 있지는 못하다.

평협 임원들이 교구 가톨릭 농민회가 작년 가을 경남 진양에서 주최한 추수감사제에 참석한 바 있고 적절한 시기에 도농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사업에 참여할 계획이다. 평협은 원활한 도농간 협력을 위해 앞으로 농민 관련 행사를 도시에서 열 것을 제안할 예정이다.



마산 평협 회장 김서곤

신앙
공동체의
해
구현에
초점을

안동 평협(회장·권무영, 지도·권혁주 신부)은 96년을 교구장 사목지침인 '신앙 공동체의 해'를 구현하는 데 초점을 두어 왔다. 교구장의 사목교서에서 밝힌 대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웃에게 봉사하며 생명을 전하는 살아있는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9월에 열린 김대건 신부 순교 1백50주년 신앙대회는 김대건 성인의 순교정신뿐 아니라 교구의 특징에 맞게 교구 관할 지역의 신앙 선조들의 삶을 본받아 '떳떳하고 기쁘게 사는 신앙공동체' 상을 드러내는 구체적인 표지였다. 대회 준비에서부터 행사 자체, 그리고 마무리에 이르기까지 신앙대회는 평신도와 수도자, 성직자가 하나가 되어 신앙 안에서 끈끈한 친교와 나눔의 정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안동 평협은 이와 함께 여성의 역할을 강조, 교구 차원의 여성연합회를 발족시켰으며, 연수회 등을 통해 살아 움직이는 공동체 상을 구현하기 위한 많은 의견들을 개진, 교구의 사목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도 했다.

또 교구의 신앙 선조들이 살았던 성지나 교우촌 등 신앙의 유산을 발굴, 성역화하는데도 많은 힘을 쏟아왔으며, 냉담자 회두 문제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오고 있다.



안동 평협 회장 권무영

지구 평협의
활성화를
과제로

광주 평협(회장·김영진, 지도 장세현 신부)은 지구 평협의 활성화와 평협 임원의 직무 교육 강화를 96년도의 주요 과제로 삼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기존의 광주지구 외에 순천지구, 중남부지구, 여수지구의 평협 조직을 완료했다.

또 임원실무교육을 위해 광주지역 각 본당 사목협의회 임원과 교구 평협 상임위원 등 1백80명이 참가한 가운데 사목협의회 분과별 직무연수를 실시했다.

광주 평협은 특히 춘계와 추계 2차례에 걸친 평협 임원 연수를 통해 교구 평협의 현안과 과제들을 진지하게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1백10명이 참여한 춘계 연수에서는 '성서와 함께하는 생활'을 주제로 한 강의와 함께 분반 토의를 통해서 반모임의 활성화 방안, 새로운 복음화 전개에 따른 평신도의 역할, 성서 읽기운동의 활성화, 지역 평협의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을 나누었다.

추계 연수에서는 97년 교구장 사목지침인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는 교구 공동체'를 주제로,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는 교구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평신도의 올바른 역할, 97년 교구 회년(교구 설정 60주년) 행사의 방향과 평신도의 참여 방안, 바람직한 도시 본당과 농촌 본당과의 교류 방향 등에 관한 진지한 토의를 벌였고, 그 내용을 교구에 건의했다.



광주 평협 회장 김영진

성서 읽기에 전력투구

군종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최동환)는 제2차 '말씀 경칭의 해'로 정해진 교구 사목지침에 따라 성서읽기에 힘을 쏟았다.

교구 평협은 장병 신자들을 대상으로 신·구약성서 읽기 및 쓰기운동을 전개, 가족 및 소공동체 단위의 성서암기사업을 지속해 왔으며, 96년 12월 중 교구 주최로 열린 성서암기 경시대회에 참여하는 등 성서완독을 주된 사업으로 삼아 실천해 왔다. 특히 성서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교구 평협은 하사관 연수, 평협 임원 연수 등을 통하여 성서주제 강의를 가졌다.

올해 사업으로는 또 소공동체 활성화, 성가정운동 전개 등을 들 수 있으며, 본당 사목회별로 효과적인 선교전략 수립에 부심하고 있다. 이 밖에 해마다 개최해 오는 남북통일 기원미사(6월), 군인신학생 피정(9월 중)등을 실시할 것이다.

5월 교구청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공군 최동환 중장을 회장에 유임시켰던 군종교구 평협은 새해 들어 새 임원진을 구성한 뒤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하고, 97년 새해의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의 해'라는 사목지침에 따라 장병 재교육과 교리교육의 활성화, 봉사에 주력할 계획이다.



군종 평협 회장 최동환

각 교구 평협 회장 명단

교 구	이 름	세 례 명	☎
서울대교구	류덕희	모세	(02)421-9398
춘천교구	이기천	요한	(0361)53-2532
대전교구	이병철	마리오	(042)862-0808
인천교구	김건일	요한	(032)814-4324
수원교구	박인환	베드로	(0342)41-6769
원주교구	이계열	아우구스티노	(0371)42-5500
대구대교구	최옥식	프란치스코	(053)255-2602
부산교구	안병희	모이세	(051)462-5734
청주교구	양천진	에드워드	(0431)66-1303
마산교구	김서곤	베네딕도	(0551)46-9456
안동교구	권무영	비오	(0571)52-0903
광주대교구	김영진	토마스	(062)363-4968
전주교구	문치상	비오	(0652)75-2244
제주교구	박선홍	마티아	(064)46-0100
군중교구	최동환	바르톨로메오	(02)796-2199

한국(전국) 평협 임원 명단

직 책	이 름	세 례 명
회장	류덕희	모 세
부회장	김영진	토마스
"	최옥식	프란치스코
"	유양수	요 셉
"	강형일	루도비코
"	박애주	글라라
사무총장	박찬도	이 보
사무국장	강주희	요 한
기획분과위원장	이홍균	요 셉
교육분과위원장	조천제	베 다
국제협력분과위원장	김영복	마르코
홍보분과위원장	이충우	안드레아
문화분과위원장	최홍준	파비아노
청소년분과위원장	서만규	베드로
사회복지분과위원장	양정조	프란치스코
정의평화분과위원장	이진록	알베르토
도농협력분과위원장	유정묵	사도 요한

평신도는 누구인가?
현세적 일에 종사하며
하느님의 뜻대로 관리함으로써
하느님 나라를 추구하도록 불린 것이
평신도의 소명이다.